축제와 사람

2025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sb 성북

2025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

축제와 사람

일러두기

1. 2025년 성북구 주민기록단이 생산한 기록활동보고서 98건 중 기록가 한 명 당 1건에서 최대 8건을 수록하여 이 선집을 만들었습니다.
2. 이 선집에 수록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모든 기록활동보고서는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 '주민기록단'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사진은 주민기록단이 직접 촬영하였거나 사용권을 양도 받아 실었습니다.

2025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

축제와 사람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sb 성북

축제와 사람의 열기,
기록으로 영원히 머물다

마을의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 순간을 붙잡아두지 않으면 기억 저편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성북문화원이 지난 2018년부터 성북구청과 함께 마을기록화 사업에 매진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흘러가는 지역의 시간을 '성북마을아카이브'라는 그릇에 담아 우리 삶의 터전이 지닌 가치를 오롯이 보존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현장에는 언제나 성북을 누구보다 아끼는 '성북구 주민기록단'이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성북의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축제'입니다. 축제는 지역 공동체가 가장 뜨겁게 살아 숨 쉬는 순간이자 수많은 이웃의 표정이 가장 밝게 빛나는 찰나입니다. 하지만 축제장의 화려한 무대와 사람들의 열기는 행사가 끝나면 금세 흩어지기에 기록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2025년, 총 15명의 주민기록단이 그 사명감을 안고 성북의 거리 곳곳을 누볐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었습니다. 축제의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대 위 주인공의 땀방울부터 골목 어귀에서 웃음 짓는 이웃들의 모습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해낸 꼼꼼한 관찰자들이었습니다. 성북동의 고즈넉한 정취가 어우러진 역사문화축제부터 청소년들의 꿈이 만개한 축제의 장에 이르기까지 주민기록단의 펜과 카메라는 성북 사람들의 기쁨과 보람의 순간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축제뿐 아니라 성북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주민기록단이 깊은 관심을 갖고 다가선 주제였습니다. 낯선 기록가들을 마주한 주민들은 지역의 기록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지역'이라는 삶의 자리가 이웃들의 생생한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되살아나고,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록이라는 고된 작업을 즐거움으로 승화시켜 주신 선종욱 단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기록가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올해도 변함없이 기록 활동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성균관대학교 오제연 교수님과, 마을기록화 사업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북구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조율해 준 성북문화원 가족들의 노고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성북문화원은 앞으로도 주민기록단과 함께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선집이 성북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소중한 기억의 책갈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성북문화원장 **김 영 일**

목차

4 발간사

1부

10 기록가 소개

2부 사람

18 중봉 이가범과 익청로 남명희

22 삼선교 '달달커피' 카페의 매력 남명희

26 아파트 경비원 P 아저씨의 일과 남명희

30 경국상회 사장님 전경애 박경희

34 멋진인생 천변풍경 사장님 김란기 박경희

38 혈관 건강에 도움 주는 콩나물황태국밥 선종욱

42 대한적십자사 성북봉사나눔터의 활동 선종욱

46 세화 영어 서점 선종욱
50 성신여대 인근 카페 사장님 윤서영
54 석관동 도당제 영자 강호남 윤서영
58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8. 이란 출신 해금 연주자 한예종 학생 야사만 이수연
62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박수빈 이수연
66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10. 종암동 주민자치회 지원관 강윤정 이수연
70 다빈치미술학원에서의 25년 세월 이용희
74 안암동사람들 1. 서울 토박이 최성림 임진희
78 안암동사람들 2. 영암교회 목사 유상진 임진희
82 안암동사람들 3. 봉사하며 걸어온 열정의 시간들, 봉제요정 이부남 임진희
86 사회운동가 고 배정학 8주기 추모식 장보혜
90 66년 성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석조이발관 사장님 조기선 조은영
96 미인도에서 만난 전시 〈구름구름〉 조은영
100 정릉책방 '햇살속으로' 조은영

3부 축제

104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조은영

108 지역 네트워크 축제 〈모두의 마당〉 황인성

112 성북물놀이축제 〈성북문화바캉스〉 선종욱

116 안암래미안 어린이 물놀이 축제 〈Splash Anam〉 임진희

120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제 임진희

124 현대백화점 미아점 〈현백 로컬 상회〉 김지성

128 성북사회적경제센터 공공구매 박람회 김지성

132 성북구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 임진희

136 장위1동 주민 교류 축제 〈모이장〉 황인성

140 라틴아메리카 축제 임진희

144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행사 〈ON다 페스티벌〉 김지성

148 성북거리문화축제 〈다다페스타〉 이수연

152 성북동 밤마실 이용희

156 알뜰도서교환시장 김지성

160 이웃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한마당 남명희

164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 김지성

168 성북동 사랑 나눔 연합 바자회와 음악회 남명희
172 안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임진희
176 어린이 문화다양성 축제 〈무지개 놀이터〉 황인성
180 흥천사 〈왕실 다례 재현〉과 〈사찰음식 축제마당〉 조은영

4부 시선

184 정든마을의 부흥주택 신해영
188 메모리루트: 정릉읽기_私·史로운 정릉 건축 산책 신해영
192 성북천에서 바라본 오래된 집들 양혜선
196 철거 예정인 주택 건물 이가현
200 전시 〈펜, 총, 그리고 연대〉 정혜인
204 낭독공연 〈내가 삶을 마주할 때〉 정혜인

208 기록의 순간들

214 돌아보며 오제연

김지성

기록활동보고서

〈주민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 체험의 장, 삼태기 숲〉
〈성북구민 걷기대회 - 홍릉수목원 행복한 걷기〉
〈현대백화점 미아점 '현백 로컬 상회'〉
〈성북사회적경제센터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
〈2025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
〈2025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행사 'ON다 페스티벌'〉
〈2025 알뜰도서교환전〉

남명희

주민들의 순간을 기록하며 글과 사진에 담기지 않는 감동이 있었다. '무엇을 봤는지'의 풍경을 넘어 삶에서 무엇이 아름답고 따뜻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단풍 고운 계절에 주민들의 가을을 마음에 담는다. 내년에도 주민기록단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기에.

기록활동보고서

〈중봉 이가범과 익청로〉
〈튀밥 할아버지〉
〈서울가톨릭미술가회 갤러리 '스페이스 성북'(Space Seongbuk) 개관〉
〈이웃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한마당〉
〈성북동 사랑 나눔 연합 바자회와 음악회〉
〈삼선교 「달달·커피」 카페의 매력〉
〈아파트 경비원 P 아저씨의 일과〉
〈우이신설 무인경전철〉

박경희

기록활동보고서

〈경국상회 전경애 사장님 구술 인터뷰〉
〈멋진인생 천변풍경 김란기 선생님 구술 인터뷰〉

선종욱

사라질 지역의 모습을 기록해 남기는 일은 우리 후손들에게 성북구를 기억하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지닌 주민들의 이야기에서 지역을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참여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기록활동보고서

〈성북구 길음1동 주민총회〉
〈길음역 교차로 유턴 신호 신설〉
〈성북구 정릉1동 주민총회〉
〈인테리어 사무실 젊은 대표의 사업 정신〉
〈성북물놀이축제, 제9회 2025년 성북 여름 문화 바캉스〉
〈혈관 건강에 도움 주는 콩나물황태국밥〉
〈길음 소리마을 모아 센터 매니저 활동〉
〈대한적십자사 성북봉사나눔터의 활동〉
〈한결같은 어르신 돌봄〉
〈청년공간 길이음의 활동〉
〈세화 영어 서점〉
〈이영리 길음1동 주민자치회장〉

신해영

주민기록단 활동을 할수록 내가 사는 동네에 애착이 간다. 무심코 지나친 일상도 기록자의 눈으로 보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성북 소리』와 버스정류장의 포스터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특히 이번 활동을 통해 성북의 오래된 건축 역사를 배우게 되어 무척 뿌듯했다.

기록활동보고서

〈성북구 솔샘로6길 42 정든마을_부흥주택〉
〈카페 스윗 정릉점 (참신한 다방)〉
〈성북밀로 전시회〉
〈펜, 총, 그리고 연대 전시회〉
〈메모리루트:정릉읽기_私·史로운 정릉 건축 산책〉
〈최만린미술관_조각가의 사람들 전시회〉
〈메모리루트:정릉읽기_스카이아파트(1969-2016)의 희로애락〉
〈성북 N 아티스트 기획전시 〈안성석: 그럼 쪼금씩 가자〉〉
〈성북탐방프로그램-시즌3 〈빙~둘러보고!〉〉
〈독립운동가 이육사〉
〈간송미술관_보화비장 전시회〉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스케치 여행〉

양혜선

기록활동보고서

〈성북천에서 바라본 오래된 집들〉
〈종로구와 성북구의 경계에 자리한 오래된 집들 - 기와집을 중심으로〉
〈과거의 집이 현재의 상가가 되기까지〉

윤서영

기록활동보고서

〈성신여대 인근 카페 사장님의 이야기〉
〈석관동 도당제 영자 강호남 선생님과의 인터뷰〉

이가현

기록활동보고서

〈철거 예정인 주택 건물〉

이수연

'성북, 일하는 사람들의 초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구민 10명의 고유한 삶의 이야기를 접하며, 새로운 배움을 얻었습니다. 성북에 산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기록 활동을 통해 '성북구 주민'이라는 정체성과 애정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사람을 잇는 기록을 꾸준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록활동보고서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1. 주민들의 따스한 정이 오가는 미장원, 시아헤어 원장님〉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2. 전업주부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를 거쳐 지역문화센터장까지 -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장이 들려주는 10년간의 성장 스토리〉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3. 70세에도 현역, 20년 베테랑 공인중개사의 철학
- 석관동 명성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의 대화〉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4. IT서비스 기획자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사까지,
워킹맘의 특별한 커리어〉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5. 꽃과 함께 11년, 사람들의 미소가 가장 큰 보람
- 석관동 플로리스트 인터뷰〉
〈"지역축제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제2회 성북거리문화축제, 다다페스타 참석기〉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6. 숲에서 배운 교육, 키움센터에서 꽃피우다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안은숙 센터장 인터뷰〉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7. 봉사에서 직업으로, 17년차 해설사의 역사 사랑 이야기
- 의릉역사문화관 해설사 은현숙 씨와의 만남〉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8. 외국인 유학생이 성북에서 그려내는 노동과 예술의 풍경
- 해금연주자인 이란 출신 한예종 학생 야사만과의 인터뷰〉
〈10월의 성북을 걷다: 전시와 축제, 그리고 왕릉의 독서까지〉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9. 사람의 이야기, 문학을 사랑하는 연구자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박수빈 교수를 만나다〉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10. 주민이 만드는 마을 공동체의 숨은 공로자
- 종암동 주민자치회 강윤정 지원관을 만나다〉

이용희

성북구는 곳곳에 역사가 있고 사람들의 사연들이 겹겹이 쌓인 보물섬 같은 곳입니다. 정겨운 자인사, 25년간 꿈을 키워온 추교덕 원장님, 성북동 밤마실 인터뷰 등 소중한 만남이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주민기록단 활동을 통해 성북의 매력을 깊이 알아가며, 주민들의 삶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기록활동보고서

〈돈암동 작은 사찰 자인사가 궁금하다〉
〈다빈치미술학원에서의 25년 세월〉
〈2025 성북동 밤마실 거리를 맛보다〉

임진희

이번 주민기록단 활동을 통해 마음을 열면 가까이에 의미 있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소중하고 자기만의 사연을 지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기록활동보고서

〈안암동 사람들 1. 서울 토박이 최성림〉
〈개운산 수국길 탐방〉
〈안암 래미안 아파트 어린이물놀이 축제 “2025 Splash Anam”〉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제 관람기〉
〈안암동 사람들 2. 영암교회 유상진 목사〉
〈2025 성북구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
〈제12회 라틴아메리카축제〉
〈용문중학교 환경보호 체험활동〉
〈2025 안암어울림한마당 축제〉
〈안암동 사람들 3. 봉사의 삶 실천하며 걸어온 열정의 시간들 봉제요정 이부남 님〉
〈행복한세탁소 개소식〉

장보혜

교육과정에서 구술사와 인터뷰 수업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단 동료들로부터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의 주제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넓어지는 변화가 재미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성북구를 좀 더 잘 알게 되었고, 일상 속에서도 기록과 공유의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게 되는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록활동보고서

〈느티나무 1999~2025 (상)〉
〈느티나무 1999~2025 (하)〉
〈사회운동가 고 배정학 8주기 추모식 (상)〉
〈사회운동가 고 배정학 8주기 추모식 (하)〉

정혜인

주민기록단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활동하는 만큼 지역에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탓에 전시 혹은 행사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매달 초 이번에 어디를 방문하면 좋을지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즐겁게 활동하였습니다.

기록활동보고서

〈〈이태준, 그리고 성북〉 전시〉
〈오동숲속도서관과 오동근린공원〉
〈〈펜, 총, 그리고 연대〉 전시〉
〈〈지역의 기억〉 상영회〉
〈낭독공연 〈내가 삶을 마주할 때〉〉
〈구석구석 성북구 문화탐방 스탬프 워크북〉

조은영

힘들다 투덜대면서도 10개의 기록을 무사히 제출했습니다. 성북구 도보 여행자가 되어 무작정 걸었고, 둘러봤고, 시도했습니다. 낯선 장소,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난 모든 순간이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의도대로 되지는 않거나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힘듦을 잊을 만큼 새로운 경험이 주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기록활동보고서

〈66년 성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석조이발관 조기선 선생님〉
〈골목에 위치한 국가유산 일대 빈집〉
〈자원순환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성북리앤업사이클플라자〉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생생소통 의제축제 제6회 보문동 주민총회〉
〈미인도에서 만난 전시 '구름구름'〉
〈정릉책방 '햇살속으로'〉

〈문화예술 기획자 변희정 대표를 만나다〉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현황〉
〈제 2회 흥천사 '사찰음식 축제마당 & 왕실다례재현'〉

황인성

기록활동보고서

〈성북구 장위동 보호수〉
〈모두의 마당 지역 네트워크 축제〉
〈길음시장〉
〈장위1동 주민 교류 축제 '모이장'〉
〈2025 어린이 문화다양성축제 무지개 놀이터〉
〈문화공간 이육사〉

중봉 이가범과 익청로 남명희

일시: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15:00 - 17:00
장소: 성북구 성북로31가길 46 주변
오상미술관 전시실(양주시 권율로 190-13)

조사지 선정 이유

지난 2020년 '성북동 숨겨진 골목길 익청로(益淸路, 성북로 31가길 46 주변)'란 제목으로 주민기록단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오랜만에 찾아간 익청로 오솔길의 표지석은 단풍나무 가지와 웃자란 잡초에 반쯤 가려 얼른 눈에 띄지 않았다. 비석 옆 단풍나무 잔가지와 잡풀을 걷어 내자 예전의 해맑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표지석은 '益淸路'를 음각으로 새긴 약 1미터 길이의 직사각형 검은 대리석 판을 커다란 바위에 박아 넣은 조형물이다. 표지석 가운데에 한자로 쓴 익청로 오른쪽 상단부분에 작은 글씨체의 다음과 같은 한글도 있다.

> 이 길은 도심에서 유일한 청정 산책로로써 오를수록 마음과 몸에 맑은 기운을 더한다는 뜻에서 익청로(益淸路)라 이름을 하였음. 中峯 題



익청로 표지석

당시 보고서를 쓰면서 익청로 길의 비석에 글을 쓴 사람이 '中峯'이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가 과연 누구인지 궁금했다. 인터넷 검색이나 구청에 문의를 해도 알 수 없었다. 그 후, 성북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이 표지석 글은 문인화계의 거목인 중봉 이가범이 쓴 것으로 보인다.'라는 글을 발견했다. 이는 제2차 보고서 작성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다. 이어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오상갤러리' 홈페이지 중 '비석 글씨, 목각 글씨들'에서 성북동 익청로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다. 글씨를 쓴 분은 우리나라 묵죽화(墨竹畵)의 거장인 중봉 이가범 화백으로, 그의 아드님 이종갑(李種甲) 관장이 경기 양주에 오상미술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 미술관을 방문했다.

현장 조사 내용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15:00 - 17:00
장소: 양주시 장흥단지의 오상미술관
방문 목적: 성북동 '익청로' 비석의 설립 과정 확인



이종갑 관장

오상미술관과 중봉 이가범 화백

관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 오상갤러리는 아버님의 유지에 따라 제가 지은 개인 미술관입니다. 선친께서는 평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규범인 오상(五常), 즉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기본 덕목을 곧고 푸른 대나무에서 배울 수 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묵죽화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선친의 예술 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친께서는 한국 문인화계의 거목이며, 특히 대나무 그림, 즉 묵죽화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묵죽화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도 극찬을 받았으며 오스트리아 국립 박물관을 비롯한 세계 각국 기관 등은 물론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도 선친의 묵죽화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중봉 이가범 화백의 작품세계

이종갑 관장의 안내에 따라 전시실을 둘러보며 중봉 이가범 화백의 대나무 그림과 소나무 그림에서 높은 기개와 기품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봉의 대형 묵죽화 앞에 선 이종갑 관장은 선친의 작품세계의 진수를 정리한 것이라며 유인물 한 장을 주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 대나무가 지닌 뜻은 地球生存(지구생존)의 상징 綠色(녹색)의 代表(대표)가 竹(죽)이요 人類(인류)의 共通秩序(공통질서)인 仁義禮智信(인의예지신) 五常(오상)을 象徵(상징)하는 것도 竹(죽)이다. (중략) 그래서 이처럼 人間(인간)이 지녀야 할 德目(덕목) 仁義禮智信(인의예지신) 다섯 가지 모두를 한 몸에 같이 가지고 있기에 긴 역사 속 수많은 詩文家(시문가)들이 竹(죽)을 君子君子(군자군자)라고 읊어댔다. 그래서 나는 대를 그리는데 기교나 멋보다 家訓的(가훈적)인 뜻 그림으로써 대가 지닌 특성들 剛直性(강직성) 虛心性(허심성) 精潔性(정결성) 圓意性(원의성) 등을 구현해 왔다.

성북동으로 이사 오다

전시 작품을 설명하며 안내하던 이종갑 관장이 잠시 멈춰 서서 전시실 정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정면의 '중봉정사' 현판 보이시죠? 성북동집에 사실 때 거실에 걸어 두었던 것입니다. '정사'라면 대개 학문을 가르치는 곳, 또는 수양하는 곳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선친께서 성북동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서예와 한문 등을 가르치셨어요."

선친께선 언제부터 성북동에 사셨나요?

90년일 겁니다. 그렇게 성북동에서 2004년 8월까지 사시다가 다시 이사를 하셨어요. 의정부에 미술관을 지으면 그 옆에서 사시겠다며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친께서는 성북동에 대략 15년쯤 사셨네요.

네, 그렇죠. 당시 살던 집 주소는 '성북동 334-2번지'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원래 그곳에 미술관을 건립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성북구 명예구청장도 하셨어요. 또 성북동 집에 대해 생각나는 것은 마당에 맑고 차가운 석간수가 나와서 연못과 폭포를 만들고 송어를 키웠어요.

‘익청로’ 비석을 세우다

전시실을 둘러본 후 다시 테이블에 앉아 제일 궁금했던 익청로 얘기를 꺼냈다.

오늘 관장님을 뵈러 온 목적 중 하나는 성북동 ‘익청로 비석’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95년도인가 그때 성북동 쪽에 아주 큰비가 내렸어요. 지금의 익청로 옆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까지 겹쳐서 상류에서 돌과 모래가 쏟아져 내려와 하천과 도로가 거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메워졌어요. 그때는 익청로 표지석은 원래 없었어요. 큰비가 오면서 저기 한양도성 성벽 위에 있는 데서부터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큰 바윗돌도 굴러내려 왔어요. 그래서 선친께서 그걸 꺼내서 우리 집 대문 옆에 비석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처음엔 바위에다 직접 ‘익청로’ 글씨를 새기려고 했으나 작품성이 떨어질 듯하여 오석 판석에 새겨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석으로 유명한 전북 정읍에 가서 그 판석을 구해와서 각을 했어요. 저 앞쪽 주차장에서 불 피워가면서 아버님이 직접 글을 쓰고 조각을 하셨어요.

익청로 비석에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이제야 익청로 비석의 비밀이 풀려서 참 기쁩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해주십시오.

아버님께서 2021년 4월 19일 영면하셨습니다. 생전에 아버님께서는 송강, 중봉 두 가지 호를 쓰셨어요. 중국 작가들이 저희 아버님을 시, 서, 화를 모두 하는 작가로서 ‘으뜸이다’라는 뜻으로 ‘中峯’이라 지어드렸어요.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 선친의 예술세계를 이해하고 그 뜻을 받들어 아름다운 미술관을 지은 이종갑 관장에 대해 깊은 경외심이 들었다. 익청로 비석에 새겨진 뜻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

삼선교 '달달커피' 카페의 매력 남명희

일시: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10:30 - 11:30
장소: 카페 달달커피(성북구 삼선교로 23길 8)

조사지 선정 이유

방문 며칠 전이었다. 길음동에 사는 친구와 점심을 함께한 후, 차 한 잔 하다가 우연히 '달달커피'라는 카페 얘기를 들었다. 분위기 괜찮은 곳인데 가봤냐는 것이다.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가끔 혼자서 조용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했다. 그런 괜찮은 카페가 우리 동네에 있다니 마음이 끌렸다. 며칠 후 짬을 내어 커피 맛도 보고 독서도 할 겸 이 카페를 방문했다.

카페 '달달커피'를 찾아가다

달달커피는 성북경찰서 사거리 한우설렁탕 식당 옆 골목길로 30여 미터 들어온 곳에 있다. 겉으로 보기에 그저 평범한 카페다. 가게 안이 어렴풋이 들여다보이는 유리창 밖에는 수종을 알 수 없는 나무를 심은 크고 작은 화분 몇 개가 자유롭게 놓였다. 다소 산만하고 촌스럽게 보이기도 했다. 아무튼 집에서 가까운 골목길에 있는 카페라 가끔 그 앞을 지나다니지만 특별히 시선을 끄는 간판도 없어 무심코 지나치기 일쑤였다. 특색이라면 출입문과 유리창 틀의 민트색 외관이 주변의 일반 가정집과 다소 다른 느낌을 주는 정도다.

카페 주인과 대화를 나누려면 붐비지 않는 오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10시 40분경 카페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상호를 자세히 보았다. 유리 출입문에 흰 글씨로 쓴 '달달커피' 상호가 특이하게 느껴졌다.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향수 어린 감성적인 느낌을 주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어느 작은 공원이나 요정이 사는 예쁜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간이었다. 실내 곳곳에 놓인 여러 종류의 화초 화분과 아담하게 꾸민 실내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카페 앞을 지나치며 밖에서 보던 느낌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였다. 화초의 그린 색과 은은한 노을빛 조명이 어우러진 분위기, 테이블 위의 여러




'달달커피' 매장에서 음료를 만드는 사장 부부

꽃무늬 따위를 보며 타임머신을 타고 어느 동화 나라로 온 것 같았다. 녹색 화초와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차분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주었다. 홀 안쪽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스크린에는 핼러윈의 대표적 캐릭터인 커다란 호박 마카롱 위로 낙엽이 흩날리고 있다.

간격이 넉넉한 테이블과 1인용 바 자리부터 2인, 4인, 8인 등 다인석까지 여러 스타일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어 혼자 오거나 뜻이 맞는 친구와 함께 와서 독서나 컴퓨터 작업을 하기에도 좋고, 여러 명이 와서 담소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벽면 장식과 곳곳의 작은 소품들은 어릴 적 향수를 자아내게 했다. 친구가 추천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K사장과의 대화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 잠시 카페 안을 둘러보는 동안 사장은 주방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즘은 주문할 때 간단히 '따아'라고 하면 되던가? 오픈 카운터 너머 조리대에서 일하는 주인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그와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무슨 홍보를 하러 오셨나요?"

사장이 먼저 말을 붙였다.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서 사진을 몇 장 찍는 걸 유리창 밖으로 본 것 같았다. 사장과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틀까, 하고 생각 중이었는데 먼저 아는 체를 하니 다행이었다. 손님들을 대하는 매장인지라 그와 마주 앉아 차분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은 다음, 나는 테이블에 앉아 따끈한 커피를 마시면서, K사장은 주방에서 일하며 얘기를 나누었다. 사장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메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 정리했다.

'달달커피'라는 특이한 카페 이름에 대하여

'달달'이란 상호를 사용하는 카페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여러 지역에 있다. '달달하다'와 '달콤하다'는 비슷한 뜻이지만 '달콤'은 사용하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달달'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가 상호를 '달달커피'로 이름 붙인 것은 달달의 뉘앙스가 좋아서였다. 또 발음하기가 쉽고, 기억하기도 좋으며, 카페 분위기가 달달하다고 하면 왠지 정감이 가는 느낌이 들며 손님들도 달달한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그렇게 지었다.

다른 카페보다 다양한 메뉴의 특징에 대하여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등 기본 메뉴와 블렌드 커피를 비롯하여 에이드, 라떼 종류, 케이크, 간단한 스낵류 등은 다른 카페와 비슷하다. 특별한 메뉴를 꼽으라면 스페셜 메뉴로 사시사철 제공하는 빙수 외에도 '달달'만의 메뉴가 많다.

쌍화차와 대추차 등 수제 전통차는 달지 않고 맛이 아주 진하고 깊은 '달달' 특유의 건강 차이며, 감기몸살예방에 좋은 뱅쇼(따뜻한 와인이란 뜻)도 제공한다. 게다가 샐러드, 브런치, 파스타, 와플에다 저녁에는 안주류와 간단하게 생맥주나 병맥주도 즐길 수 있다. 특히 모든 메뉴는 합리적인 가격대라 근처의 대학생, 직장인 등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달달'만의 돋보이는 내부 디자인과 소품 등에 대하여

손님들이 지친 심신을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한편 계절을 잊고 사는 도시민의 삭막한 삶에 사계절의 감각을 되돌려 주고 싶었다. 그래서 카페 내부 인테리어의 컨셉을 계절별로 달리하여 꾸미고 있다. 겨울에는 겨울 분위기, 봄가을에는 봄가을 분위기, 한여름에는 한여름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시시각각 바꾸어 변화를 준다. 지금은 가을과 핼로윈 시즌이라 그에 맞는 영상을 스크린에 올리고 실내 소품도 시즌에 맞게 꾸몄다.

사장은 영상과 디자인 공부를 겸해서 했기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단골 고객도 많이 생겼는데, 인근의 대학생들도 많이 오지만 특히 중년의 손님들도 많다고 한다.

그때, 나이 지긋한 남자 손님 여럿이 들어와 햇볕 따스한 창가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한다. 그들 뒤를 이어서 들어온 중년의 여인이 주방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한다. K사장이 아내라고 소개한다. 두 사람은 방금 손님이 주문한 커피를 내리고 잔을 준비하는 등 익숙하게 서로 척척 호흡을 맞춘다.

K사장의 독특한 인테리어 감각과 경력에 대하여

현재 60대 초반의 K사장은 홍익대 미술대와 대학원에서 파인아트를 전공한 후,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파리 제8대학에서 8년간 미디어아트와 디자인을 전공했다. 귀국 후 홍익대, 성신여대, 단국대, 남서울대, 창원국립대 등 대학교 강단에서 8년간 강의를 했다.

그러다가 뜻한 바 있어 8년 전인 2017년에 현재의 위치에 카페를 개업했다. 그리고 정릉동 교수단지 옆 빌라촌에 살다가 집도 카페와 가까운 삼선교로 옮겼다.

한편 그가 파리로 유학을 떠난 지 1년 후, 한국에서 결혼한 아내도 그의 뒤를 이어 파리로 유학을 와서 연극과 뮤지컬의 헤어디자인과 메이크업 분야의 공부를 했다.

K사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다

카페의 일은 단순하다. 하지만 각계각층의 손님은 다양하다.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을 맞이하며 새로운 일상의 변화를 추구한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는 카페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 주변의 많은 카페가 문을 닫았지만 최소로 운영하며 그냥 버텼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겨우 한숨 돌렸다.

동네 뒷골목에 위치한 카페인 만큼 동네 친구나 학교 친구끼리, 가족과 함께, 인근의 직장 동료와 함께, 또는 혼자서 편안한 시간을 갖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찾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많은 손님들이 즐겨 찾는 따뜻하고 정감 있는 카페가 되도록 아내와 힘을 합해 계속 노력해 갈 것이다.

조사지의 특징과 바람

카페 앞을 지나치며 무심코 밖에서만 보던 것과 달리, 유리창 안에서 풍기는 따뜻한 기운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카페 안의 푸근함과 사장의 다정한 손길이 느껴지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준다. 실내 분위기가 고향집에 온 것처럼 정겹고 포근하다. 또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들르기에도 딱 좋은 카페다.

오전에 문을 여는 시간부터 저녁에 문을 닫는 시간까지 언제나 손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동네 좋은 카페로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

아파트 경비원 P 아저씨의 일과 남명희

일시: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16:00 - 17:00
장소: 성북구 보문동 H아파트 단지

아파트 경비원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집이라면 곧 아파트를 의미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인들은 모두가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꿈을 꾸며, 또한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금, 중간 정산 퇴직금에 부모님의 재산까지 끌어들이며 영혼마저 파는 '영끌 아파트 한국'이 되었다. 이렇게 어렵사리 마련한 아파트에 살며 소통 없이 지내던 주민들이 아파트값을 지킬 때만 똘똘 뭉치는 나라, 이것이 현실의 우리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의 개념은 가정을 의미하는 '홈(home)'보다는 투자 목적의 돈과 관련한 '하우스(house)'의 뜻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여기에 더해,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수난을 당한 얘기도 심심치 않다. 지난 여름의 폭염 속에서 어떤 아파트 주민들은 전기료가 아깝다며 경비실에서 선풍기를 치우라고 소동을 벌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아파트 경비원이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일까?

그러한 우리의 야박한 현실을 반영이나 하듯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광고가 나왔다. 몇 달 전부터 TV에 나오는 어느 아파트 브랜드 광고다. 왠지 이 광고 한 편이 삭막한 현실에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광고는 고단한 하루 일과나 여행 혹은 출장이나 병역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을 가족들이 반겨주는 내용이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족애와 정(情)을 푸근한 선



아파트 경비원 P 아저씨

율의 배경 음악과 함께 보여줄 뿐이다. '오늘도 집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광고 카피는 집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아파트 경비원 P 아저씨 인터뷰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경비원 P 아저씨가 있다. 그가 잠시라도 느긋하게 앉아 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그가 아파트 마당을 오갈 때도 손에는 언제나 빗자루나 망치 등 연장을 쥐고 있었다. 가을이 짙어 가는 어느 날 오후, 겨우 틈을 낸 그와 마주 앉아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바쁘게 일만 하시는데 경비원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

아파트 두어 곳에서 만 16년간 일했어요. 그전에는 가게를 운영했어요. 아내와 한 9년 반 동안 했어요. 나이를 먹으며 가게 운영하기가 점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접고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경비원은 정년이 어떻게 되나요?

나 지금 팔십이에요. 아직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건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나 봐요. 지난번에 함께 일한 경비원은 85세였어요. 아파트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깊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오래 일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 사람처럼 오래 일한 경비원이 4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이 힘들고 월급도 적은데 젊은이가 누가 이런 일 하려고 하겠어요.

아저씨의 하루 일과는 어떤지 소개해주세요.

A, B 두 개 조로 나누어 하루 12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해요. 일하는 날은 6시 출근해서 다음 날 새벽 6시에 퇴근해요.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근무하는 아파트까지 거리가 멀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출근 시간 전이지만 5시쯤 도착해서 그때부터 주변 청소와 순찰을 시작해요. 아파트 단지가 넓어서 하루 종일 일해도 끝이 없거든요. 주변 뒷골목까지 청소를 해야하니까 어떻게 보면 본래의 경비 업무보다 청소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허허.

말씀을 듣고 보니 경비원의 임무가 청소인 것 같은 기분이네요. 아무튼 담당 업무가 경비원이시니까 경비 일을 하셔야 할 텐데 경비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하는 아파트는 초소가 정문과 후문 두 곳에 있어요. 그날의 근무자는 2개 조로 나누어 2시간씩 교대로 근무해요. 정문 근무가 훨씬 힘들어요. 거주 주민과 택배차 등 외부인 등의 관리와 입·출입 차량 통제 등 할 일이 많아요. 또 간혹 주민들의 민원이나 긴급히 경찰서나 병원에 연락을 할 일도 있어요. 그리고 단지 내에 설치한 CCTV의 모니터를 감시하며 경계를 해야 하고 야간에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후문 초소 근무는 좀 편해요. 잠시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지만 마냥 초소에 편안히 앉아 쉴 수만은 없어요. 그 시간에 수시로 틈을 내어 단지 내외의 청소를 해요.

경비 업무 중 가장 힘든 일은 어떤 일인가요?

경비 일이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동안 몸에 밴 일이라 크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청소 일이 많이 힘들고 피곤해요. 특히 재활용 쓰레기 처리하는 날은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쓰레기 수거 현장을 지키며 정리해야 해요. 그 일이 제일 힘들어요. 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나오면 실제로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모두 다시 해야 해요. '분리배출'은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닌데도 흔히들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섞어서 버려요. 이것을 구분, 정리하는 일이 경비원의 일이에요. 이제 곧 날이 추워지면 눈이 올 텐데 그거 치우는 일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거야 잠시뿐인 일이라 할 만해요. 오히려 요즘같은 가을철에 매일 쓸어도 쓸어도 끝이 없는 낙엽 치우는 일보다는 낫지요.

그럼, 그동안 경비 일을 해오시며 보람을 느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 일이야 세상에 어떤 일이든 다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거지요. 특히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거의 매일 반복된 일이라 특별히 보람을 느끼거나 기억에 남을 만한 건 없어요. 아파트 일과 상관은 없지만 그동안 내가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낀 일이 있어요. 내가 사는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대학가 주변에 있어요. 딸 셋이 모두 분가하고 나가서 방이 여유가 있어 학생들 자취방으로 세를 놓았어요. 자취를 한 학생은 모두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들이었어요. 방 세 개에 모두 여학생만 받았어요. 특히 스페인에서 온 학생은 국제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해서 한국어학과 교수가 되었어요. 이름이 '라우라'라는 학생인데 요즘도 한국에 오면 가끔 우리 집에 와요. 경비원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보람이라면 보람이에요.

아까 따님이 셋이라고 하셨는데 아드님은 없어요?

예, 딸만 셋이에요. 첫째와 셋째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따님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우셨네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아파트 경비원 P 아저씨와 대화를 하며 경비원이 아니라 아파트 청소원과 만난 기분이었다. 쓰레기 분리수거일을 딱 하루로 정해둘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장을 만들어서 평일에도 분리 배출하게 하여 매일 쓰레기를 조금씩 정리하면 어떨까. 그러면 오히려 주변 환경 정리도 더 깨끗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 편리와 작업자(경비원)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지은 어느 아파트에 가 보니 별도로 정한 수거일 없이 쓰레기 배출장을 별도로 만들어 둔 곳이 있었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이런 제도를 모든 아파트에 확대, 시행할 수는 없을까?

경비원 아저씨의 일은 너무 벅차고 힘겹다. 일상의 반복적인 경비 업무와 청소 외에도 눈이라도 오면 제설 작업에 나서야 한다. 여름에는 제초와 수목 전지(剪枝) 작업에다 가을이면 한없이 떨어지는 낙엽 쓸기에 여념이 없다.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즐거워할 틈도 없이 경비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봄꽃잎 쓸어내기에 지친 몸을 쉴 틈도 없이 눈발 같은 벚꽃이 휘날린다.

아파트 주민이나 방문객들의 갑질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경비원도 더러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경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일이 더 많이 힘들지도 모른다. 노년의 마지막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비원의 꿈은 건강하게 100세가 넘도록 일을 계속하는 것일 것이다. 그들에게도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한 배우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 평소 그들에게 빵이나 커피 등 소소한 먹거리를 주거나 덕담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면 경비원들도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고된 경비 업무를 마치고 새벽 6시에 퇴근하는 경비원의 발걸음이 가볍기를 오늘도 빌어 본다.

대화를 마친 아저씨가 빗자루를 들고 나가며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우리는 가을이 싫어요."

경국상회 사장님 전경애 박경희

일시: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12:00 - 12:30
장소: 경국상회(성북구 보국문로 109)

조사지 선정 이유

북한산보국문역 2번 출구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약 150m쯤 걸어가면 아주 오래된 슈퍼가 있다. 대로변에 있고 길 건너 정릉4동 주민센터가 있어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정릉4동 산동네 재개발의 여파로 경국상회도 6월 초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소중한 보물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아 기록하고 싶어졌다. 매일 드나들진 않았지만 학교 가는 길목에 있어 초등학생 시절에는 가끔 아이스크림, 과자를 사 먹고 중고생 때는 토큰, 회수권을 샀던 슈퍼이기에 없어진다는 것은 왠지 아쉬웠다. 그래서 사장님을 뵙고 소소한 이야기라도 나누려고 문을 두드렸다.

인터뷰 조사 내용

사장님 소개

출생 연도: 1955년
운영 기간: 34년



경국상회 전경애 사장님



인터뷰 접근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의 여러 모습을 역사 속에 남기고 싶어 하는 성북구 주민기록단 박경희라고 합니다. 경국상회는 저도 학창 시절에 왔었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재개발의 여파로 철거된다고 하니 너무나 아쉽네요. 사장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으로 남겨 기록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경국상회를 운영하게 된 계기

34년 전에 봉천동에서 이사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남편이 정릉에 놀면서도 해볼 만한 작은 가게가 나왔다고 해서 직접 보니 가게가 작기도 하고 누워서 떡 먹기겠다고 생각해서 계약했어요. 그 당시 계약할 때 그 전 주인 말로도 수십 년 되었다는데 가게가 생긴 지는 총 80~100년쯤 된 것 같아요.

경국상회 이름과 가게의 모습

'경국상회'라는 상호명은 사장님이 가게를 인수하기 전부터 전 주인이 지은 이름으로 옆에 경국사라는 큰 절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가게 안에는 골드스타 TV에서는 아직도 화면이 나오고 있고 오래된 라디오에서 음악이 흐르고 있다. 낡고 오래된 아이스크림 통은 잠겨져 있고 음료수를 넣은 냉장고, 금고, 동전 통의 녹슨 모습에 세월의 흔적이 보인다. 높게 진열된 담배들, 과자들, 음료들이 요즘 깨끗하게 정리된 슈퍼와는 달리 왠지 정겹고 추억의 가게 모습을 띠고 있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 상황이라 물건을 정리 중이라 한창때의 가게 모습을 담을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경국상회 운영과 에피소드

가게 운영은 생각처럼 쉬우셨어요?

쉽게 생각하고 계약을 했으나 막상 해보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15년 전까지는 장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장사를 할 수 없어 남편이 일을 관두고 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돈 벌어 집 사면 관두자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평생 하는 일이 되었네요.

경국상회가 잘 될 때는 하루 매출이 얼마였어요?

보통 때도 70~80만 원 벌었고 초파일 같은 날은 옆에 경국사가 있어 매출이 1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했어요.

사장님 가게가 잘 되었을 때 손님은 주로 어떤 분이셨나요?

동네 단골손님도 있지만 근처에 있는 경국사 손님, 북한산에 가는 뜨내기손님들 매출이 많았어요. 가게가 동네 사랑방이었어요.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갔어요.

사장님 옆에 가수 김부자 씨가 살았는데 그분도 가게에 오셨나요?

가끔 들러서 물건만 사갔어요. 살림 봐주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분은 들러서 이야기하다가 가시기도 했어요.

아주 부자가 되셨을 텐데? 많이 모으셨어요?

그런데 도둑을 여러 번 맞았어요. 가게 뒤쪽 산동네, 가게 앞쪽 산동네 아이들이 부모들 돈 벌러 나가면 떼 지어 놀다가 말질을 하고 밤에 문 따고 들어와 토큰, 돈, 담배 등을 털어갔어요.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서 돈을 훔쳐 가는 일이 없어졌어요.

은에 두시지 그러셨어요?

은행 갈 시간도 없고 물건을 떼야 하니까 가게가 더 안전할 것 같아 두었더니 도둑맞았어요. 평생 물건을 뗄 때 외상을 한 적이 없어요.

매출감소

2008년에 맞은편 힐스테이트가 들어섰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매출은 더 오르셨나요?

형편없이 줄었어요. 아파트 사람들은 큰 데서 배달해서 사니까요. 산동네 때는 한 집에 세 가구도 사니까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시대가 장사가 끝났어요.

사장님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원인이 뭘까요?

3년 전이랑 비교할 때 아는 단골이 30명가량 돌아가셨어요. 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산 올라가려고 청수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전에 잘 될 때는 하드도 이틀에 한 번꼴로 불러 채워 넣었었는데….

맞수 은영상회와의 선의의 경쟁

사장님 옆 가게 은영상회와는 협력하셨어요? 경쟁하셨어요?

물건 가격대는 비슷하게 갔어요. 경쟁 상대지만 다른 걸 경쟁한 게 아니라 단골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시간 경쟁을 했어요. 서로 일찍 열고 늦게 닫는 경쟁... 내 물건이 없으면 저쪽으로 가보세요라고 했어요. 아침 6시 40분경에 열어서 밤 12시, 1시까지도 열어 놓았어요.

은영상회는 파주로 이사 갔던데 재개발 들어가면 사장님은 보상을 많이 받으시나요?

저는 세입자라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해요. 주인들이 700~1,000만 원 받는다는데 저는 약간의 보상을 받고 나가요.

추억으로만 남을 경국상회

사라져 가는 정릉 4동 마지막 산동네를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 말고 다른 분들 취재도 많이 하셨나요?

인터뷰는 많이 하지 않았고 사진작가라면서 여러 사람이 찍어 가셨는데 책이 나오면 준다더니 사진도 책도 주신 분들은 없었어요.

30대에 장사를 시작하셔서 청춘을 다 바치셨는데 이제 그만두신다니 너무나 서운하시겠어요?

매출이 줄어들고 장사가 안되면서 이제 접어야 할 때가 왔구나 생각해 와서 그냥 그래요. 지금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인터뷰를 마치면서

남편분이 궁금해서 인터뷰를 마치고서 어렵게 여쭈었더니 고개를 숙이시며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신다. 가만히 팔을 쓰다듬어 드렸다. 평생을 개미처럼 열심히 살고 한 우물만 판 이런 분들이 복을 받으시길 바란다. 이사 올 때 3학년이었던 아들은 이제 43세가 되었고 장가를 못가 챙기고 계신다고 부끄러워하신다. 인터뷰를 마치고 사장님도 가게 문을 잠그고 집에서 늦은 점심을 챙겨 먹으러 가신다고 하셨다. 그 후 두 번이나 따뜻한 빵을 사들고 찾아갔으나 물건은 남아 있는데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정릉에 사신다고 하니 수소문하여 뵐 수밖에 없을 듯… 어디서 만나든 참 반가울 것 같다.

멋진인생 천변풍경 사장님 김란기 박경희

일시: 2025년 5월 6일 화요일 13:00 - 15:00
2025년 5월 9일 금요일 13:00 - 16:00
장소: 천변풍경(갤러리카페) (성북구 솔샘로18길 6-2)



카페 '천변풍경'

조사지 선정 이유

정릉천을 다니며 천변풍경이라는 이색적인 카페명과 특이한 인테리어에 호기심을 가졌었는데, 사장님이 학교 후배 연희 씨가 잘 아는 분으로 건축가 출신이면서 꾸준히 문화재 보존 운동과 골목 탐사단을 운영하신 이력이 있는 분이라 하여 선정하였다.

인터뷰 및 현장 조사 내용

5월 3일 인터뷰 내용

김란기 선생님은 홍익대 건축과를 졸업하셨고(70년대 학번) IMF 이전에는 건축가로 활동하셨다. 그 이후에는 문화재 보존가, 골목탐사단 단장, 작가, 마을기자, 인문학 사랑방 운영자, 카페 천변풍경 사장을 하며 살아오셨는데 많은 서사가 있는 분이라 세 차례의 인터뷰를 주제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5월 6일 인터뷰 내용

카페 천변풍경을 차리게 된 계기는요?

2016년 1월 경 지인이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정릉을 추천해 가 보았는데 책이 유난히 많아 이사 비용 문제로 망설이던 중 부동산 주인이 평지이면서 가격이 적당한 집이 나왔다고 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거지로 샀고 주변에 원룸 과잉 공급으로 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 비워 두었다가, 2016년 마을잡지 기자가 되어 활동했는데 이때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카페 천변풍경에서는 무엇을 추구하시나요?

내가 처음 추구하는 방향은 인문학 카페입니다. 본 목적은 커피 장사이지만 미술, 문학 등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도 하고 책을 읽고 나누며 같이 공부도 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주제와 개념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김란기 사장님


카페 내부

갤러리카페 천변풍경 건축물의 특징을 설명해 주세요.

새롭고 화려한 것보다는 냄새나는 역사가 덕지덕지 붙은 것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흔적이 나는 건물이 좋습니다. 2019년 7월부터 미장하는 아저씨를 불러 직접 카페를 꾸몄어요. 아저씨는 매끈하게 바르려 하고 나는 거칠고 러프하게 두고 싶어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있다면 과거와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갤러리카페 천변풍경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행히 요즘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것이 용납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도 좋아해 줍니다. 자유로이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공부를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페 안에는 정리하다만 것처럼 책도 아무렇게나 쌓아놓고 부담 없이 읽고 느긋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갤러리카페 천변풍경 인테리어

지인들이 준 소품들과 본인 것이 있고 그림은 지인들 작품, 사진은 직접 찍었습니다. 판매하는 새 책들은 의뢰받은 것입니다.

지나가다 라이브 공연을 하던데 직접 가수를 섭외하시나요?

아마추어 동네 가수가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를 하게 해요. 기타를 치지 않습니다.

천변풍경이라는 카페명은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소설가 박태원의 『천변풍경』에 몰입한 적이 있어요. 박태원은 나랑 똑같이 청계천변을 걸어 다니며 소설을 쓴 사람이죠. 그에게 빠져 일본 근대사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현학(考現學, modernology)을 시도했는데 1920년대 말 문학을 통해 조숙했고 최첨단을 알았던 사람이죠.

5월 9일 인터뷰 내용

골목 답사를 하게 된 계기는요?

2012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골목 답사를 주로 했습니다. 그전엔 문화재 보존 운동을 했는데 이는 문화재를 훼손하여 반사이익을 보려는 자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었어요. 비문화

재라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치를 찾아 마을의 모습을 가급적 오래 유지하는 것에 기여해 보자 하여 골목의 사연과 모습을 답사하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거의 모든 도시의 골목을 다 다녔어요.

골목 답사의 회원모집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페이스북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2012년 7월 피맛길부터 돈화문 앞까지 가는 코스를 올렸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15명이 신청했습니다. 미리 현장을 답사하고 자료집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당시 피맛길 역사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길래 같이 간 사람들과 전시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조선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전시한 것인데 답사했던 내용을 확인하며 참관했습니다.

120회나 되는 골목 답사를 하셨는데요. 인상 깊은 골목 답사 몇 곳을 말해주세요.

인천 답사를 의뢰받아 자료집을 만들고 답사 코스를 정해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답사를 했는데 그 후 전국의 골목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광주, 군산, 전주, 목포, 여수, 순천, 진주, 통영, 철원……. 부산 영도에서는 현인의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영향 받아 같이 내려가서 보존 운동을 했습니다. 대구 북성로에서는 농기구 거리, 향촌동, 이상화 가옥 등 보존 운동의 보람도 많았습니다. 춘천에서는 장미촌, 김유정역, 강촌역이 생각나구요, 철원에서는 노동당사, 반파된 유물들, 전망대, 경원선 간이역 답사도 진행했습니다.

골목 답사, 지금도 하시나요?

의뢰해서 들어오는 골목 답사만 합니다. 지금은 카페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김란기 사장님을 대하면서 대단한 열정과 에너지에 놀랐다. 그는 여전히 활동형의 삶을 영위하여 카페 사장과 더불어 정릉 지역을 발전시키는 환경운동가의 삶을 살고 계시며 모처럼 쉬시는 날에도 의뢰가 오면 문화 탐방도 이끌고 계신다. 왕성하고 열정어린 활동에 감탄스럽고, 그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혈관 건강에 도움 주는 콩나물황태국밥 선종욱

일시: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10:00 - 11:00
장소: 길음시장 내 춘향골 식당(성북구 동소문로 227)

물가가 오르면서 외식 비용도 올랐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외식하는 비용에 부담이 된다. 그리고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고민이다. 거리마다 수많은 식당이 있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일지 걱정도 하지만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싸고 맛나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록자가 길음시장을 다니던 중 작은 식당이지만 가성비 좋고 맛나며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보았다. 길음시장 안, 춘향골 식당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콩나물황태국밥은 정말 맛있었고, 가격도 저렴했다. 무엇보다 식당 주인의 음식에 대한 정성과 손님에 대한 마음을 소개하고 싶었다.

춘향골 식당 대표이신 김윤정 님은 음식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분이다. 특히 건강식에 대해 관심이 많다. 김 대표는 오래전 혈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이후에 혈관에





김윤정 대표

좋은 음식을 공부하게 되었다. 김 대표는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한 진심을 갖고 있다. 영양과 맛, 보기에도 좋게 담아내는 배려로 손님들에게 감동을 준다. 비록 6,000원의 가격이지만 흰밥만 주기에는 어딘지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해남에서 생산된 검정 보리쌀을 직거래로 가져와 밥에 조금씩 얹어준다. 돈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김 대표는 직장을 다니다가 주말을 이용해 노점을 한 적이 있었다. 본인이 직접 만들어 파는 음식들이 의외로 잘 된 적도 있었고, 음식을 더 만들어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적도 있었다. 꽤 비싼 월세를 내면서 노점을 하고 또 현재의 자리에서 10년가량을 버텼다. 한때는 점포의 권리문제로 법정 싸움에 휘말린 적도 있었으나 마무리를 잘하고 현재의 자리에 권리금 없이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 손님 10명 중 두세 명은 단골이다. 단골들이 맛나게 먹고, 격려하는 말을 듣다 보니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

김 대표가 꾸준히 음식의 청결과 저렴한 가격을 고집하다 보니 단골손님이 많이 생겼다. 가까운 영어서적 서점의 주인이 음식을 맛보고 칭찬하면서 식당을 자기 서점 앞에 소개해 준다. SNS에 올려주고,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음식점을 많이 찾아온다. 영어서점 주인이 외국인을 위한 메뉴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식당 운영이 힘들지만, 손님들 덕에 점점 알려지고 식당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의 자리로 다시 들어올 때는 남편이 직접 식당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었다. 편백나무로 벽을 꾸미고 선반을 만들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놓았다. 기술자를 불러서 하면 경비가 많이 들 텐데 본인들이 직접 작업을 하면서 깨끗하게 꾸밀 수 있었다. 원래는 손님들이 외

부 테이블에서 식사도 가능했는데, 냉난방이 되는 내부에서 식사하시도록 외부 판넬 작업을 했다. 시장이 곧 재개발될 텐데 쓸데없는 일을 벌인다고 타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손님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다면 단 2년을 하더라도 아쉬움과 후회가 없이 하자는 심정으로 내외부 공사를 하였다.

춘향골 식당의 대표 메뉴인 콩나물황태국밥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메뉴를 개발하면서 계절 밥상 위주로 구성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전라도 음식 개념으로 특히 남원 스타일을 생각하였다. 서울에서는 콩나물황태국밥에 계란을 넣는데, 김 대표는 계란을 넣지 않고 끓여준다. 여름철에 콩나물황태국밥을 끓이는 일이 힘들어서 콩국수나 우뭇가사리만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콩나물황태국밥을 드시려고 오는 어르신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보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더운 여름철에도 콩나물황태국밥을 요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음식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음식은 값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저렴한 가격의 음식이지만 음식에 씨앗 하나, 보리쌀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제공한다. 반찬을 제공할 때도 야채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제공하려 한다. 음식을 조리하기 이전에 전처리 과정에서 정성을 다해야 깨끗하고 영양가 있으며 맛난 음식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준비와 조리를 철저하게 한다. 이런 김 대표의 마음을 알아주는지 처음 온 손님 세 명이 팁을 주고 간 적도 있다.

춘향골 식당 안쪽 선반에 '춘향골 맛집의 고집'이 적힌 작은 액자가 있다. 잔반 포함 음식 재사용 절대 금지, 전처리 조리과정 식자재 관리 등 건강 밥상을 위한 노력, 협소한 공간이지만 보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있다. 한번은 김 대표의 여동생이 본인에게 음식점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적이 있었다.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동생의 질문을 듣고 정리해서 액자를 만들었다. 김 대표의 생각을 말로 하면 길어질 텐데 액자에 적힌 내용이 있어서 손님들을 향한 김 대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김 대표의 음식은 비록 국밥에 깍두기 하나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손님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당연하게 여기는 손님들이 있어서 속상한 적도 있지만, 김 대표의 마음을 알아주는 손님들 덕에 힘을 낸다. 배달 앱이나 택배 등으로 식당을 더 키울 수 있지만 김 대표는 오롯이 가게 안으로 식사하러 온 사람에게 집중하려 한다. 손님 중에는 더러 출입구 앞에 전시된 김이나 현미 누룽지를 구매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정성이 통했는지 외국인들이



춘향골 식당

맛집으로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올해 초부터는 외국인 손님들이 꽤 많이 찾아온다.

김 대표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손가락 관절에 변형이 왔을 정도였다. 그래서 가능한 일을 조금 줄이려 하지만 손님들에게만은 최선을 다해 음식을 제공한다. 김 대표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된다면 글을 쓰고 싶다. 인생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쓰는 것을 좋아한다. 손님으로 온 작가가 개인 밴드를 만들어서 그날의 이야기와 생각을 글로 쓰고 사진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김 대표도 실행하고 있다. 바쁘고 피곤해서 못하는 날도 있지만 가능하면 꾸준히 글을 써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려 한다.

길음시장은 오래된 전통시장이다. 상인들이 노력하여 나름대로 전통시장 현대화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대형마트에 비해서는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이용에도 불편하다. 그러나 전통시장에는 시장으로서의 정서가 있다. 작지만 맛난 식당, 옷가지와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노점상, 반찬가게와 생선가게, 먹거리 포장마차 등의 정서가 시민들에게 친근함을 준다. 춘향골 식당도 전통시장의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앞으로 길음시장이 현대화라는 명분으로 재개발되면 친근한 점포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찾아올 정도의 정서가 있는 맛집이라면 현대화된 전통시장 환경에서도 옛 정취를 누리게 하는 점포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는 정책적 전략과 점포주들의 전통 고수의 고집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적십자사 성북봉사나눔터의 활동 선종욱

일시: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10:00 - 11:00
장소: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북봉사나눔터(성북구 삼양로 20)



성북봉사나눔터와 옛 소방서 건물 망루

길음역 8번 출구에서 삼양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약 10m 지점에 낡지만 독특한 형태의 건물 하나가 있다. 건물의 왼쪽에는 전망대처럼 보이는 탑이 하나 있고, 정면에는 대한적십자사 성북봉사나눔터라는 간판이 있다. 사실 조사자는 다른 곳에서 대한적십자사 간판을 단 건물을 본 적이 있지만 봉사나눔터라는 간판을 본 적은 없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여러 활동에 대해 각종 매체에서 소개한 적은 있으나 성북구와 성북문화원 등의 공식적인 홈페이지에는 소개된 적이 없어, 아카이브에 공식적으로 소개하고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현장을 방문한 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북지구협의회 김기철 회장과 성인숙 부회장을 인터뷰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성북지구봉사회는 1997년 6월 1일에 결성되었다. 성북지구봉사회는 단위 동별로 봉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성북구 20개 동 중 활동하지 못하는 곳을 제외하고 17개 동 봉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성북구 봉사회의 회원 수는 약 270명 정도다. 과거에는 하월곡동에 나눔터가 있었는데, 2011년도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현 위치의 건물은 과거에 소방서 건물이었으며, 망루가 있는 이유도 화재를 탐지하기 위함이었다. 소방서 건물이 길음119안전센터로 이사하면서 빈 건물을 성북구에서 적십자사의 봉사나눔터로 활용하도록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다. 해마다 임대를 갱신하며 사무실, 주방과 창고 등의 인프라를 확보하여 성북지구협의회가 이곳을 근거지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적십자사 성북지구봉사회의 활동은 재난 구호 활동, 희망 풍차 활동, 지역사회 봉사 활동, 취약계층 보호 활동 이렇게 네 가지이다. 재난 구호 활동에는 소방서, 성북구청과 협업해서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고 수해 예방 플로깅 행사도 한다. 지역사회 봉사 활동으로는 헌혈 캠페인과 빵 제작이나 떡을 만들어 나누는 시민 참여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나눔터 주방에는 빵을 구울 수 있는 오븐이 있고, 특히 떡을 만드는 기계는 대한민국에 두 대밖에 없는 만능 기계라고 한다.

성북봉사나눔터에는 여러 특색 있는 사업이 있다. 빵, 떡, 밑반찬, 김장 나눔 등 여럿이 있지만 그중에서 '희망풍차'라는 특별한 사업이 있다. 적십자사 문양을 풍차로 해석하고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관내 취약 계층 결연 지원 사업이다. 봉사회원이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 가정 등 약 230가구와 결연하여 물품과 정서를 지원한다. 과거에는 주 2회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현재는 매주 화요일마다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성북지구협의회 회원들이 한 달에 몇 차례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고 있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여 '용기 나눔'이라는 사업으로 한 달에 두 번 이상 물품을 전달하며 인사를 드린다. 각 동별로 봉사회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지고 찾아가서 전달해 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건강 상태도 살핀다. 한편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시 정부 지원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대한적십자사 성북지구협의회는 2025년도 여름 '플로깅' 사업을 실시하였다. '플로깅'이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운동이다. 기후 변화와 환경을 고민하다가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회원들이 수해 취약지역을 찾아 빗물받이를 걷어내거나 담배꽁초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했다.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청소도구와 쓰레기봉투를 지원받기도 한다.

혹서기에는 가정마다 유리에 썬팅을 해주기도 하였다.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봉사단원들이 직접 단열 필름을 잘라 유리에 부착하였다. 그리고 천연해충기피제를 디퓨저 형태로 어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나누기도 하였다.



성북지구협의회 성인숙 부회장(여)과 김기철 회장(남)

과거에는 보조금으로 실버카를 지원한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김장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다. 매년 겨울 봉사회원들이 김장을 직접 버무려 취약계층 한 가구에 10㎏씩 전달한다. 성북지구협의회는 성북구와 연합하여 약 1,500만원 정도의 재원을 들여 10월에서 11월경 겨울 김장을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6월경에는 각 동 회장님들이 얼갈이배추를 사서 다듬고 회원들이 여름 김치를 만들어 전달한다.

5월 8일은 적십자사를 창시한 앙리 뒤낭의 생일이자 세계 적십자의 날이고 동시에 어버이날이다. 이를 기념하여 어르신들, 취약계층을 위한 효 잔치를 연다. 성북구청 앞 포레스트원 웨딩홀 대표가 후원회 재무이기도 하여 효 잔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1인당 5만원 가량의 뷔페식을 준비하여 80가구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 잔치를 연다. 코로나로 잠시 뜸했지만 다시 개최하여 3년째 지속하고 있다.

성북지구협의회원들은 봉사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갖고 있다. 어르신들을 방문했을 때 반가워 해주시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는 봉사하는 힘이 더 생긴다. 혼자 지내다가 고독사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가구는 문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봉사회원들이 방문했을 때 문을 열어주고 물품을 받아주며 때로는 안아주기까지 한다. 회원들은 이럴 때마다 매우 보람을 느끼며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사별 후 혼자 되신 분들은 외롭기 때문에 봉사회원들이 찾아뵈면 낯이 익어 길에서도 반가워한다. 외출을 잘 못하거나 혼자 사는 남자 어르신들은 음식을 조리하기 어려워해 밑반찬이 특히 효과적이며 받을 때마다 감사해한다. 봉사회원들은 감사의 말을 들으며 더 감사하고, 봉사를 지속하기 위해 건강을 관리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봉사하는 분들이 수혜자들보다 더 즐겁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봉사회원들은 성북구 주민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다. 적십자회원들이 모두 무보수 자원봉사를 하는데 마치 돈을 받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여 민원을 해결해 달라거나 행정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봉사회원들은 권한이 없으므로 역할에 맞는 말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주민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한다면 더 힘을 낼 것이다. 그리고 봉사에는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적십자회비 납부, 물품이나 현금 후원, 그리고 함께 봉사할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현재 봉사나눔터가 있는 장소가 재개발지역으로 정해졌다. 조만간 재개발이 진행되면 봉사나눔터가 사라지고 성북지구협의회원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물품을 포장할 공간이 사라진다. 각 기관에서는 주민센터 공간 공유를 제안하지만, 주민센터와 시간이 겹치면 준비하기 어렵고 주방 기구 등을 설치할 공간도 부족하다.

성북지구협의회원들은 재개발 이후라도 봉사가 지속되기를 원한다. 행정에서 물품 창고, 조리용 주방, 사무공간 등 봉사나눔터 인프라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봉사나눔터가 과거 소방서 건물로서 비록 낡았지만 성북구와 서울시의 역사를 가진 건축물이므로 망루를 보존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개발을 하되 망루를 보존하고 봉사나눔터가 확보된다면, 수익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람을 돕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화 영어 서점 선종욱

일시: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12:40 - 13:40
장소: 세화 영어 서점(성북구 삼양로 15-2)



길음역 7번 출구에서 삼양로 오르막길을 따라 약 10m 정도 올라가면 아주 작은 서점이 보인다. 한글로 된 책은 별로 없고 모두 영어 서적만 전시한 서점이다.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렵지만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는 학부모들 혹은 서울 북구권에서 영어책을 찾고 싶은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서울 북부권에 영어책 관점 서점이 많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성북구 청년창업거리에 위치한 서점이므로 성북 아카이브에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 세화 영어 서점(Sehwa's English Bookstore)을 찾게 되었다.

세화 영어 서점이 문을 연 지는 약 5년 정도 되었다. 서점의 주인 박세화 님은 어린 시절부터 영문학을 좋아했고,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다. 영어를 좋아하는 관계로 영어 서적 서점을 열어 운영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시기가 잘 맞아서 생각보다 일찍 서점

을 열게 되었다. 박세화 님은 외국의 동네 책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분위기의 책방을 운영하고 싶어서 영어 교재보다는 순수 문학 소설 등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위주로 진열하였다.

영어책을 보러 오는 손님들의 80%는 외국인들이다. 길음역에서 가까우므로 찾아오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외국인들이 서점에 많이 찾아온다. 자연스럽게 세화 영어 서점은 외국인들끼리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영어 서적을 찾는 일이 대형서점 외에는 별로 없는데 세화 영어 서점은 소규모 서점인 관계로 희소성을 갖고 있다. 세화 영어 서점은 외국인들이 검색을 하여 찾아오기도 하고, 독서모임이나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인들 등 몇 개의 소모임이 구성되는 공간이다. 한글 이름은 세화 영어 서점이지만 인터넷 공간에는 'English Bookstore'이므로 외국인들이 쉽게 검색해서 찾아올 수 있다.

서점에서는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함께 독서모임을 갖는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독서모임을 갖는데 정해진 책을 읽고 와서 토론하는 모임, 단편 소설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모임 등이 있다. 세화 영어 서점은 영어를 배우고 싶은 한국인들에게 영어 학습,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서점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랑방 느낌을 갖게 하는 분위기로 꾸몄다. 서점 한쪽에 모임을 안내하는 광고물을 붙여서 서점을 찾는 이들에게 독서모임을 안내한다.

서점에는 철학, 사회학 등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책도 있지만 소설이 가장 많다. 어린이 동화책도 비치하고 중고책을 판매하기도 한다. 영어로 된 중고책의 경우에는 매입하기도



서점 주인 박세화 님



모임을 알리는 광고물

하는데 현금을 주기보다는 포인트로 주고, 나중에 중고책을 살 때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새 책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영국이나 미국에서 직수입하여 판매한다. 어린이 그림책은 모두 새 책이다. 새 책의 경우는 주인의 취향에 딱 맞는 책으로 수입하여 전시한다.

중고책의 경우는 한국에 살던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날 때 기증하기도 하고,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는 분들이 원서를 기부하기도 한다. 요즘은 대학도서관들도 책이 넘쳐서 중고책을 기부받을 수 없는 환경이므로 동네서점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다. 세화 영어 서점은 영어로 된 중고책을 기부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중고책의 경우는 주인이 직접 읽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리뷰도 살펴보면서 다양성을 갖추려 한다.

서점 주인 박세화 님은 다른 분들에게 자신이 읽고 감동받은 책을 소개한다.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활동한 미국 여성 작가 카슨 맥컬러스(Carson McCullers)의 작품이다. 그래서 독서모임 이름도 작가의 이름을 따왔다. 소개하는 작가의 작품에는 외딴 시골에서 사는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인간의 외로움 등 인간 내면을 탐구하는 작품이 많다. 2024년에는 작가의 작품만 다섯 권을 갖고 연달아 독서 모임을 열기도 했다. 박세화 님은 쉬운 책이 아니라서 술술 읽히지는 않지만 영어 원서에 도전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



중고 서적이 비치된 공간

한다. 작가는 문학상을 받은 적 없지만 가장 유명한 작품은 『론리 헌터(The Heart Is a Lonely Hunter)』(1940)로,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박세화 님은 길음동과 성북구 주민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 세화 영어 서점은 시내에 있는 서점도 아니고, 한국어 책이 많지 않아서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는 않지만, 영문학에 약간의 관심이라도 있고, 영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거리감이나 장벽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들어와서 책을 살펴보기를 권한다. 한글을 병기한 책도 몇 권 있고, 공간이 좁아서 바닥에 늘어놓기도 했지만, 누구나 영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입하기를 바란다.

기록자의 생각으로 이 서점은 특별한 공간이다. 영어 서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므로 다양한 영어 서적을 살펴볼 수 있는 편한 공간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외국인들로부터 영어를 학습할 수도 있고 동시에 외국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서점 안에서 LP판을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손때 묻은 책, 오래된 종이에서 맡을 수 있는 책 냄새 등 책을 좋아하는 분들,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을 하는 공간이라고 기록자는 생각한다. 책을 좋아하고, 영어를 좋아하고 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록자는 희망한다.

성신여대 인근 카페 사장님 윤서영

일시: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16:30 - 18:00
장소: 이디야커피 성신여대점(성북구 보문로34길 100)



이디야커피 성신여대점

조사지 선정 이유

성신여대 주변 상권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로데오거리는 상권의 역동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간이다. 유동 인구가 많고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어 상권 변화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에 따라 본 활동 보고서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상인분들이 성북구, 특히 성신여대 인근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운영 시기를 포함하여, 장사를 하며 겪는 어려움과 보람, 기억에 남는 손님과 에피소드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또한 주변 환경과 상권 변화에 대한 인식, 쉬는 날의 생활 방식,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 바라보는 성북구의 장점과 개선에 관한 질문을 통해 단순한 소비자의 시선이 아닌, 판매자이자 주민의 시각에서 성북구라는 지역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본 조사지(성신여대 로데오거리)를 선정하였다.







성신여대 정문 인근



이디야커피 성신여대점 내부 카운터

가게는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그리고 성북구에 오픈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가게 운영은 1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아는 언니분이 카페를 양도해 주었는데 양도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햇수를 세어보면 이디야커피 성신여대점은 무려 2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디야커피 성신여대점은 7호점으로, 이디야 사업 초창기부터 운영되고 있던 카페입니다.

성북구에 가게를 운영하면서 힘든 점과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경기가 옛날하고 달라져서 점점 성신여대 인근 상권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로데오거리의 소비자 특징으로 중고등학생이 많아요. 소비 단위는 작은데, 임대료와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장사하는데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즘 로데오거리에는 인형 뽑기, 오락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이디야커피 성신여대점 내부 자리

이 동네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신여대생들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학교 바로 앞이라서 진상 손님들이 없고, 무엇보다 여대생들이 다 착해서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이 인근 빌라들은 성북구 주민보다 자취생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밤에 고성방가 지르는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차분해서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성신여대에 교환학생으로 온 프랑스 친구도 성신여대 인근이 서울에서 제일 좋다면서 살기에 정말 편하고 안전한 동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주변인들에게 성신여대 인근에서 이디야 장사하고 있다고 말하면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는 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석관동 도당제 영자 강호남 윤서영

일시: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14:00 - 16:30
장소: 석관동 도당(성북구 화랑로32가길 17)
에이미스커피 한예종점(성북구 화랑로32가길 13 1층)



석관동 도당

석관동 도당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공동체 제의로, 현재까지 온전히 이어져 오는 지역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 이러한 전통을 정확히 이해하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도당제의 의미, 내부 구조, 제의 절차, 전승 과정의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도당 뒤편 창고에서 보관되어 온 귀중한 자료들과 제물로 사용된 소가 갖는 의미, 벼 이삭 형상을 한 신체(마을신)의 상징성 등은 도당제의 역사적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번 인터뷰는 석관동 주민뿐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개방되며 변화하고 있는 도당제의 현재 모습을 조명하고, 좋은 풍속과 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강호남 선생님

진주 강씨이며 올해로 80세다. 고향은 석관동이고, 평생을 석관동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석관동은 옛날에 주로 벼농사를 했었고, 과실수나 밭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물을 길어오는 것은 주로 중랑천에서 끌어서 사용했다.

도당제는 아버지가 쭉 해오다가, 강호남 선생님이 2019년부터 도당제를 진행하였고, 2024년에는 건강상의 문제와 재정 문제로 인해 도당제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석관동 도당제와 도당

도당제는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고 마을의 수호신께 풍농을 기원하는 마을 제의이다. 매년 음력 10월 1일마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 석관동 도당에 모여 마을 제의를 지낸다. 도당은 석관파출소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민속신앙의 종교시설이다. 원래는 천장산의 치마바위 자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조선 경종(景宗)의 의릉이 인근에 위치하게 되어서 옮겨야만 했다. 도당굿은 따로 하지 않으며, 유교식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제를 지낸다.

도당 내부 구조

도당 내부에 들어가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다. 정면 벽면에는 병풍이 놓여 있으며 그 앞 콘크리트 바닥에는 볍씨가 들은 항아리 2개가 묻혀 있었다. 그리고 항아리 위를 볏짚으로 만든 주저리 두 개로 각기 덮어 두었다. 앞에는 커다란 상이 있었다.



주저리와 항아리

옛날에는 야산에다가 항아리를 묻었기 때문에 눈과 비를 막기 위해 주저리를 항아리 위에 덮어놓은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도당 안에 있어서 필요가 없지만, 전통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주저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농사를 짓는 지역임을 상징하는 요소이자, 주신이 여신(도당 할머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항아리가 2개인 이유는 예전에는 항아리 하나에 씨앗을 넣고, 다른 하나에는 술을 담갔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두 항아리 모두 볍씨를 넣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병풍은 모란꽃이 그려진 것으로, 약 100년 정도로 오래되어 역사적 가치가 있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도당 창고

도당 뒤편에는 작은 창고가 있다. 창고에는 아주 오래된 멍석과, 일본어로 쓰여 있는 텐트, 그리고 도마를 보관하고 있었다. 텐트는 일제강점기 때에도 도당제를 지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귀한 자료이며, 도마는 이곳저곳이 파여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도축한 소를 도마 위에서 부위별로 잘랐다고 한다. 지금은 낡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텐트

도당 희생, 소

과거 석관동 도당제에서는 제물로 소를 한 마리를 잡아서 바쳤다고 한다. 특히 1980년까지는 도당 안에 소를 잡는 기구가 있었다. 도당 뒤편에 있는 샘터에서 소를 씻어서 바쳤고, 도당제를 마친 후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소가 매우 비싸고 귀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도당제가 얼마나 풍요롭고 중요했는지를 보여준다.

신체(마을신)가 벼 이삭인 이유

옛날에는 볍씨를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 신격화하였다. 그래서 신체를 벼 이삭으로 하였다.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볍씨는 경기도 양주에서 사 온다. 옛날에는 석관동 일대가 논이어

서 동네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동네가 다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타 지역에서 사 온다고 한다. 1년에 한 번씩 볍씨를 교체한다. 잘 건조된 상태로 항아리에 넣어야 곰팡이가 피지 않고 1년 동안 잘 보존될 수 있다고 한다. 주로 도당제 전날 볍씨를 새 것으로 교체한다.

도당제 진행

도당제 진행 순서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대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주었다. 축문을 읽으면, 제관들이 한 사람씩 절을 올린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절을 올린다. 모든 사람들이 절을 다 올리면 축문을 태운다. 축문의 내용은 마을 사람들이 협동 및 화합해서 잘 지내도록, 건강하도록 해주며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염원하는 글이 적혀 있다. 내용은 옛 형식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연도 및 날짜만 새로 바뀐다고 한다.

도당제를 하며 겪는 어려움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성북구청에서 주고 있지만 많이 모자랄 뿐더러, 제약이 많다. 오로지 소모품에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송비, 비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전등, 상 등의 물품은 일절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인건비 측면에서도 도당제를 진행하기 3일 전부터 대여섯 명 되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밥이라도 먹여 보내야 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 한다.

또한 아파트 건설사에서 현재 도당을 지어줬는데, 어떤 영문인지 전기와 수도를 연결해 놓지 않아서 매년 도당제를 할 때면 석관 파출소에서 전기와 물을 길어다 쓰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도당제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

석관동 도당제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본다. 도당제를 통해 선조들의 정신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니 끝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석관동 토박이 사람들만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니 외부 사람도 들어와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좋은 풍속과 전통이 후대에까지 전해지면 좋겠다.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8.
이란 출신 해금 연주자 한예종 학생 야사만 이수연

일시: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13:00 - 13:20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13:00 - 14:00
장소: 석관초등학교(성북구 돌곶이로 22길 21)
이리카페(성북구 화랑로32길 111 1층)

피아노에서 해금으로, 유튜브 독학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그녀와의 첫 만남은 9월 27일 석관초등학교에서 열린 〈다다페스타〉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외국인 유학생 부스에서 이란에서 온 야사만을 만났다. 늘 새로운 인물을 탐색하는 주민기록단원에게 이란인 해금 연주자와의 만남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북적이는 페스타 장소에서 짧게 인사를 나누고, 추석 연휴 뒤 동네 카페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이어갔다.

자스민 꽃을 뜻하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야사만 모스타파비(Yasaman Mostafavi). 이란에서 온 이 청년은 현재(2025년 기준) 한예종 국악과 2학년 학생이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일하는 당당한 노동자이다. 피아노 전공자에서 해금 연주자로 변신하여 한국에서 펼치는 그녀의 도전 스토리가 흥미로웠다.

해금 소리와 한국드라마에 반해 한국 유학, 한예종에서의 학업과 도전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란에서 온 야사만 모스타파비입니다. 야사만은 자스민 꽃을 뜻하는 페르시아어예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 한국에 온 지 2년 됐어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한예종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해금을 전공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특이한 악기를 접하게 되셨어요?

이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란 한국 문화원에서 한국 전통음악 공연을 보고 해금 소리에 빠졌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으로 배우다가 한예종 입시 시험을 보고 오게 됐습니다.

독학으로 배우시다니 놀랍네요. 악기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문화원에서 빌려서 연습했는데, 그 후에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도와주셔서 해금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해금의 어떤 매력에 빠지셨나요?

이란에도 '카만체'라는 비슷한 전통 악기가 있어서 친숙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극 드라마를 많이 봐서 국악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는데, 해금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어를 아주 잘하시네요. 언제 공부하셨어요?

잘하지는 못해요. (웃음) 이란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3년 동안 배웠고, 한국에 와서도 6개월 동안 더 배웠어요.

외국인으로 낯선 이국땅에서 대학 생활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힘든가요?

알바, 학교, 연습을 병행하느라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동기들과 친해지기도 힘들고요. 우리 학과 학생들은 중·고등학교부터 같이 올라온 경우가 많아 그들끼리 어울리거든요. 다행히 작년부터 '다국적 풍물패'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좋은 한국 친구들을 만났어요.



가온누리 부스 앞의 야사만


이란 전통악기 카만체

교수님들은 외국인 학생들을 배려하시는 편인가요?

일부 젊은 선생님들이나 악기 선생님들은 정말 배려를 잘해주세요. 하지만 연세가 많은 선생님들은 한국어가 원어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지 않는 경향도 있어 수업이 어렵기도 해요.

해금 외에 다른 악기도 배우세요?

네. 작년부터 다국적 풍물패에서 장구를 배우고 있어요. DMZ 공연이나 서울의 다양한 행사에서도 공연했어요.

편의점 일을 시작하다, 알바생의 노동의 현장

아르바이트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작년 4월쯤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알바천국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찾았고, 처음엔 주 1~2회였는데 지금은 주 3회로 늘어났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다행히 지금 편의점에서는 받아주셨고, 다른 외국인 스태프들도 있어서 괜찮았어요.

처음 일할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실수도 많이 하고, 점장님이 예민하신 편이라 초반에는 힘들었어요. 그래도 계속하다 보니 지금은 손님들도 저를 알아보고 말도 걸어주세요.

편의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서 다 하시나요?

네, 혼자 해요. 카운터 계산, 매장 정리, 물건 정리, 택배 등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손님 응대하면서 정리도 해야 해서 왔다 갔다 하며 일해요.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5~6시간 정도, 주 3일 일해요. 주말에는 공연이 있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어서 일하지 않아요.

알바로 버는 돈이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네. 작년에 알바를 시작한 뒤로는 생활이 괜찮아졌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대학 장학금과 알바비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편의점 일이 할 만한가요?

네. 저는 일을 천천히 하는 편이라 빨리빨리 해야 하는 식당보다는 편의점이 저에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요?

전화 통화예요. 문제가 생길 때 사장님과 통화해야 하는데 외국어로 설명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한국말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학교생활과 일을 병행하느라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학기 중에는 정말 힘들어요. 특히 11월 국악과 정기 연주회가 있어서 매일 연습하고 알바도 가야 해서 연습할 시간이 부족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다면요?

원래 피아노 연주자였으니까 피아노와 해금, 두 가지 악기를 모두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국악 예술단 같은 곳에 들어가 연주하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보며 한국에 가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는 야사만. 멀고 먼 이국땅에서 유학생이자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그녀는, 부족한 시간을 쪼개 편의점 일을 병행하며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다. 낯선 땅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겪었을 외로움과 고단함을 짐작하면서도, 자신의 꿈과 노동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야사만의 모습은 무척이나 대견스럽다. 딸아이 또래의 그녀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해금 연주자로서의 성장과 도전을 기대하며 아낌없는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박수빈 이수연

일시: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14:00 - 15:40
장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카페 싱싱주스(성북구 안암로 145)


박수빈 교수의 강의 모습

지난 10월,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에서 열리는 3회 연속 강좌 '성북 근현대 문학'에 참석했다. '성북의 문인을 따라가는 기억 산책'이라는 제목만으로도 문학을 좋아하는 나의 시선을 단번에 붙잡았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박수빈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강의는 매회 2시간이 금방 지나갈 정도로 지루할 틈이 없었다. 박 교수는 성북이 등장하는 작품 원문과 오래된 잡지 자료까지 정성스레 소개했다. 자료를 살피며 느꼈다는 발견의 기쁨, 성북근현대문학관 개관을 준비하며 쏟은 열정까지 자연스레 전해졌다.

1930년대 한 잡지의 짧은 문장으로부터 '문인촌'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성북동에는 한용운, 정지용, 이태준, 박경리, 박완서 등 한국 문학사의 거목들이 모여 살았다. 박 교수는 성북근현대문학관을 기획하며 대표 문인 1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넣을지'보다 '누구를 뺄지'를 고민해야 했다고 한다. 그만큼 성북은 문학적 층위가 깊고도 넓은 공간이다.

이 강의는 단순히 문학을 배우는 시간을 넘어, 우리가 발 디딘 이 지역의 역사를 '문학'이라는 문을 통해 다시 바라보게 하는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박수빈 교수의 눈빛과 힘 있는 해설이 큰 감동을 주었다. 그 매력의 근원을 직접 듣고자, 박 교수를 만나 문학과 연구, 그리고 성북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 돌곶이문화센터와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건가요.

처음에는 성북 문화관광해설사와 한양도성전문해설사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

다. 이후 돌곶이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문학 속 성북'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녁 늦은 시간에 하는 일회성 강의였는데, 정말 감동적일 정도로 너무 잘 참여해주셨습니다. 강의 후 아쉬움이 많이 남아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의 연속 강의로 계획하자는 제안이 와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문학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어릴 때 문학소녀였나요?

네, 정말 문학소녀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밤을 새워서 책을 읽곤 했어요. 그런데 공부할수록 저는 창작보다는 연구에 훨씬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다른 분야는 생각해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국문학 중에서도 현대 소설을 전공하는데, 특히 일제강점기 문학과 그 시기의 교육 교과서 분석을 주로 해왔습니다.

왜 현대가 아닌 일제시대 소설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최근 문학은 작가들이 생존해 있고 경향성을 재단하기 어려워 연구 대상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 가진 작가가 근대 문학의 효시로 불리는 이광수였고, 그가 일제강점기에 있었기에 그 시기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데올로기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친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소속이신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조지훈 선생님이 관여하면서 '민족 문학'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려는 것은 고려대학교가 상징하는 의미와 이 연구원이 내세우려는 가치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북근현대문학관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요?

인천에 위치한 한국근대문학관과 함께 작업했던 분이 성북근현대문학관을 개관하는 과정에서 큐레이션과 원고 작성을 도와줄 연구자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문학관 준비 과정에서 특별히 했던 제안이 있었나요?

성북에 나타나는 공간을 중심으로 작품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동리의 소설 「혈거부족」에 나오는 방공굴의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 입구를 만들고 싶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어요. 그 외에 채석장의 소리를 틀어주거나 문인들의 글귀를 벽에 띄우는 아이디어

를 제안했습니다. 문학관 개관에는 성북문화원의 도움이 컸는데 특히, 오랫동안 축적해온 자료와 '성북마을아카이브', '성북학'이라는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성북학이나 다른 지역학 개념이 체계화되어 있나요?

완전히 자리 잡은 개념은 아니지만, 성북문화원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며 내부 구성원들이 논문과 보고서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는 특별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북에서 꽤 빠르게 자각하고 관과 문화원이 협력해서 구축한, 자랑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연구를 진행 중이신가요?

연구재단 지원으로 5년짜리 개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문학을 통한 여성 지배와 해방의 100년사'입니다. 여성 독본, 여성 잡지 같은 읽기 자료들을 분석해서, 시대별로 여성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활동이 있으신지요?

대중 강의와 해설사 교육을 해왔습니다. 책으로 보는 공부와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았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재구성하는 일, 주민들의 서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비정규 교수로서의 어려움에 대하여도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연구보조원, 강사, 연구원 등을 거쳐오며 장시간 경제 활동을 해 왔지만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회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은 기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의 노동이 제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생산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안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아 퇴근이 따로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강의하실 때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갖는 에너지가 큰 편이라, 강의를 하면서 처음엔 기운이 없다가 말을 하면서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신이 납니다. (웃음)

강의를 잘하셔서 최근에 받으신 상이 있으시다고요?

네, 학생들의 평가를 종합해서 주는 석탑강의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애정을 가지고 3년간

강의했던 수업의 마지막 학기에 받게 되어 보람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정성을 다해 강의했던 것을 알아봐 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북에서 19년을 사시면서 어떠세요?

성북을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애정이 생기지 않지요. 실제로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일을 해야 소속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대학원 시절 영향을 받은 스승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고려대 오탁번 선생님께서 "끝까지 공부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국문과 대학원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신 마음 같았는데, 중간에 부침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힘이 되어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이 가진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완서 작가의 수필집 『한 말씀만 하소서』를 읽으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작가는 '남들이 모두 다 겪는 불행을 왜 나라고 피해 갈 것이냐'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사유의 과정을 문학이 아니면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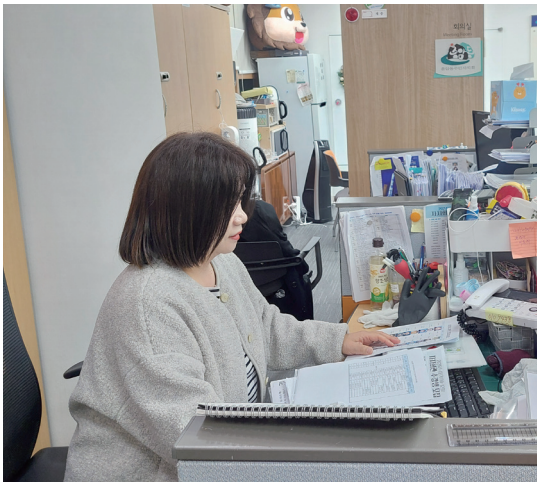
문학의 본령은 오락이지만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미 살아낸 사람의 사유와 감각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문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의 삶을 통해 위로해주고,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박수빈 교수와의 인터뷰는 문학이 지닌 힘과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남들이 모두 다 겪는 불행을 왜 나라고 피해 갈 것이냐'는 박완서 작가의 수필에서 발견한 문학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깊이 와닿았다. 누군가의 고통과 사유의 과정을 따라가며, 우리는 위로받고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박 교수는 대학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성북근현대문학관 개관 작업, 지역 대중 강의를 통해 성북의 문학사와 기억을 생생하게 전해왔다. 지역의 삶과 문학을 잇는 실천은 학자이자 시민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단단하게 보여준다. 인터뷰를 마치고 문학이 어려운 시간을 버티게 해준다는 그의 말처럼, 다시 고전 한 권을 펼쳐 문학의 힘을 내 삶에도 천천히 스며들게 하고 싶다.

성북, 일하는 사람의 초상 10.
종암동 주민자치회 지원관 강윤정 이수연

일시: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16:10 - 17:40
장소: 종암주민센터 2층(성북구 종암로 98-8)


업무를 보고 있는 강윤정 지원관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주민자치회 '동 지원관'이라는 다소 생소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다. 동 지원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주민자치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막상 마주한 강윤정 지원관은 단순히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역 이웃들이 서로 깊게 연결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유대가 형성되도록 돕는, 종암동 주민자치의 보이지 않는 동력이었다. 강 지원관과의 대화는 주민자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생생하고도 울림 있는 이야기로 가득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은 모르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1999년에 주민센터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지만, 실질적인 의결권보다는 동장의 자문 기구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7년에 서울시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추진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위원회가 자문 역할에 그쳤다면,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예산도 집행하고 지역의 현안을 찾아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까지 합니다.

종암동에서는 어떻게 운영했나요?

2017년 처음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만들 때 성북구에서는 종암동과 동선동, 두 곳이 시범동으로 선정됐어요. 종암동은 주민세와 동 단위 계획형 사업 예산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자치회관 운영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정책에 변화가 있었나요?

시행 초기에는 예산 지원이 활발했는데 현재는 주민자치가 약간 위축된 감이 있습니다만, 성북구는 구 예산으로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지원해 주어서 비교적 활발하게 내실을 다져 가는 중입니다.

주민자치회 정원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이 동당 50명인데, 인구에 따라 증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작되는 5기 자치위원의 정원은 56명입니다.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이 자치 학교 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누구나 자치위원이 될 수 있고, 정원 초과 시에는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지원관님은 주민자치회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동생이 통장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오신 동장님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집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동생의 권유로 그 일을 맡게 되면서 마을 일을 시작했고, 주민자치회 간사를 거쳐 지원관까지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2017년에 『너나들이』라는 주민 문집을 처음 만들었어요. 이후 종암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될 때 동장님의 제안으로 자치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지역 조직들만의 문화가 있어 어울리기 어려웠는데, 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간사와 지원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는 일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간사는 자치위원 중 한 명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하루 평균 5시간 근무하는 반면, 지원관은 상근하는 직장인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지원관으로 어떻게 전환되셨나요?

간사 활동 중에 성북구 다른 동들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지원관을 뽑았어요. 보문동과 월곡2동에서 풀타임 지원관으로 일하다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종암동 지원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종암동과 인연이 아주 깊으시네요.

종암동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결혼 후 잠시 타지에 살다 돌아왔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모두 여기 있고, 곳곳에 어린 시절 추억이 많은 제 고향이지요.

주민센터 3층 이육사홀은 어떤 연결점이 있나요?

이육사 선생님이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종암동에 거주하며 「청포도」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셨어요. 선생님에게 가장 편안한 곳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기념해 매년 청포도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성과나 업적을 소개해 주세요.

버스 정류장 이전입니다. 원래 인도가 매우 좁은 곳에 있어 민원이 많았는데, 2018년 자치위원들이 결의하고 주민 연서를 받아 서울시에 제안한 끝에 현재의 넓은 위치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가 정말 좋다'고 체감하게 된 계기였고, 종암동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뭐가 있나요?

『너나들이』 책 발간, 헌혈의 날 행사, 청포도 문화제, 종암살리장(골목 상권 살리기), 골든실버 사업(노인 대상), 벽화 그리기, 어린이 놀이터 운영, 에코랜드(환경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나요?

주로 행사성 사업이 많습니다. CCTV 설치 같은 민원성 사업이나 자산취득 사업은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종암살리장'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골목 상권 살리기 사업입니다. 상권이 예전보다 생기를 잃어 안타까웠는데, 홍보지를 만들어 가게를 소개하고 작은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상인분들이 "막막했는데 같이 고민해 줘서 고맙다", "매상도 늘었다"며 좋아하셨어요.

지원관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각양각색의 사람 사이에서 그들을 존중하며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지역 공동체에 속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이 일을 하며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고등학교 친구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주민자치회 분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처음엔 의견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이해하게 됐어요. 스스로가 대견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지난 청포도 문화제 다음 날 새벽, 위원들과 운동장을 청소하는데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새벽에 청소까지 하고 존경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에 힘듦이 다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노력을 지켜보고, 그로 인해 본인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알 때 가장 보람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인터뷰 막바지, 사무실을 찾은 자치운영분과 김영숙 총무는 "위원들이 고민할 때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며 강 지원관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종암동에서 태어나 종암동과 함께 살아온 그는 이제 주민자치의 현장을 움직이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강 지원관은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돕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 이전, 골목 상권 살리기 등의 성과 뒤에는 주민과 함께한 긴 과정이 존재했다. 강윤정 지원관을 만나며 지역공동체의 회복은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헌신과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묵묵히 활동하고 있을 그분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된다.

다빈치미술학원에서의 25년 세월 이용희

일시: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15:00 - 18:00
장소: 다빈치미술학원(성북구 보국문로 72)

조사지 선정 이유

성북구로 아침마다 출근한 지가 어느덧 30년 세월이고, 2024년에는 성북구 주민이 되었다. 그러다 성북구 내 한 분야(장소)에서 오랜 세월 삶을 살아내신 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고 시리즈로 기록을 남기고 싶어졌다.

첫 번째로 정릉 청수도서관 옆에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친 추교덕 원장님을 만났다. 대중교통을 타고 '성북청수도서관 정릉4동 성당' 정류장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2층 깔끔한 건물에 다빈치미술학원이 보인다. 근거리에 청수도서관, 정릉시장이 있어 먹거리와 볼거리, 배움이 공존하는 풍경이 정겹고 편안했다.


다빈치미술학원 추교덕 원장님

학원 내부는 학부모가 감사의 의미로 보내 준 화분들로 그득했고 학원 문밖으로 나 있는 테라스에서 보이는 북한산의 풍경이 너무나 예뻤다. 함께하시는 선생님들의 휴게 공간도 커피 향이 그윽했고 나한테도 시원한 커피를 대접해 주셨다. 25년 세월, 주위의 변화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추억하는 다빈치미술학원 추교덕 원장님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본다.

다빈치 학원 운영 시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정릉에서 2001년 9월에 다빈치미술로 시작하여 현재(2025년 7월)까지 계속 운영 중입니다.



향기 가득 휴게 공간

성북구에서 다빈치미술학원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내가 성북구 소재 미대에 다니다 보니 데이트를 주로 정릉에서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곳이 좋아지고 친숙해졌습니다. 미술 학원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은 후 자연스럽게 익숙하고 정이 든 지금의 자리에서 아내와 공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동미술을, 저는 입시와 성인 취미 미술 수업을 담당하였고 2008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단독으로 학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직 결정은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계기가 있으셨나요?

입시, 성인 위주의 수업을 하다가 아동기의 미술 교육이 입시, 성인 미술 결과물에 끼치는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또한 아동미술, 미술 치료 등 공부를 계속하고 저 혼자 학원 전체를 맡아 총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긴 세월인데 기억에 남는 학생, 제자가 있으실까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함께한 친구들이 결혼하고 그 자녀들을 또다시 학원에 보내 대를 이어 가르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꿈을 향해 달리는 학생들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미담이나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인근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미술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정서적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무상으로 미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과 세미나,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하며 제가 하는 일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힘들었던 시기에 자기 계발, 수업 연구를 위해 책과 외국 사례들을 찾아보며 코로나 시기가 종식되었을 때를 대비했습니다. 나라에서도 도움을 주어서 힘이 되었고 지원금 대출 받은 것도 지금은 정리한 상태입니다.

학원 주변 풍경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도시화되고 자연경관이 협소해지는 변화를 정릉도 비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정릉천이 흐르고, 청수도서관, 전통시장이 운영되는 등 소소한 사람들의 삶과 풍취가 살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보존하고 개울장처럼 이벤트화하여 구청,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성북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성북구에는 생각보다 많은 예술인이 거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인이 성북구를 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시고, 찾아 주셔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북구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원 내 강의실로 가는 길

안암동사람들 1.
서울 토박이 최성림 임진희

일시: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14:20 - 15:20
장소: 안암동 주민센터 1층(성북구 고려대로 16길)

안암동 41년의 삶 서울 토박이 최성림 씨

그녀 나이 또래 중 순수한 서울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 성북구에는 이촌향도 현상으로 서울로 유입된 지방 이주민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서울 토박이다. 날렵한 체구, 또박또박한 말투로 경우 따지며 하고 싶은 말 하는 칼칼한 성미를 지닌 서울 여자다.


면담자 최성림 씨

서울 충정로 출생

"1953년 서대문구 충정로 2가에서 태어나 일곱 살까지 지내고 평동에서 스물네 살까지 살았지요. 평동 집은 자유당 시절 부통령을 지낸 이기붕 씨 집 바로 옆이었어요. 4·19혁명 당시에 학생들이 그 집에 몰려와 물건을 집 밖으로 내던지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 뒤에 잠실에서 살았는데 그 집은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물려줬어요. 현재 30억쯤 될걸요."

"친가는 황해도 해주 사람들이고 외가는 암행어사 박문수를 배출한 집안이었는데 예절이 무척 엄했어요. 밥상머리 교육을 철저히 받아 상대방에게 냄새 풍긴다고 김치도 못 먹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독립운동 애국장을 받으신 시아버님 김희균 유공자님은 우리 집안의 영광이며 자랑이랍니다."

그녀의 성장기는 격변의 시기였다. 두 번의 화폐개혁과 4·19와 5·16을 겪었다. 저금리 시대였고 자루를 옆구리에 끼고 동회에서 표를 받아 안남미라 부르던 쌀과 밀가루를 받아오기도 했다.



대광아파트 3동

결혼과 함께 안암동에서 41년째

그녀는 서울역에 자리한 주식회사 대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1984년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인 서른둘에 결혼했다. 열다섯 살 연상 고려대학교 중앙 실험실 과장이었던 남편의 직장과 가까운 안암동 대광아파트에 둥지를 틀었다.

"사실 결혼하기 싫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가부장적 환경에서 억압받으며 사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여성에게 차별적인 사회 관습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나 딸을 두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소설가 황순원 집 매입

대광아파트는 15, 17, 20, 22평형이 있었는데 그중 20평 아파트에 입주했다. 지금은 51년 된 낡고 오래된 아파트지만 대부분 연탄보일러를 때던 시절에 중앙난방 맨션아파트여서 주부들이 살아 보고 싶어 하던 곳이었다. 그녀는 대광아파트 3동 332, 333호도 매입하였는



대광아파트

데 소설가 황순원 씨 집이었다. 15평짜리 두 채를 터서 30평으로 살고 있었다.

"지금은 아파트를 임의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당시는 가능했어요."

그 집의 명의는 황순원에서 큰아들 황동규로 나중에는 둘째 아들 황남규로 바뀌었는데 황남규 씨의 따님과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 집을 원상복구 시킨 다음 현재까지 세를 주고 있다. 본인은 9년 전 가까운 삼익아파트로 이사하여 살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 문단의 거장인 황순원 작가와 황동규 시인의 안암동 시절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그 시절 두 부자의 이야기와 그 집에서 탄생한 작품들을 연구하고 조명한다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아

41년 동안 안암동에서 살아온 특별한 이유를 물었더니, "돈이 없어서"라며 거침없이 답한다.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개천이 있고 시내와 가까우며 고즈넉한 환경은 좋은데 변화가 적고 인프라가 없다고 평한다.

"4년 전 남편이 혈액암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지금은 밥 떠먹여 주지 않아도 되고 병수발을 안 해도 되니 이대로가 좋아요.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싶어요."

안분지족의 삶은 지나온 세월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크나큰 지혜인 듯싶었다.

안암동사람들 2.
영암교회 목사 유상진 임진희

일시: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13:00 - 14:00
장소: 영암교회 로뎀카페(성북구 안암로 7길 66)



유상진 목사와 인터뷰 모습

“지역과 호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암교회 유상진 담임목사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는 많지만, 교회 밖 사람들에게까지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소탈하고 겸손해 만나면 훈훈해지는 사람. 안암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 만나보고 싶었다.

조부모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2대 목회자 집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69년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부모님이 8 · 15 해방 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실향민이시고, 아버님도 목회자셨으니 제가 2대 목회자예요.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으로 목회자가 되셨어요. 새마을운동 때 시골에서 직접 벽돌을 찍어 교회를 지으셨고, 부산을 거쳐 마지막은 사북탄광 지역에서 10년을 계셨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회를 하던 세대였죠. 제가 신학대학원 때 가보니 반지하에 난로 하나 두고 계시더군요. 그래도 마지막 목회를 잘 마무리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게 목회를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셨죠. 아버님 세대의 고생에 비하면 저는 부모님이 고생한 열매를 따 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겸손, 또 겸손을 강조하신 부모님

사실 제가 영암교회 담임으로 오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 했어요. 이북 피난민들이 세운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여기 왔거든요. 제가 안암동 영암교회 담임목사 직분을 맡게 됐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축하 대신 겸손하라는 말씀만 거듭하셨지요. 성경의 왕들이 겸손으로 시작해 교만으로 마쳤다며 신신당부하셨던 것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어린 시절 별명은 작은 목사

저는 누님과 둘, 남매예요. 초등학교 때는 '작은 목사'라 불렸는데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이었어요. 숭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1년 동안 진지하게 소명을 고민했었지요. 대학 때 하나님의 존재나 악의 문제 등으로 방황하기도 했지만, 밤새 성경을 읽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부분에서 사명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지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 펼쳐

영암교회는 지역과 밀착해 봉사하는 점이 특별합니다. 행사장소나 카페 음료를 제공하고 주민 초대 문화 프로그램도 다채롭더군요.

안암동은 1인 가구가 전체의 72%로 성북구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고립 은둔 청년들이 많은데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개최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문화 행사에 유명 강사들이 많이 오시던데 선정 기준이 있으신지요?

지역 분들에게 공감을 주려면 인지도가 중요해서 6개월 전부터 섭외하려고 노력해요. 지난번 김미경 강사 토크콘서트 때는 지역 주민이 80% 오셨어요. 영암교회가 71년이 됐는데,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1세대는 돌아가시고 주요 직분자도 성북구에 안 살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이 지역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교회가 지역을 섬겨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사랑의 쌀 나누기'였어요. 제일 비싼 철원 쌀을 드렸는데 복지 담당자가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쌀이 있으니 차라리 라면을 원한다는 거였죠. 이솝우화 「여우와 학의 초대」가 생각났어요.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을 줬지만 상대방에게는 아니었던 거죠. 지역과의 교감이 없었던 겁니다.

선교의 사명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시작

그때 교회가 지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어요. 교회 구성원 대부분이 안암동에 거주하지 않아 지역을 모르니 담임목사라도 알아야겠다 싶어 제 발로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발을 담그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못 한다고 강조해요. 교회끼리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모른 채 선행하는 건 간극만 늘릴 수 있거든요. 선교의 사명은 저 멀리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버겁지는 않으세요?

주민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지요. 사명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웃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해 기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듯이, 교회가 지역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씨앗을 뿌리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 생각합니다.

음악을 좋아했던 학창 시절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신지요.

중·고등학교 때 음악을 제일 좋아해서 합창반 활동을 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 클래식에 입문했죠. 모차르트의 밝음과 베토벤의 깊이 있는 영감을 좋아합니다. 책은 헨리 나우웬의 저서들을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많이 읽었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도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시간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결혼이 늦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이에요. 시간이 나면 밤에 두 아들과 개운산

에 올라가 축구를 하곤 하지요. 조금이라도 더 놀아주려고 노력해요. 취미는 자전거 타기인데 못 탄 지 1년이 넘었네요.

끝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지역에서 봉사하며 행복해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생각합니다. 교세 증가도 원하지만, 교인들이 지역에 들어가 이웃의 벗이 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카페 '로뎀'은 처음부터 주중에 찬송가를 틀지 않도록 했어요. 주민들에게 부담 없는 쉼터를 제공하고자 했죠. 오후 5시에 문을 닫는 것도 지역 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지역의 담장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과 호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안암동이 더욱 빛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장면 하나] 찰나의 감동이 긴 여운으로 남다

그와 나는 지역의 같은 단체에 속했다. 어느 날 회의 장소가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하는 곳이었다. 그는 앞서 도착해 자신의 실내화를 신더니, 신발장에서 꼬질꼬질한 여성용 슬리퍼를 꺼내 이어 도착한 내 발 앞에 가지런히 놓아주었다. 주위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나는 그의 교회 신도도, 특별히 친근한 관계도 아니었다. 그저 나이 든 동네 아낙에게 발현된 자연스러운 행동에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많은 신도의 추앙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의 덤덤한 행동에 감동이 밀려왔다. 그 후 나는 종종 그 장면을 떠올리며 섬김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다.



김미경 콘서트

안암동사람들 3.
봉사하며 걸어온 열정의 시간들,
봉제요정 이부남 임진희

일시: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19:00 - 21:00
장소: 안암동 온 공방(성북구 고려대로 13길 38)

봉제요정 이부남 님



늦은 시각, 오늘도 그녀는 일과를 마치고 자전거를 탄 채 아파트 정문에 들어섰다. 그토록 바쁜 하루를 보낸 만큼 빨리 집에 들어가 고된 몸을 눕히고 싶기도 하련만 어김없이 한밤의 아파트를 한 바퀴 돈다. 쓰레기가 널려 있지 않은지, 불필요하게 켜진 전등은 없는지, 시동이 꺼지지 않은 차량은 없는지 꼼꼼히 살핀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아파트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고 있다. 이런 그녀의 행동을 누군가는 감탄하며 고마워하고 누군가는 유난스럽다고 불편해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무관심했다.

조실부모, 그러나 총명하고 씩씩한 아이

1954년 10월 9일 충북 괴산군 문광면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두 살 때 부모를 따라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부친께서 경동시장 성바오로병원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여 집안 형편이 비교적 여유 있었다. 친척들이 서울에 오면 으레 그녀의 집에 머물렀고 아버지는 그들을 기꺼이 품어주었다. 그러나 여섯 살 되던 해 30대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

나자 그녀의 험난한 인생이 시작되었다.

"하도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셔 기억도 희미하고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들여 6년을 살다 위암으로 돌아가시자 새어머니가 세간살이를 몽땅 들고 도망쳐 버렸다. 그녀 나이 열두 살이었다. 아버지의 병으로 초등 4학년 때 괴산 문광초등학교로 전학 가 서울대 약대 출신 집안 조카가 운영하는 괴산 경기약국집에 기거하며 집안일을 거들었다. 당시는 의약품을 전화로 주문하면 물건을 차부로 보냈다. 그녀는 자전거 짐바리에 의약품 박스 등을 싣고 날렵하게 날랐다. 자전거와의 인연은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이니 족히 60년이 넘었다.

같은 고향 최 씨 총각을 만나 대가족 수발

열아홉에 만난 괴산 소수면 출신 남편과는 5년간 연애하고 스물네 살 되던 해 11월 10일 결혼하였다. 두 달만 데리고 있겠다던 시집살이는 8년 이어졌다. 남편은 아들 일곱에 딸 셋 집안의 여섯째 아들이었다.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주버니와 조카들 등 기본 열다섯 대가족에 방학 때가 되면 열 명의 식구가 늘었다. 한 끼 식사에 쌀을 한 말씩 씻었다. 밥을 풀 때면 허리가 아파 가마솥에 다리 한 짝은 올려놓아야 했다. 시집온 지 삼 일째 되던 날 형님이 넷째 형님 김장 도와주러 가게 되어 혼자 밥을 짓다 곤로에 불이 붙어 입고 있던 옷이 녹아내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매서운 동서 시집살이도 경험했다. 아들 둘은 괴산에서 낳았는데 두 아이 임신했을 때 병원 한번 안 가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항아리 옹패기(옹자배기)에 국수 국물을 날랐다.

"난 정말 별짓 다 했어. 고생 많이 했지, 그때 비하면 지금은 호강이야. 누가 나에게 팔자 좋게 산다고 하면 이거 하루아침에 얻어진 게 아니라고 말해. 우리 내외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 그래서 시아버지가 붙들고 내보내지 않았던 거야. 내가 어머니 대신 품앗이 나가면 사람들이 서로 내 옆에서 일하고 싶어 할 정도였지."

그러다 8년의 시집살이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막을 내리고 시골을 떠나게 되었다. 서울로 온 후에도 그녀는 두 달을 넘기지 않고 시골을 드나들며 어머니를 살폈다. 서울로 돌아올 때면 어머니는 느티나무 아래까지 배웅나와 택시 타고 들어가라고 쌈짓돈을 쥐여 주시고 "어여 가~"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는 100살 되던 해에 주무시듯 돌아가셨다.



나눔을 위한 담요

혜화동 문화센터에서 봉제 기술을 배우다

서울로 온 그녀 가족은 충신동 이대병원 뒤에 자리 잡고 광장동에 있는 전자 회사 모토로라에 다녔다. 틈나는 대로 혜화동에 있는 문화센터에 다니며 봉제 기술을 익혔다. 손재주가 있었고 두뇌 회전이 잘 돼 일을 빠르게 익혀 나갔다. 라사라 양재학원도 갔고 서울패션에서 주최하는 패션쇼도 보고 전태일 열사 동생 전순옥이 운영하는 수다공방 1기, 2기를 거쳤다. 그런데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그녀에게 마음의 병이 왔다.

"충신동 꼭대기에 세 살면서 돈은 있었는데 저 아래 동네 넓은 곳 사려고 집을 안 사고 있었어.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무섭게 오르는 거야. 마음이 너무 허무하고 분해.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심장병이 생겼어, 울화병이 난 거야. 의사 선생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물어보더니 마음을 비우라고 해."

그녀를 지탱하게 해준 것은 두 아들이었다. 엄마 아버지의 좋은 점만 닮았다고 칭찬받는 아이들은 인물이 좋고 똑똑했다. 효제초등학교에서 반장을 했고 졸업 때 송사를 하였다. 네 식구가 눕기도 빠듯한 살림살이였지만 냉장고를 들여놓고 아이들이 먹을 과일을 채워 넣었다.

"아이들을 왕자처럼 키웠지. 아무리 바빠도 먹거리에 신경 쓰고 소풍 갈 때면 자정까지 일하고서도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나 음식을 이것저것 해서 보냈어. 큰아들은 전기과 졸업하고 작은아들은 뉴질랜드 교환학생으로 다녀와 지금은 IT 계통에서 일하고 있어."

그녀는 충신동 세 살던 집의 옥상에서 주인과 함께 하청 일을 시작하였다. 꼭대기라 오토바이도 안 올라가 무거운 천을 머리에 이고 오르내려야 했다. 나중에 창신동에 공장을 얻어

독립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꽤 벌었지만, 작년부터 일이 팍 줄더니 올해는 더 없다고 한다. 충신동에서 창신동으로 이사해 7년을 살다 2005년 '꿀통에 꿀이 잔뜩 든 꿈'을 꾸고 안암동 래미안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나누는 삶에 기쁨을 느끼다

창신동 살 때 미싱하는 사람 중 마음이 안쓰러운 경우를 보면 아기 담요를 만들어 주고 내복도 사주곤 했다. 그 시절에는 부부가 칼부림하며 살벌하게 싸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마누라들이 밤중에 그녀의 집으로 찾아오는데 애들을 아빠 방으로 보내고 그 방에 재웠다. 동네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 무조건 들어가 뜯어말렸다. 오지랖 넓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코로나 대란 때 마스크를 사러 약국 앞에 길게 줄 서 있다 차례가 오면 물건이 떨어져 버려 너무 약이 올랐다. 그래서 수영복 원단으로 재단을 해 100장, 200장씩 만들어 주민센터에 가져다주었다. 또 담요를 만들어 써보니 좋아 100장, 200장씩 주민센터에 전달하였다. 처음에는 보문동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폐지 줍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누어 주었으나 한계가 있었다. 주민센터에 맡겨야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겠다 싶어 주민센터로 보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숱한 사연을 가진 딱한 사람들을 만난다. 인정 많은 그녀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소고기 몇 kg씩 사서 육개장 끓여 혼자 사는 분들 가져다주고 닭죽도 전달한다.

"나는 안 먹어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길거리를 가다가도 어질러져 있으면 자전거에서 내려 정리해 놓고 가던 길 가, 그냥 마음이 그런 것이지. 자전거포 아저씨가 항상 무엇인가를 싣고 나르는 내 자전거를 용달차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그녀는 힘이 닿는 데까지 공장을 운영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만들고 기부한다. 팔 년 전 눈이 많이 내린 무척 추운 날 보문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눈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 무르팍 일곱 바늘 꿰매고 어깨가 나가는 사고를 겪고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했어도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2025 성북구 유공 구민 표창을 받았다.

그녀는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 열심히 살아왔고 자식들 바르게 커 주었으니 고마울 따름이다. 그녀가 극성스럽고 강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반문해보자. 당신은 그녀처럼 열심히 살아 보았는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해 보았는지, 그녀의 강렬한 행동 뒤에 숨겨진 정의롭고 순수한 모습을 보았는지.

사회운동가 고 배정학 8주기 추모식 장보혜

일시: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13:00 - 16:00
장소: 장수마을 입구 공원 및 장수마을 일대(성북구 삼선동1가 292)

조사지 선정 이유

배정학 선생님 8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몇몇 분들과 즉석 인터뷰를 하였다. 먼저, 추모사업회 신희철 사무국장님이 공원에서 전시 중인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고, 배정학 선생님과 마을에서 함께 활동하신 사진가 김형석 님이 오셔서 당시의 이야기와 그때의 경험이 그 후로 미친 영향을 이야기해 주셨다. 이후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국수를 먹었고 정릉골에서 오신 세입자대책위원회 김우권 님과도 자리를 함께했다. 마을사랑방에 오가는 길에 인권운동사랑방 민선 님과 세주 님을 만났고 여전히 마을 사랑방의 어르신들과 교감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추모사업회 박학룡 님에게 대안개발연구모임의 시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미리 기획된 인터뷰가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된 후 몇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하였다.

인터뷰 및 현장 조사 내용

신희철: 재개발 붐이 일었을 때 원주민들은 열 가구 중에 한 가구도 남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건설 경기도 안 좋다 해서 개발이 수년 동안 방치돼 있었잖아요. 여기가 성곽 바로 아래 마을이라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당시 장수마을처럼 '여기는 빈집입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그때 2008, 2009년 우리가 당시 뉴타운 백지화를 주민들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대안개발연구모임이라는 걸 만드시고 북정마을, 장수마을에서 주민들이랑 그런 운동을 해보자 하면서 다양하게 워크숍을 해요. 그러면서 마을을 기록해요. 주민분들이랑 여러 차례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는 뭐가 있었나? 그런 조사를 하고 그 주민분들 통해서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게 개선이 필요해요'라는 내용을 주민분들 스스로 얘기를 하게 했어요.

주민분들이 가장 절실했던 것 중 하나는 골목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집이 낡은 데 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집을 제대로 바꾸기가 힘들다.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동네 목

수라는 마을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때 대안개발연구모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배정학 샘이랑 2011년 정도부터 같이 활동 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랑 마을장터 하다가 배정학 샘이 주민으로 세를 들어와서 살기 시작해요. 마을의 집수리가 필요한데 주민분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마을기업을 만들자, 동네 목수 해서 집수리를 해요. 당시 동네 목수 총무였어요. 외부 모임이었던 게 차츰 동네 목수로 권한을 넘기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대안개발모임을 평가한 뒤 해산하고 동네 목수가 남아서 여러 활동을 이어서 했어요. 그중에 하나는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재개발을 해제시켰어요. 그걸 근거로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결정을 끌어냈어요.

동네 목수로 활동을 하는데 마을기업이 지속가능성 사업성을 발휘하기에는 전문성이 없고 그만큼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적자가 생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활동이 아니면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했어요.

어머님들은 동네 목수로 활동하기는 어려우시니까 그분들이랑 참여 프로그램 중 하나로 등을 만들었어요.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주민분들에게 소소하게 알바비를 드렸어요. 배정학 선생님이 직접 다니면서 팔았어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마을만들기 활동이 한창 붐이었다가 점차 북정마을, 정릉골 등에서 활동가들이 사실상 철수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2017년 11월 13일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또 고인이 장애인 운동, 활동지원사 운동, 성북구 인권위원회 활동, 노동당 등 여러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급하게 마을사회장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배대표, 배목수, 배총무 등 다양하게 그를 기억해요. 당시 장례를 치르면서 그 기억을 같이 살리려고 마을 박물관에서 동네 주민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창 힘드셨을 텐데 우리한테 잘 얘기를 또 안 하셨어요. 그냥 다 품에 안고 혼자 풀어 나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너무 미안했어요. 저희가 와서 겨울옷, 쌀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또 그 쌀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 줬어요.

신희철: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에 계시죠. 사진교실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동네 아이들이 엄청 재미있어 했어요. 따님도 같이 데려오시고 장터도 같이 하시고 아마 많이들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안개발연구모임을 하셨던 분들이 다른 곳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만들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마침 형석 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전시물을 압정으로 고정하는 일을 함

께 거들고 다 같이 식당으로 이동)

박학룡: 배정학이라고 여기 장수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올해 8주년이에요.

김우권: 이쁘게 할머니들 사랑방 같이 만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쪽 한성대 가기 전에 저 중간쯤.

신희철: 제가 일부러 사랑방 바로 옆에다가도 붙여놨는데 그래서 학룡 샘이 지금 다시 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 함께 하셨던 주민분들이 사랑방을 계속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배정학 샘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히 두 가지 활동을 이야기했어요. 아래 삼선5구역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대로 재개발이 과연 맞는 겁니까'라는 유튜브 방송을 했었고, 또 하나는 주민분들에게 마을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마을버스를 추진했었어요. 당시에 이동이 어려우니까, '마을버스라도 추진해 보자' 해서 당시 국회의원 아니면 구청장의 의지가 좋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마을버스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중형버스 이상을 해야 돼요. 여기는 주차 공간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 이해관계를 푸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배정학 샘이 설득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서 활동이 멈춰버린 거죠.

김형석: 안쪽으로 가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김성훈 콜텍 노조 사람들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만든 감독이에요. 그 사람이 정학 샘 집에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집이 겨울에도 되게 따뜻해요. 마을 동네 목수가 수리를 한 거예요. 겨울이었는데도 벽이 두꺼운 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은 참여했었어요. 근데 그냥 참여만 했지 제가 직접 뭘 한 건 아니고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조사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인권운동사랑방에서도 그 주제로 마을사업에 참여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골목길을 지나 다시 공원으로 돌아옴)

옛날에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어제 2009년에 『빈곤과 사회』에 쓰셨던 장수마을 관련 원고를 읽었는데 거기에 초기부터 2008년에 제안을 녹색사회연구소에 해서 연구모임 꾸려서 그다음 2년 차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쓰셨잖아요. 기억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박학룡: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죠. 그냥 우습게 시작했어요. 그때 2007년에 녹색연합에서 하던 생태도시 시민 강좌를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필요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너지 덜 쓰고 더 따뜻하고 쾌적하게, 부자동네 말고 내가 사는 윗

동네에서 해보자 했어요. 그때는 녹색연합, 지금은 진안의 마을만들기센터 사무국장하고 있는 김경화 국장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에 제가 쓴 제안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340만 원 정도에 공모사업이 됐어요. 그러고 민선 씨랑 미류 인권운동사랑방이랑 제안해서 하다 보니 일이 커진 거죠.

김형석: 제가 안 버린 게 있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마을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신기했어요. 배지도 하나 있는데 별걸 다 하고 정학 샘이 만든 거였어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우리 큰애가 마을 학교 왔었잖아요. 가끔씩 내가 여기 장수마을 간다고 하면 걔한테는 장수마을은 아빠가 주말에 좋은 시간 자기네들이랑 지내야 하는 데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첫째가 많이 왔어요. 몇 번 오니까 재미있었나 봐요. 저희 애가 사회학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자기 수업 시간에 이 마을 얘기를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리포트처럼 사진 찍고 발표를 했었나 봐요. 리포트 때문에 마을을 다시 한번 혼자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얘기랑 마을 사람들 얘기를 수업 시간에 발표했더니 되게 좋아했었다고 했어요. 별로 한 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마을이 애한테는 '기억에 영향이 있구나'라는. 정학 샘도 잘 알고 오늘 또 간다고 그랬어요.

신희철: (스피커 음성) 장수마을 주민 여러분! 이제 배정학 대표 8주기 추모식이 마을 인근 공원에서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콩나물국밥 식당에서 잔치국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잔치국수 드시고 오후 3시부터 시행되는 배정학 대표 8주기 추모식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박학룡 선생님

66년 성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석조이발관 사장님 조기선 조은영

일시: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09:50 - 11:40
장소: 석조이발관(성북구 아리랑로6길 30)

조사지 선정 이유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석조이발관은 축대 아래에 있는 주차장을 개조해서 만든 오래된 가게이다. 축대 위에는 1979년에 준공된 동선 연립과 1980년에 준공된 문화연립이 있다. 축대에는 총 세 개의 주차장이 있고 현재 석조이발관 외에 한 곳은 가정집으로 사용 중이고 다른 한 곳은 창고로 사용 중이다. 석조이발관의 독특한 외관만큼이나 다양한 이력을 지닌 조기선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66년간 동선동 일대에서 생활하며 경험하신 이야기와 과거 성북구의 모습과 변화되는 과정, 산동네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선정했다.

인터뷰 및 현장 조사 내용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올해 만 80인데 8살 무렵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 서울에 올라오려면 하루가 걸렸어요. 완행열차, 말하자면 돈 안 내고, 도둑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온 거죠. 고향은 전라남도 영암이고. 옛날 시골에는 머슴들이 있었거든요. 보호자가 없어서 이집 저집 다니며 사랑방에서 자기도 하고 소 풀도 베어주고 그랬죠.

공부를 좀 하고 싶어도 밑천이 없고 누가 밀어줘야 하지. 그게 없어서 어린 마음에 서울 가야겠다고 열차를 탔는데, 목포에서 서울 오니까 새벽 5시 반에 도착하더라고요. 서울역에서 내려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장에다가 팔아먹으려고. 나를 데려간 사람은 공장에서 돈을 받아. 담 넘어서 몰래 나와서 영천교 다리에서 사흘을 굶었죠. 빵 공장에 취업을 시켜줘서 갔는데 거기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빵 굽는 가마 위에서 자라고 하고. 잔심부름하다가 거기서도 도망 나와서 북아현동 파출소에 가서 신고했지.



석조이발관 조기선 선생님

이후 노동판에서 얼쩡거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너 어디서 왔냐?' 묻길래 '전라도 어디서 왔다' 그러니까 취직시켜 준다고 해서 양복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 기술자가 됐죠. 8살에 올라오고 9살에서 16살까지 파란만장한 거야. 목공 기술도 배우고, 구두도 닦고. 그러다가 미아리로 오게 됐어. 그때가 17살인데 와서 보니깐 성북천 있잖아요. 양쪽으로 오이밭이고 호박밭이여. 옛날에 집도 없었어. 다 밭이었어.

성북구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원래 여기(성북구 동소문로 120) 태극당 건물이에요. 여기 태극당 빵이 유명해요. 태극당 골목이 예전에 우범지대였어.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고향에 갔고, 이장 아저씨를 만나서 여러 동민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호적을 만든 거지. 이발소 중간 기술자를 '중함빠'라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하는 가게 아저씨가 일숫돈을 쓰더라고.

여기서 종암동까지 호박밭이니까 걸어 다니면서 무밭에서 무도 뽑아다 먹고, 메뚜기도 잡고, 미아사거리 가서 고기도 잡고. 거기가 허허벌판이니까. 벼 심고 그랬어. 다 서울로 오니까 야금야금 동네가 번져 나간 거지. 그때 당시 돈을 오천 원을 주웠던가? 그거 갖고 일수놀이하는 사람에게 갔죠. 나 가게 어디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걸로 계약하고.

이곳 석조이발관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여기는 내가 세 번째 주인이에요. 처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젊은 아주머니가 애 둘 데리고 사는 걸 내가 알거든.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어. 스님이 들어왔어. 이상해서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팔라고 선수를 쳤지. 그래서 내가 이사를 하게 된 거여.

영업했으니까 의자를 들어다 날라야 할 거 아냐. 이 의자가 50년이 넘은 의자여. 내가 오니까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돈을 쓸 줄 아는 거여. 웃돈을 얼마 주니까 딴 데 공사하다 말고 여기 와서 해주더라고. 전기도 그날로 와서 해버린 거야. 여기 처음 와서는 전기, 수도는 입구까지만 끌어 주잖아요. 안에 쓰는 건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수도 연결, 전기공사도 내가 다 해버리고. 남의 손 들어간 곳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서 동네 노동일 하는 사람 불러서 빨리 벽 쌓고 여기 좀 파라 통 큰 거 묻고 화장실로 쓰게 만들었지.

석조이발관 건물 구조가 궁금합니다.

이게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나? 저 아파트(돈암 브라운스톤) 짓기 전에 위로 허허벌판이었어. 여기가 일본군 통신부대가 있었어요. 여기 내 머리 위에는 공터여서 우리가 여름이면 앉아서 놀고, 쌈도 하고, 술도 먹고, 그랬던 거여. 우리가 놀 때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바위가 하나여. 비스듬히 요렇게. 나무도 못 자라. 저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비스듬히 이렇게 된 거여. 요렇게 됐는데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요렇게 된 것을 비스듬히 비탈 끝에 축대를 쌓은 거지.

여기가 차고여서 뒤로 올라가면 문이 있지. 굴을 판 게 아니고 차고를 쌓기 전에 공구리를 친 거여. 비스듬한 땅을 축대 세우고 메꿔서 땅이 늘어나니깐 그 위에 집을 짓게 된 거지. 그래서 연립이 몇십 년 됐죠. 문화연립, 동선연립. 차고가 세 개인데 옆집은 가정집 끝에는 지금 창고로 쓰고 있지.



석조이발관 외관

과거 동선동은 어떤 곳이었나요?

옛날 산동네 집들이 다 무허가지. 그때는 월세 받아먹고 살려고 조그마한 공간만 있어도 방을 들여. 최하 한 집에 다섯 집이었어. 한 집에 몇 명 사는가 인구를 추산해 보니까 엄청난 거여.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매상이 올랐던 거여.

그때는 화장실 푸는 거는 사는 사람 숫자대로 냈지만, 화장실은 하나 가지고 쓰지. 화장실 작은 데는 막 넘치고 그랬어. 마당으로 똥물이 내려오고. 옛날에 똥 푸는 사람들이 지게를 어깨다 매고 다녔고 돈 벌었어. 수도도 하나만 쓰고. 저녁에 노동판에서 장사해서 쌀 사서 올라가고. 연탄 하나 새끼에 꿰어서 저녁에 들고 가고. 그게 유행이었어.

수수깡으로 어떻게 집을 지어요?

수수깡은 이게 벽이잖아. 가운데 막대기 세워서 수수깡이 대나무처럼 길잖아요. 하나 둘 엮어서 올라 갖고 양쪽에서 흙을 발라. 안에서 바르고 밖에서 바르고 황토집이 그런 원리에요. 지금도 여기 두 채 있잖아. 그래서 저 집은 세가 안 나가. 이런 데를 누가 와요. 밑에는 벽이 약한데 자꾸 비가 새니까 위에 덮으면 중량이 무거워져서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지.

어떤 손님들이 이곳을 찾아오셨나요?

여기는 한번 오면 그 사람이 또 오고 소개를 해줘. 옛날에 오토바이 타는 여자 손님들이 우리 집에서 면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화장 잘 받으라고 칼로 싸악 해주고. 자꾸 소문이 나니까 자기 친구도 보내주고. 여자 손님들 헤어도 많이 해줘요. 파마는 안 하고 커트만. 여기 아파트 짓는다고 주민들이 다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우리 가게 손님이 다 없어져 버린 거지. 한 30~40년 전에는 엄청나게 살았어.

아리랑고개 이야기도 해주세요.

여기 아리랑고개라고 푯말 보이죠? 아리랑고개가 넘어가면 정릉 개천이에요. 거기가 집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산속이니까. 꾸불꾸불해서 아리랑고개란 별명이 붙은 거여. 내가 어릴 때를 얘기하면은 누나뻘 되는 사람들이 혼자는 거길 못 넘어와. 왜냐하면 돈 뺏기고 사고당하고. 그때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거기가 무서웠던 데예요. 미아리고개를 아실라면 이것부터 알아야 하는데 미아리고개를 세 번 깎은 거여. 높아서 높이를 낮출려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즐기고 싶으세요?

이젠 전국을 돌아다니며 봉사하고 싶어요. 일손이 부족하면 일손, 머리 자르라면 머리 잘라. 시골은 이발하려면 하루 걸려요. 사람이 없어 시골에. 버스가 없어. 내가 그래서 시골 노인정에 이발하러 가면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은 노인정도 뜨거운 물 목욕탕에서 나오지, 이발만 해주면 다 좋아해. 할머니들도 내가 다 잘라줘. 날짜 잡아서 딱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가서도 음식 해주려고 하면 우리가 못 하게 해. 그러면 봉사가 아니다. 내가 법을 지키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밥 먹어라, 먹지마라' 하는 사람도 없지, 내 맘대로 자유대로 사니까. 나는 태평한 삶, 낭만주의로 가고 싶다 이거지.

마무리하며

석조이발관은 2024년 주민기록단을 시작할 때부터 지켜봐 왔던 곳이다. 오래된 동선연립을 발견하고 주변을 돌아보던 중에 축대 안에 있는 독특한 외형의 이발관을 발견하고 조사하던 중에 석조이발관 사장님의 독특한 이력을 알게 되었다. 매번 찾아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어서 근방을 서성이다 1년이 흘렀다. 2025년 주민기록단 활동을 하게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갔다가 다행히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8살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오고 9살에서 16살까지 파란만장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북구에 정착하기까지의 스토리는 과거 한국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영화보다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거쳐 왔지만 여전히 나눔의 가치와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것인지를 실천하며 사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조기선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 성북구의 모습과 산동네 서민들의 애환, 지역의 특징과 변화하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미인도에서 만난 전시 〈구름구름〉 조은영

일시: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10:00 - 10:30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12:30 - 13:30
장소: 미인도(성북구 동선동3가 22-6)

조사지 선정 이유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미인도는 정식 건물이 아닌 미아리고개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문화 예술을 위한 마을 공간으로 탈바꿈한 시민 주도형 도시재생 공간이다. 쓸모없이 방치된 고가도로 하부를 문화 예술 복합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 도시재생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2024년 7월부터 내부 사정으로 1년간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2025년 7월 전시 〈구름구름〉을 시작으로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운영 중단 후 첫 전시 〈구름구름〉과 성북구 주민들에게 생소한 이색 공간 미인도를 소개하고자 조사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미인도

서울 성북구 동선동 미아리고개 고가도로 하부는 본래 환경미화 자재 창고로 활용되던 곳으로 낮에도 어둡고 우범지대가 되어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였다. '미인도'는 미아리고개를 의미하는 두루 미(彌), 사람을 뜻하는 사람 인(人), 길을 뜻하는 길 도(道)가 만나 만들어진 이름으로 '마을과 마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 위의 공간'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CO) 공공미술 시범사업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어 공간의 선정과 기획, 설계와 조성, 운영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졌다.

미인도 프로젝트

미아리고개 고가도로 하부에 위치한 버려진 공간을 복합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기존에 쓰레기 상하차 거점이며 우범지대를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들에게 개방



미아리고개 고가도로 돈암동 방향 하부공간

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건축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주요 시설은 실용성 있는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 주민쉼터마루: 주민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공의 공간
- 주민스토리: 마을 이야기와 주민들의 활동을 전시하는 공간
- 다목적 공간: 주민과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 워크숍 등을 열 수 있는 복합 공간

미인도 운영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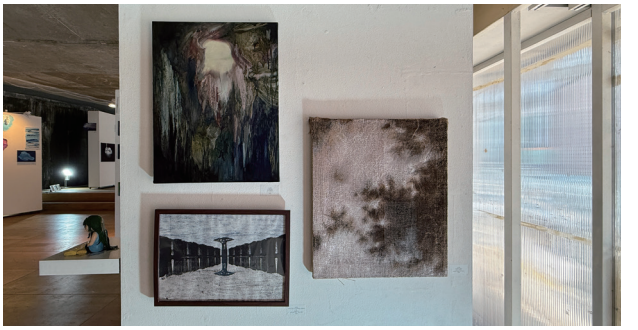
2017년부터 협동조합 고개엔마을과 성북문화재단이 공동 운영 협약을 맺고 미인도를 공동 운영해 왔다. 미아리고개 마을장터 '고개장', 공연과 전시, 워크숍 등을 통해 생활 문화 소통의 장으로 무료 개방되었다. 그러나 2024년 성북문화재단과 지역 예술인 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해 공동 운영 협약이 파기됐고, 이후 1년여간 미인도는 폐쇄되어 운영되지 않았다. 최근 인도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재운영을 위해 준비 중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장 조사 내용 전시 〈구름구름〉 인터뷰

1년 만에 문을 연 미인도의 첫 전시 〈구름구름〉을 관람하고 성신여대 전시 동아리 '스튜디오 오버파워' 이은진 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작가 소개

성신여자대학교 전시 동아리 '스튜디오 오버파워'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조소과 1학년 이은진입니다.




미인도 갤러리 작품

전시하게 된 동기

구름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유동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감정을 가볍고 소박하게 꺼내려고 하였습니다. 관람자도 익숙한 구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장치로 기획했습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도롯가여서 개방적이고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분위기가 전시와 잘 어울리고, 동네 안에서의 예술 공간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개인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전시가 지역 커뮤니티와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성북문화재단과 함께하였습니다.

전시 콘셉트

구름이 메인 오브제이고 넓게는 하늘과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해서 각 작가가 떠올리는 감정들을 작품으로 시각화해서 소형 작업 위주로 했습니다. 행복하거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감정들을 구름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드로잉이나 회화, 부조, 입체 소품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했습니다.

전시 기간

처음에는 벽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었는데요,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벽화가 미뤄져서 긴 프로젝트에서 프리퀄의 개념으로 먼저 전시를 하게 되었고 벽화는 9월 초쯤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미인도 공간 이미지

처음에는 주변으로 지나다녔는데도 여기가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무척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알록달록하게 꾸며놓으니까, 시선이 가게 되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전시 주제와도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내부 공간

가벽이랑 단상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전시를 안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용했던 것이 있었고, 디스플레이는 저희가 다 직접 했어요. 작품을 인당 1, 2점씩 주셔서 총 80여 개 정도 됩니다.

참여 작가

스튜디오 오버파워 동아리원들과 타 전공 학생, 단국대 학생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 작가는 총 42명 정도 되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현직 작가로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성신여대에서 하는 전시지만 다른 학교 분들도 많이 참여하면 훨씬 폭이 넓어지니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향후 계획

외벽에 구름이나 하늘, 다양한 오브제를 섞어서 공간을 활기차게 바꿀 예정이고요. 9월에서 12월까지 계속 전시를 기획하고 있어서 열려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치원과 협업해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스토리를 받아서 같이 전시하는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미인도를 처음 본 건 2025년 봄, 전시 〈구름구름〉을 보고 특이한 공간에 매료되어 조사를 하게 되었다. 미인도는 도시재생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모범적 사례이며 무엇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완성된 지역 재생 공간이다. 하지만 폐쇄된 후, 굳게 닫혀버린 공간만큼이나 멀어져 버린 민심과 문화예술인과의 관계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미인도가 생기게 된 이유와 열정을 다시 상기하여 열린 마음으로 주민과 예술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 전시 〈구름구름〉을 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상황이 마치 구름과 같다고 생각했다. '맑은 구름이 있는 날도 있고, 먹구름이 있는 날도 있다. 다양한 구름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마치 인간의 감정과 같다' 미인도에 잠시 먹구름이 머물렀다고 해서 하늘에서 구름을 거둬낼 수 없다.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와 같은 결말을 기대해 본다.

정릉책방 '햇살속으로' 조은영

일시: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11:00 - 13:30
장소: 정릉책방 햇살속으로(성북구 정릉로 346)

조사지 선정 이유

성북구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인과 예술가가 머물던 곳으로, 그 가치를 잇기 위해 '책 읽는 성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서울형 책방' 사업을 통해 지역 서점을 문화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성북구에서는 올해 총 4곳이 선정됐고 그중에 하나가 '햇살속으로'이다. 햇살속으로 대표는 나고 자란 정릉에 대한 애정으로 '서점을 해서 나도 좋고, 동네도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동네 책방을 시작했다고 한다. 10년 운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햇살속으로를 조사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서울형책방이란?

서울형책방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역 서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책을 매개로 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점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선정된 60곳 중 성북구는 총 4곳(햇살속으로, 책보냥, 책의기분, 호박이넝쿨책야책)이 포함되었다. 선정된 곳은 운영비 지원과 홍보 혜택을 받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하게 된다.

성북구 한 책 읽기란?

성북구 '한 책 읽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독서 문화 운동이다. '한 책 추진단'과 주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한 책'은 단순한 추천 도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이란 의미를 지닌다. 선정된 책을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며, 이는 이웃 간 소통을 넓히고 지역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장 조사 내용

햇살속으로

성북구 정릉동 길음교 사거리에 있는 '햇살속으로'는 2019년에 오픈한 동네 서점이다.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책과 커피, 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사랑방' 같은 곳이다. 상업적으로 활성화된 길음뉴타운 건너편, 상대적으로 한적한 정릉 1동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독서토론, 작가와의 만남,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햇살속으로 대표 최충희 님 인터뷰

대표님 소개 부탁합니다.

1970년대 성북구 정릉에서 태어나서 잠깐 외도를 하고 왔지만, 다시 들어와 살고 있는 최충희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직장 때문에 잠깐 벗어났지만 주로 정릉에서 살았습니다.

정릉에 서점을 내신 이유는?

태어나서 자라온 곳이라 서점이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도 있었고, 아버지가 여기서 몇십

년 가구점을 하셨던 곳이라 애착이 있는 동네인 거 같아요. 노래방이 철거된 자리에 바로 서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책방 운영 동기와 공간 배치는?

어릴 적 꿈이 책방 주인이었는데, '서점을 해서 나도 좋고, 동네도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책장을 놓고 시작했는데, 오픈 직후 코로나가 터지면서 책만으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공간을 함께 즐겼으면 해서 커피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술이나 레고 같은 요소를 공간에 녹여보자 해서 바(Bar) 형태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책방 이름을 '햇살속으로'로 하신 이유는?

전 직업이 신재생에너지 쪽이라 햇살과 관계가 깊었습니다. 기후 위기나 황사 문제도 있고 해서 햇살이 잘 비쳤으면 좋겠다는 의미와 사람들에게 햇살이 많이 닿아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감정적인 측면을 담아서 지었습니다.

책 선정 기준과 장르는?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책들이 있으면 좋겠고, 여러 사람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책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소설, 에세이, 인문 분야가 많고, 독립 출판물들도 꾸준히 입고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동네 소식이나 개인적인 글을 써보고 싶은 생각에 출판사 등록도 해두었습니다.

북토크, 독서 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은?

독서 모임은 월 1회 진행하는데 처음엔 성북구 주민 위주였다가 지금은 다른 구에서도 오시는 등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책들과 서점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듯한데.

어릴 때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고 관련 일도 해서 왕래가 잦았습니다. 일본은 프랜차이즈 서점도 많고 서점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 책방들과 일본 책방들이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서점 내부

홍보 방식과 찾아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따로 홍보는 안 하고 알음알음 오십니다. 주위 주민분들, 책방 투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예전에 밤 11시까지 심야 책방을 할 때는 멀리 김포나 강남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단골 학생의 성장기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고, 요양병원 옆이라 주민분들이 편하게 음료 드시러 오시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교류나 네트워킹은?

성북구 '한 책 읽기' 추진위원회 활동을 몇 년째 하고 있고, 구내 도서관들과 협업도 합니다. 다른 책방들과도 분기별로 만나 고충을 나누거나 협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 등이 있지만 지원이 있다면 더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운영상의 고충과 앞으로의 계획은?

좋은 분들을 만나고 보람을 느끼지만, 서점은 기다림이 큰 것 같고 박리다매가 안 되니 쉽지 않습니다. 일단 1차 목표는 10년을 버티는 것입니다. 북마켓 참여나 성북문화재단 행사 등에도 참여하고, 책을 읽고 감상을 쓰는 필기구 같은 굿즈도 계속 만들어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성북구 정릉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사회적 갈등 없이 서로 두루두루 잘 사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이 이곳을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조은영

일시: 2025년 5월 18일 일요일 11:20 - 14:00
장소: 성북로 일대(성북구 성북로 37 ~ 66)

조사지 선정 이유

성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성북구 성북동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역 기반 세계 음식문화 축제이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며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친환경 축제이다. 오늘날 사회적 과제인 문화 다양성 수용, 기후 위기 대응, 공동체 회복을 음식과 문화를 통해 풀어내는 성북구의 대표 문화축제이므로 선정하게 되었다.



별별마켓 일대

누리마실이란?

성북구 성북동은 대사관저가 밀집하고 대학이 인접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누리마실은 2008년 다문화음식축제로 시작해 2015년 '상호 문화'로 개념을 확장하며 명칭을 변경했다. 매년 5월 일요일 하루, 성북동 거리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누리(세상)'와 '마실(이웃 나들이)'을 결합한 이름처럼 음식과 문화를 매개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 인식 제고를 위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식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에도 선정되었다.

현장 조사 내용

슬로건

제17회 맛지구나(What a Tasty World) 2025년 누리마실에서 맛있는 세계를 만나세요.



행사장



퍼레이드

퍼레이드

오전 11시 30분 축제장 입구에서 메인무대까지 행진하며 해마다 색다른 콘셉트와 퍼포먼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제17회 〈퍼레이드:맛지구나〉 공작소365 × 상상팩토리 × YES 무용단 × 밴드집사 × 국민대학교 인형 주방장과 토끼 가면 요리사들의 대결, 서커스, 레스토랑으로 변신하는 플래시몹 등 춤과 퍼포먼스로 구성된 음식 리듬의 퍼레이드로 펼쳐졌다.

캐릭터

공식 캐릭터 '누리'와 '마실'은 2016년 제8회 때부터 사용되었다. 머리와 몸통이 하나인 둥근 형태로 서양배나 풍선처럼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 누리(초록색 계열): 세계를 상징하는 캐릭터
- 마실(붉은색 계열): 이웃을 상징하는 캐릭터

안전한 축제를 위한 부스

구급차, 경찰, 소방안전체험 부스가 마련됐고 미아보호소, 바가지요금 신고센터가 운영되어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다회용기 반납함과 분리수거함 부스를 곳곳에 마련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를 준비했다.

별별모험체험

지구촌 놀이 문화 체험 코너로 베트남 잠자리놀이(쭈은쭈은) 장난감 만들기, 일본 팽이 만들기, 세계 제기차기, 전통의상 입고 놀기 등이 운영되었다.

세계음식요리사 참여국가

주한 외국 대사관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선보이는 부스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이국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올해 참가국은 벨라루스, 헝가리, 프랑스, 불가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네팔, 파라과이, 콜롬비아, 페루, 오만,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으로 모두 19개 나라이다.

그 외 지역 먹거리, 비건, 사찰음식 등이 참여했으며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와 음식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였다.





파키스탄, 콜롬비아 부스

마무리하며

성북구 주민으로 15회부터 꾸준히 방문하며, 해마다 운영과 편의성이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정체성이 확고해짐을 느꼈다. 안전과 편의성 확대, 친환경 프로그램, 다회용기 사용과 음식 가격 상한제 등을 통해 모범적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더운 날씨에 그늘막 쉼터를 제공한 점은 축제 운영의 성장과 문제 해결 노력을 보여준다. 18회 때는 더 많은 대사관들이 참여하여 음식을 통해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지역 네트워크 축제 〈모두의 마당〉 황인성

일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16:00 - 20:00
장소: 장위행복누림복합센터 앞마당(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



동네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일일 찻집

조사지 선정 이유

여름에 성북구에서 크고 작은 축제들이 펼쳐지는데 큰 축제들은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만 작은 기관들에서 여는 소규모 축제들은 큰 축제들에 비해 정보도 적고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아쉽게 느껴졌다. 소규모 축제 중에서 6월에 열리는 축제가 있어 현장을 찾아 현장의 풍경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지역 네트워크 축제인 〈모두의 마당〉을 조사지로 선정하였다.

현장 조사 내용

축제를 여는 이유

이 축제는 매년 6월에 진행되는 축제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다.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지역 활력 및 주민 간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하였다고 한다. 축제를 통해 다른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기관들이 모여 함께 축제를 진행하고 있었다. 함께 축제를 진행하는 기관들 중 사회복지관이 두 개가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음료 및 간식을 직접 만들어 나눠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축제 내용

축제는 메인 행사, 음식 부스, 행사 부스로 나눠 있었다. 메인 행사는 마당놀이, 어린이 치어리딩 댄스, 매직&버블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당놀이는 아이들과 프로그램 운영자가 함께 진행하는 놀이로 공 던지기, 비석치기, 딱지치기 같은 가볍고 아이들이 재미있어할 만한 놀이로 운영 중이었다. 아이들이 딱지치기에 집중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전통놀이의 건재함도 느낄 수 있었다. 놀이 시간이 끝난 후 치어리딩 댄스를 진행하였는데 연습하면서 얼마나 구슬땀을 흘렸을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다. 노래에 맞추어 초등학교 1~2학년, 3학년



치어리딩



버블쇼

이상 그런 아이들의 치어리딩을 구경 온 사람들이 귀엽게 바라봐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치어리딩이 끝나고 행사 마지막에 매직&버블쇼가 진행되었는데 전문 공연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는 쇼로 공연자의 퍼포먼스가 흥미로웠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공연을 집중해 바라보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다. 공연 중간중간 어린이들을 지원자로 받아 함께 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마술도 재미있었지만, 버블 안에 어린이들을 가두는 퍼포먼스는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했다. 참여 어린이들의 기억에 남았으리라 생각된다.

음식 부스는 일일 찻집을 운영하면서 떡볶이, 샌드위치, 음료, 커피 등을 축제를 보러 온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다. 다른 축제를 보면 음식을 판매하는 게 대부분인데 동네의 작은 축제여서 그런지 참여기관들이 음식들을 무료로 나눠 주고 있었다.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면 대량으로 받아 남기거나 버리거나 하여 축제를 여는 행사 장소가 더러워

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더러워지는 것 없이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행사 장소가 넓지 않아 아무 데나 버리는 사람이 있어도 바로바로 치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메인 행사하기 전에 정리하여 메인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월곡종합사회 복지관

행사 부스는 기관별로 여러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짝꿍 찾기 미션, 주민 교류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짝꿍 찾기는 쪽지에 적힌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인데 주로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서로 쪽지에 적힌 사람을 찾아서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퍽 재미있어 보였다. 결국 짝을 못 찾아서 다시 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못 찾은 아이들은 행사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결국은 찾아 주고 작은 선물을 나눠주었다. 한 번 참여해 보아도 재밌을 것 같았다. 주변의 이웃들을 알아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는 자기 기관을 알리는 홍보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다. 간단한 퀴즈를 내고 맞추면 간식을 상품으로 주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오는 안내데스크에서 참여 등록을 하면 라면을 한 개씩 나눠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북에 대한 생각

찾아보니 성북구에 이런 소소한 축제들이 여기 외에도 많이 있었다. 뉴스를 보면 축제에서 바가지 쓴 이야기로 난리던데, 이런 작은 축제들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무료 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런 소소한 축제들은 동네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 무엇보다 보는 재미가 있다. 이런 소소한 축제를 알리는 홍보 채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성북물놀이축제 〈성북문화바캉스〉 선종욱

일시: 2025년 7월 27일 일요일 10:30 - 11:30
장소: 서울숭덕초등학교(성북구 정릉로 279)



성북구에서는 여름과 겨울, 지역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축제를 개최한다. 기록가가 사는 길음1동에는 7단지 유휴부지에 여름이면 수영이 가능한 물놀이 축제, 겨울이면 눈썰매와 얼음 썰매를 탈 수 있는 얼음 축제가 열린다. 길음 뉴타운 유휴부지보다 약 4배가량 넓은 학교 운동장에서 축제를 한다면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여름, 정릉 1동과 2동 인접 지역인 서울숭덕초등학교(정릉2동 소재) 운동장에서 여름 물놀이 축제가 열렸다. 벌써 9번째를 맞이했으며, 여러 가지 문화 활동과 바캉스를 겸한 축제다. 2025년 폭염이 기승을 부려 오전부터 푹푹 찌는 날씨였지만, 주말을 맞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리는 곳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성북문화바캉스의 이모저모를 담아보았다.



대형 미끄럼틀

숭덕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성북문화바캉스 기간은 2025년 7월 25일(금)부터 7월 29일(화)까지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성북구 주민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타지역 주민들에게는 2,0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오전 10시 30분 이전부터 입장하려는 주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입구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종합안내소가 있고, 맞은편에 의무실이 있다. 종합안내소를 지나면 화장실이 있고, 이어서 샤워장과 탈의실 천막이 나온다.

입장하자마자 본부석 쪽으로 노란색의 대형 미끄럼틀이 보인다. 미끄럼틀 뒤로는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타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입구 오른쪽에 미끄럼틀이 있고, 중앙에는 대형 수영장이 두 개와 소형 수영장 하나가 있다. 대형 수영장에는 안전을 위하여 키 120㎝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 안전요원들의 지도에 따라 키를 재는 곳이 있고, 120㎝ 이상인 경우 앞에 있는 수조에서 발을 씻은 뒤 수영장에 입장할 수 있다. 키가 작아 입장할 수 없는 어린이들은 수심 50㎝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어린이와 함께 온 어른들은 물놀이장을 두른 천막 그늘에서 쉴 수 있다. 물놀이 도중에 배가 고프다면 가까운 곳에 푸드트럭이 있어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성북구를 알리는 이벤트 부스가 있어서 운영 요원들이 주민들에게 성북구 유튜브 채널과 SNS를 안내하고



수영장

있다. 주민들이 성북구 유튜브 채널 구독을 누르고, SNS 친구를 맺으면 일회용 밴드 한 묶음을 증정한다.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이벤트다.

성북문화바캉스가 열리는 숭덕초등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다. 축제에는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성북문화바캉스는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킨다. 수영장에서 즐겁게 수영하는 아이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서 함성을 지르는 아이들의 노는 모습이 보는 이를 즐겁게 한다.

여러 이유로 여름철에 먼 곳으로 휴가를 갈 수 없는 형편의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성북문화바캉스는 비용과 시간 대비 최고의 바캉스가 될 것이다. 성북문화바캉스가 열리는 모습을 보는 성북구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의 즐거움과 성장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숭덕초등학교는 2024년 여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할 수 없어 매우 긴 여름방학을 보냈다. 2024년 10월이 되어서야 2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2025년 1월까지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 이후 말끔하게 변한 학교에서 맞는 첫 여름에 성북문화바캉스가 진행되어, 주민들은 더 안전하



먹거리와 이벤트 공간

고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더불어 성북문화바캉스를 이용하는 며칠, 단 하루라도 폭염을 이겨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주민들에게는 건강, 지식, 레저, 여유 그리고 문화적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도서관, 각종 공연장, 체육관, 문화시설 등이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도심에는 마음껏 뛰어놀 만한 운동장이 부족하다. 지역의 학교가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한다면 주민들의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학교의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학교 운동장을 상시 개방할 수 없더라도 숭덕초등학교처럼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개방하는 사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지역과 밀착하는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안암래미안 어린이 물놀이 축제 〈Splash Anam〉 임진희

일시: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10:00 - 16:00
장소: 안암래미안 아파트 내 배드민턴장(성북구 고려대로 17가길 64)



안암래미안 어린이 물놀이 축제 〈2025 Splash Anam〉

섭씨 38도에 이르던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은 물놀이 복장의 어린이들이 각 동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물놀이 축제가 펼쳐지는 배드민턴장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등록을 확인하고 진행요원들의 안내를 받아 키별로 색깔이 구분된 손목띠를 찼다. 띠를 찬 아이들은 푸드트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물놀이 접수 후 가족과 함께하는 물놀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행사장엔 만국기가 휘날리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구분된 컬러풀한 인공 풀장에 담긴 물들이 반짝반짝 윤슬을 그리고 있었다. 부푼 표정으로 행사장에 들어선 아이들은 10시 정각에 시작을 알리는 진행자의 지휘에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듬직한 워터 슬라이드도 타보고 풀장 안을 첨벙거리며 신나게 놀았다. 영유아 풀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기를 품에 안고 함께 들어가 몸에 물을 적셔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소리 지르며 뛰노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는 휴식 공간 한쪽에 앉아 흥분한 아들의 행동을 눈으로 따라가며 웃음 짓고 있었다. 기록적인 폭염이었지만 아이들의 환호성은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에는 호기심과 부러움으로 바라보던 인근 주택가의 아이들까지 참여시켜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가족이 있는 풍경

10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이날 축제는 가족 잔치가 되었다. 삼대가 모두 출동한 가정이 많았는데 할아버지와 꼭 붙어 있던 106동 박세온 어린이는 "좋아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주원이네 삼 형제는 물놀이를 위해 엄마, 아빠와 아침 일찍 천안에서 출발하여 104동 할머니 집으로 왔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행사장 주위에 돗자리를 깔고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였다.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이벤트'의 주용식 실장은 아이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50분 물속, 10분 휴식 방식을 철저히 지켰다.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라 했다. 5명의 회사 직원과 3명의 입주민이 안전요원으로 투

입되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재수(65)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컴프레서로 튜브에 공기를 주입하고 물 호스 연결 상태도 살피는 등 순조로운 행사 진행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구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실시

〈2025 Splash Anam〉은 구청지원금 70%와 아파트 부담금 30%의 비용으로 실행하는 성북구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다. 구 단위나 동 단위의 물놀이 행사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아파트 차원의 행사는 흔하지 않다. 이러한 행사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유명무실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축제 탄생의 주역 황종수 입주자 대표회장

이 행사 탄생의 주역은 황종수(52)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그는 지난 5월 진행된 입주민 효도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른 당사자이기도 하다. 새까맣게 탄 채 땀을 뻘뻘 흘리며 행사장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던 황 회장의 축제를 마무리한 소감은 어떨까?





입주자 대표회장과 물놀이 행사 진행요원들

아이들이 좋아하면 해야지요

홀가분해요. 전날 걱정돼서 잠도 못 잤는데 사고 없이 잘 끝나서 참 다행입니다. 사실 행사를 진행하며 힘든 점도 많았지만 주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2월 우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어르신 효도잔치와 어린이 물놀이 축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손쉬운 행사는 하고 싶지 않았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파악했고 그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물놀이 축제 날짜는 인근 안암초등학교가 방학하는 주 토요일로 잡았지요.

2월부터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준비했고 4월과 5월 두 달간은 효도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효도잔치가 끝나자마자 5월부터 3개월 동안 물놀이 축제를 위해 에어풀장 설치, 푸드트럭, 현수막 업체 섭외는 물론 배드민턴장 안전진단과 보험 가입까지 마쳤습니다. 너무 일을 크게 벌인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면 해야 한다고 밀고 나갔습니다. 수없이 행사 계획을 수정하며 가장 마음을 썼던 부분은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미한 사고 하나 없이 무사히 축제가 마무리되어 기쁩니다.

축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젊은 입주자분들이 아파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관리사무소분들과 경비분들, 미화원분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웃음소리 호방한 그는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아끼는 정 많은 멋진 사나이였다.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제 임진희

일시: 2025년 8월 14일 금요일 17:30 - 21:00
장소: 성북천 수변활력거점(성북구 보문로 168)



다시 찾은 빛으로, 성북의 밤 만세를 외치다

문제는 날씨였다. 13일 심하게 폭우가 쏟아졌다. 14일 당일도 종일 비 예보가 있었고 낮에 비가 내렸다.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마음 쓰였다.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나,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긴 노고를 알기에 부러 행사장을 미리 기웃거려 보기도 하였다.

비가 그치고

시간이 다가오자 다행히 비가 그쳤다. 평소보다 성북천 수량이 증가했고 수질도 좋아졌다. 구청 앞 성북천 수변활력거점에 설치해 놓은 무대는 행사를 진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되었다. 주변을 빙 둘러 장식된 소형 태극기가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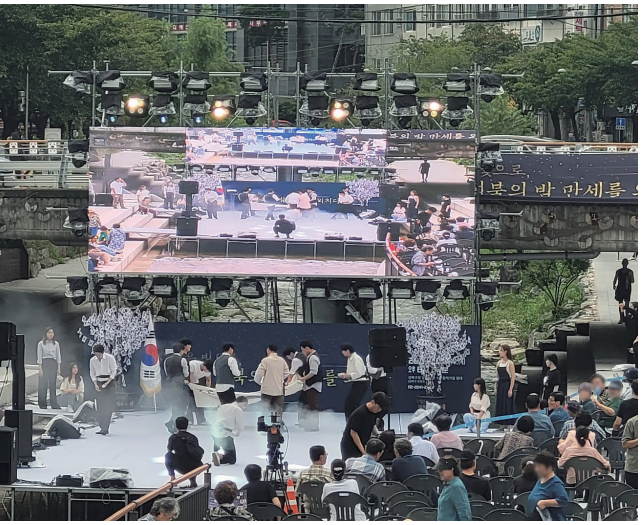
오후 5시 30분경부터 구민들의 입장이 시작되어 동별로 질서 있게 자리 잡았다. 관람석에는 프로그램 일정표와 태극기, 응원봉과 우천에 대비해 일회용 우비까지 담긴 비닐팩이 마련되어 있었다. 출연자들의 리허설 후 오후 6시 45분 SBS 부산 미디어국 송규원 아나운서가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제의 시작을 알렸다.

'大韓獨立萬歲'

사전행사로 정병호 교수가 이끄는 고려대학교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성북구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AI 콘텐츠 시연을 펼쳤다. 정찬영, 이민욱 학생이 구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서예가이자 문화예술기획자인 '문밖세상' 변희정 대표가 대형 붓으로 "大韓獨立萬歲(대한독립만세)"를 힘차게 써 내려가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승로 구청장, 임태근 구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성북 갑)·김남근(성북 을) 국회의원, 홍순기 광복회 성북지회장이 이어서 서명을 한 후 만세삼창을 하였다. 변희정 작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다.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써 보고 싶었다"라고 하였다.



서예 퍼포먼스



서경대 뮤지컬 공연



돈암동 성당 미디어 파사드

더 큰 대한민국, 더 나은 성북을 다짐

7시 24분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오프닝 공연으로 최은정 교수 지도로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팀이 한국 창작 뮤지컬 "영웅" 중 '단지동맹', '장부가', '그날을 기억하며'를 노래하였다.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가 있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이 자리가 더 큰 대한민국, 더 나은 성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보삼 만해기념관장,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계성고등학교 학생들, 독립운동가의 삶을 조명하는 창작극을 꾸준히 선보이는 극단 '더늠'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었고 참석자 전원이 '광복절의 노래'를 태극기 흔들며 함께 부르고 만세 삼창을 하였다.

성북인의 자부심 충만

문화행사에 한국국악협회 성북구 지부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건자 선소리산타령 전승교육사, 유부임·최은서 선소리산타령 이수자, 김연수 판소리고법 이수자와 정원 어린이가 '해방가', '창부타령', '배뱅이굿'을 열창하였다. 국민대학교 5중주 '오브라스' 팀의 '아리랑', '아름다운 나라' 연주에 구민들은 손뼉 치며 흥겹게 호응하였다. 음악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국민대학교 '음파'가 '선구자', '챔피언', '그리운 금강산'을 감성 넘치게 부르며 분위기를 절

정으로 이끌었다. 참가자들은 응원봉의 불을 켜고 흔들었고 “성북의 길, 빛의 수호”라 이름 붙인 미디어 파사드가 돈암동 성당을 아름답게 수놓자 환호하였다. 피날레 공연으로 수변 라이트쇼가 펼쳐지며 밤 9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제는 성북구가 주최하고 성북문화원이 주관하였다. 부대행사로 한성대학교 회화과 학생들이 구청 1층 게시대에 8월11일부터 28일까지 “광복 80년, 성북의 독립운동가 80인의 얼굴을 그리다” 특별전시도 하였다.

행사 출연자들은 성북구 소재 학교, 단체 등 모두 성북인들로 구성되었다. 야외에서 펼쳐진 행사이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이웃끼리, 가족 단위로 많은 인원이 함께하였다. 문화공연을 즐기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북인의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집으로 오는 길, 문화제를 기획하고 진행한 사람들의 수고와 비를 그치게 해준 하늘에 깊이 감사하였다.



한성대 광복절 특별전시

현대백화점 미아점 〈현백 로컬 상회〉 김지성

일시: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13:00 - 14:00
장소: 미아 현대백화점 7층(성북구 동소문로 315)

선정 이유

사회적경제 기업, 소상공인, 청년 기업이 기존 유통망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유명 백화점과 공공기관이 판로, 홍보, 마케팅 등 참여 기업에게 다양한 육성 지원을 제공하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현대백화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북구청 등 다수 기관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현백 로컬 상회〉는 도시 대형 유통 공간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상생 모델로 서울 성북구, 강북구, 강동구 일대의 사회적경제 기업, 소상공인, 청년 기업 등 지역 기반 생산자들이 대형 백화점에 입점하여 판로를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이다. 사진으로 담아 성북마을 아카이브에 남기고 싶어 선정하게 되었다.




로컬상회
LOCAL GENERAL STORE


손수건
8,000원
에어슈쿠
4,000원
암록담록협동조합
암록담록
협동조합
30,000
50,000
30,000
타이백 파우치
8,000원
데님 리본
도시락 가방
30,000원
러사이클
트래블백
12,000원

로컬 상회 팝업



행복나무공방

현장 조사 내용

행사 현장은 현대백화점 미아점 7층에 위치한다. 운영 기간은 2025년 9월 1일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팝업 공간에는 지역 공방, 개인 브랜드, 사회적경제 기업 등 35~40개 팀이 주기적으로 교체 입점하여 직접 매장 운영을 담당한다. 서류 심사와 품평회를 거쳐 '로컬 상회' 운영기업으로 선정된 성북구의 기업은 알록달록협동조합, 행복나무공방, 더그린제너레이션, 채문사,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901CAVE, 쓰리시그마, 키류, 메리차밍, 알짬노리공방 등 이렇게 10개 기업이다.

각 팀은 2주 간격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며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패브릭, 수공예품, 친환경 리빙제품, 의류, 예술 소품 등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상품을 전시 판매한다. 금, 토, 일 주말 오후 2시부터 4시에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방문했던 9월 12일에는 알록달록협동조합과 행복나무공방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알록달록협동조합에서 모루꽃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행사 특징 등

대형 유통 공간인 현대백화점과 지역 기반 소규모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오프라인 플랫폼이다. 단순히 판매 장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기업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육성 참여, 상호 지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작은 기업의 철학과 스토리를 담은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체험 행사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소통할 기회도 생긴다. 또 대형 유통기업의 마케팅 지원과 운영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작은 기업의 성장에 큰 보탬이 되는 행사라고 생각된다.



알록달록협동조합에서 진행한 모루꽃 만들기 체험클래스

성북사회적경제센터 공공구매 박람회 김지성

일시: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10:30 - 14:30
장소: 성북구청 바람마당(성북구 보문로 168)



선정 이유

2025년 성북구 공공구매 박람회는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열렸다. 이 박람회는 2025. 7. 14.(월) ~ 8. 1.(금) 기간에 신청을 받아 선별된 성북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과 강북구, 노원구 소재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생활용품, 먹거리, 서비스 제품을 직접 선보이고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구매 상담과 사전 주문을 받는 행사이다. 주민들도 자유롭게 방문하여 체험과 시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성북마을 아카이브에 남기고 싶어 선정하게 되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 성북구 공공구매 박람회
9.19(금) 10:30~14:30 | 성북구청 바람마당
경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행사장 무대


2025 성북구 공공구매 박람회
(주)엘마드레
마을엄마협동조합

업체 부스



상담부스



현장 구매도 가능한 부스

현장 조사 내용

공공구매는 일반 개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말 그대로 공무원 등 공공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매 상담과 주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예상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개방된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신선했다. 매년 실내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처음으로 실외에서 개최해 일반 주민들에게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한다.*

* 신용섭, 「성북구,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 『서울포커스』 2025년 9월 24일 기사.

행사는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가 주최·주관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려 판로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행사 특징 등

행사 전 워크숍을 통해 공공구매 제도의 이해, 준비 서류,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해 참여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공무원, 일반 시민 모두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체험 프로그램, 시식 이벤트에 참여하고 상담과 계약 가능성을 도모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한다.



체험클래스 참여하는 소비자

성북구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 임진희

일시: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13:00 - 18:00
장소: 성북구청 바람마당(성북구 보문로 168)

한마음으로 함께 모여 신명 나는 잔치를 벌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5 성북구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가 9월 20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펼쳐졌다. 성북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길음시장, 돈암시장, 석관시장에서 이름을 바꾼 돌곶이시장, 장위전통시장, 정릉시장, 정릉아리랑시장 등 성북구에 자리한 6개 전통시장이 참여하였다. 국민대 풍물패의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공연 관람하는 주민들



떡메치기



제기차기

6개 시장의 특화된 상품과 먹거리 판매

오후 1시 1부 사회자 박정현 씨 사회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이승로 구청장은 “지역 경제가 몰락 위기에 있었지만 회복될 에너지가 보인다”며 “조금 더 참고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참석자들에게 민생회복 쿠폰을 성북구에서 꼭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남근(성북 을)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이 아파트 주민들과 청년들과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지원금을 많이 늘렸다고 하였다.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축하 메시지도 있었다. 황기욱 전통시장연합회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개막식 후 참가자들은 퍼포먼스로 “나눔 한마당 추억의 떡메치기” 행사를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인절미는 축제 참가자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먹었다. 사회자는 시장 관련 퀴즈를 내고 정답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제기차기 놀이도 진행되었는데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마당축제에서는 6개 시장의 특화된 다양한 상품과 질 좋은 먹거리를 판매하였다. 6개 시장의 상인회장은 자신들의 시장을 소개하고 “많이 이용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장의 스티커 3장을 팸플릿에 붙여 운영본부에 가져가면 5천 원에 해당하는 상품권과 교환해 주어, 그 금액만큼 물건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도 제공하였다.

흥겨움을 더한 초대 가수들

초대 가수들도 함께하여 흥겨움을 더했다. 인디밴드 더윙스의 연주와 노래, 신동 가수 서건호 군의 트로트 메들리는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였고 사회자는 공연 중간중간 막간을 이용하여 관객들에게 퀴즈도 곁들이며 관심을 집중시켰다. 영화배우 출신으로 구성된 동동악극단은 전위적인 스타일의 코믹 판토마임을 곁들인 흥겨운 노래로 시선을 끌었다. 성신여대 학생들의 댄스 공연도 펼쳐졌는데 역동적인 젊음의 무대에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밖에도 아티스트 정호, 경수빈, 서현이의 노래와 제니유의 신나는 전자바이올린 연주도 인기를 끌었다.

관객들을 상대로 '내가 최고'라는 타이틀로 즉석 노래자랑도 펼쳐져 주민들도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다. 초대 가수의 노래에 분위기가 달아오른 관객들은 무대 앞에서 흥겨운 춤판을 벌이기도 하였다.



성신여대 댄스공연

전통시장 자주 이용해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축제의 맛을 맛깔나게 보여준 것은 시장 상인들의 무대였다. 몸을 사리지 않고 무대에 올라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는 정육점 사장님,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앞치마를 두른 채 옆 가게 언니, 동생들 끌고 집단으로 율동을 하던 먹거리 아주머니 부대, 쑥스러움을 던져버리고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잊은 채 분위기에 호응하는 흥겨운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 몸짓에는 삶의 절실함과 애잔함도 엿보였다. 2부 사회자 김보성 씨는 수차례 “성북구가 잘 살려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한다며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전통시장이 점점 힘을 잃어간다.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던 큰 시장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손님을 빼앗기고 있다. 축제를 지켜보며 전통시장의 힘을 되살리는 길은 상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민들의 응원과 호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하루의 잔치가 아닌 전통시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었다. 전통시장이 활활 살아나는 날 서민들의 삶도 한결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잔치를 마무리하는 상인들의 분주한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장위1동 주민 교류 축제 〈모이장〉 황인성

일시: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13:00 - 16:00
장소: 장위행복누림복합센터(성북구 장위로 21다길 53)

조사지 선정 이유

장위1동 주민 교류 축제 〈모이장〉은 성북구 내에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는 대표적인 소규모 행사 중 하나이다. 이번 조사는 '모이장' 축제가 약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지역 주민이 교류하는 장으로 펼쳐진다는 점이 흥미로워 선정하였다. 행사장에서는 월곡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들이 함께 체험 부스(화관 만들기)와 먹거리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짧은 시간 안에 활기차게 운영하였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축제의 현장성을 직접 경험하고 기록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교류와 주민연대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조사 내용

축제 관련 정보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축제로, 장위1동의 축제 및 주민 간 교류 부족이라는 욕구 조사 결과를 반영한 마을 활동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하였고, 장위행복누림복합센터 앞마당에서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로 짧은 시간만 운영하고 없어지는 팝업스토어 같은 느낌이었다.

축제 운영 내용

전시와 주민 참여형 부스로 나눠 볼 수 있었다. 전시를 살펴보면 마복이(마을 복지의 줄임말로 보임) 전시 부스를 운영 중이었고, 부스에서는 '해피투게더'라는 동아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2022년에 시작되어 동네에 봉사 및 나눔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쓰레기를 줄이자, 버리지 말자'라는 주제로 '지구가 아프다'라는 포스터 등 참여자들이 직접 그린 포스터를 함께 전시하고 있었다.



마복이 전시회



아저씨를 이겨라



깔끔한 리필집



안부 품은 리스 만들기

주민 참여형 부스는 소리 활동 위주로 소리 감각을 깨우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를 전시하고 있었다. 추후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인 미인도에서 전시회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자리에서 해볼 수 있는 게임으로 '아저씨를 이겨라!'라는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헤드셋을 끼고 들리는 소리를 맞추는 게임으로 난이도는 높지 않아 누구나 참여하면 캔디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

옆 부스에서는 '깔끔한 리필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세제를 리필해주고 있었다. 각자 리필할 수 있는 통을 가져오면 리필 해주는 부스였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리필 통에 세제를 받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맞은편에서는 '안부 품은 리스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화관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공간에서 리스(다양한 식물, 꽃, 가지 등을 동그란 원형으로 엮어서 만든 장식품)를 만드는데 성인,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다들 리스 만들기에 집중하여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를 파는 공간이 있었다. 떡볶이, 핫도그를 팔고 있었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먹을 수 있었다. 떡볶이나 핫도그 모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이라 부모님과 아이들이 하나씩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북구 소규모 축제에 대한 생각

성북구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 데 비해 알려지지 않은 축제들이 많은 것 같다. 주민 교류 축제 〈모이장〉의 경우도 소규모 축제로, 우연히 발견하여 참여해 보게 되었을 뿐 성북구에 더 많은 축제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축제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다음 축제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라틴아메리카 축제 임진희

일시: 2025년 9월 21일 일요일 12:00 - 19:00
장소: 성북구청 바람마당(성북구 보문로 168)

정열의 라틴 문화가 펼쳐진 화려한 향연의 현장

9월 21일(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제12회 라틴아메리카 축제'가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진행되었다. 성북구 주최,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주한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13개국 대사관이 참여하였다.



멕시코 전통 민속 춤

라틴의 음악과 춤,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

오후 1시 30분 개막 행사로 재한 멕시코인 협회 '아므렉'이 멕시코 민속춤 미초아칸 및 시날로아주의 전통 댄스 공연을 하였다. 익살과 해학이 가득한 역동적인 민속춤은 관객에게 즐거움과 유쾌함을 선사하였다.

2시 한스 알렉산더 크라이너 성북동 명예 통장과 홍다인 아나운서의 사회로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라틴의 열정적인 음악과 춤, 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자리"라며 "수익금의 일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써질 예정이고, 오늘의 축제가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사절 소개가 이어졌다. 과테말라, 멕시코, 네덜란드, 일본,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브라질 대사와 잠비아 1등 서기관, 콜롬비아 2등 서기관, 페루 2등 서기관, 브라질 공사 등이 인사를 하였다. 성북구 이승로 구청장, 임태근 성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과 한병길 한·중남미협회장, 정교철 성북소방서장 등 관내 기관장들도 소개되었다.



과테말라 대사가 태극기를 부착하는 모습

이승로 구청장은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축제”라며 “여러분과 함께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고, 임태근 의회 의장은 “40여 개의 대사관이 있는 성북구는 다양한 나라가 함께 살고 있는 곳”이라며, 축제 개최를 위해 애써준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였다. 사라 앙헬리나 솔리스 카스타녜다 과테말라 대사는 다양성이 꽃피고 공동체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힘써준 성북구청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글로벌의 이해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개막 퍼포먼스로 각 나라의 국기가 표시된 중남미 지도에 과테말라 대사가 태극기를 부착하였고 구청장이 중앙에 sb성북기를 넣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 방송인 알레한드로 비에베의 깜짝 방문에 참가자들은 환호하였다.

쓰레기 없는 행사 지향

총 22개의 부스가 마련된 축제는 고향을 그리는 중남미인들과 한국인들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행사는 ‘쓰레기 없는 축제’를 지향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개인 용기를 가져오면 500원을 할인해 주었다.

가장 인기를 끈 음식 부스는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긴 줄을 이루었다. 특산품 부스에서는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가 특산품을 선보였고, 중남미 기념품 부스에서는 아마존 카피바라 인형, 작은 관악기 팬플룻, 세라믹 오카리나, 작은 타악기 마라카스 등을 판매하였다.

체험 부스에서는 멕시코 드레스, 에콰도르 폰초, 페루 판초를 준비하여 참가자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삼보나, 께나초, 안따라, 착차스, 께나 등 다양한 전통악기 전시, 전통놀이 트롬포 게임, 볼리비아 전통공놀이, 라마 그림 게임, 볼리비아 국기 색칠하기 등도 마련하였다.

수준 높은 문화 공연도 선보여

화려한 문화 공연도 펼쳐졌다. 개막 행사로 멕시코 민속춤에 이어 오후 2시 40분 Pelin Ercan 커플의 매혹적인 탱고가 공연장을 수놓았다. 3시 20분에는 무술, 춤 음악을 혼합한 브라질 전통 무술 카포에이라 시범이 있었다. 4시에는 앙헬과 바네사의 페루 라틴음악, 4시 30분에는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의 바타차와 메링게 댄스가 있었다. 4시 50분 에콰도르 가수 John Dylan의 공연, 5시 20분 엘꼼보사브로소 밴드의 살사, 바차타, 메렝게, 레게톤 라틴 밴드음악 연주, 6시 JDC 조나단 댄스 컴퍼니의 콜롬비아 전통춤 쿰비아, 밤부코, 살사 공연으로 마무리되었다. 공연은 연달아 이어지지 않고 간격을 두고 정해진 시간에 펼

쳐져 나중에 온 사람도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온 학생들과 가족 단위의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다수 참가하였는데 그들에게는 고국의 음식을 먹으며 조국애를 느끼고 우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고, 성북구민에게는 글로벌한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하며 이색적인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전통의상 체험부스



아르헨티나 탱고 공연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행사 〈ON다 페스티벌〉 김지성

일시: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12:00 - 20:00
장소: 성북천 분수마루 일대(성북구 동소문동2가 130-2)



선정 이유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ON다 페스티벌〉은 성북구 내 여러 골목형 상점, 상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성북구가 지원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이다. 이전에 성북구에서 진행되던 〈개울장〉의 취지를 이어받아, 단순한 플리마켓을 넘어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의 상생형 로컬 페스티벌로 발전한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선정했다.



상점 부스 안내도



플리마켓 개울장



먹거리 부스

현장 조사 내용

행사 당일 비가 많이 내렸다. 굵어진 빗줄기에 행사 관계자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우산과 비닐 덮개가 곳곳에 등장했다. 중앙 무대에서는 예정된 식순에 따라 공식 개막식과 공연이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수제청과 커피, 분식 등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들이 꽤 있었는데, 비 덕분인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음식 냄새가 주변을 감쌌다. 틈틈이 서로 음식을 나누는 상인분들의 모습은 소박하지만 정겨운 '동네 축제'의 매력을 담고 있었다.



다양한 부스와 구경하는 주민들

행사 특징

〈ON다 페스티벌〉은 성북구 상권에 활력의 불(ON)을 켜고, 주민과 온기가 모여들기를 (온다) 바라는 상인 주도형 로컬 축제이다. 공식 개막식과 흥겨운 축하 공연은 물론, 상인들이 마련한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주민 참여를 이끌었다. 이 행사는 상인,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골목 상권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상생 축제라고 생각한다.

* 정준영,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연합축제 'ON다 페스티벌' 24일 개최」, 『연합뉴스』 2025년 9월 16일 기사

성북거리문화축제 〈다다페스타〉 이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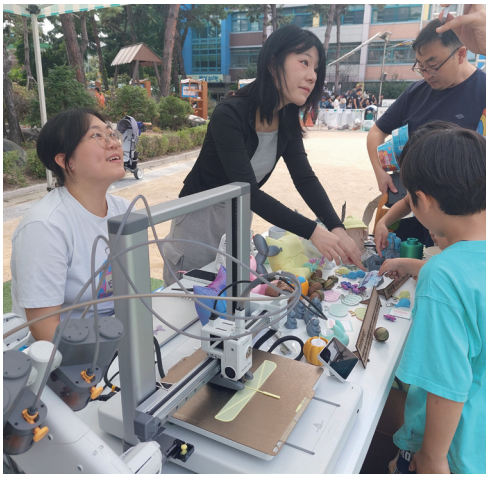
일시: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12:00 -17:00
장소: 석관초등학교 일대(성북구 돌곶이로 22길 21)

지역축제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내가, 9월의 어느 가을날 〈다다페스타〉를 찾았다. 지난 9월 27일, 우리 동네 석관초등학교 일대에서 열린 축제였다. 큰 기대 없이 발걸음을 했지만 색다른 볼거리들, 직접 참여해 보는 프로그램과 뜻밖의 즐거운 만남에 "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지역축제가 이토록 흥미진진한 것이었다니!"라는 감탄이 절로 터져 나왔다.





최아미 작가



한예종 동아리 '8D'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다다어린이마켓', 세계 음식을 맛보며 이국 문화를 경험하는 '다다푸드마켓',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작가 6인이 참여한 '다다 아트마켓'까지, 다양한 마켓이 열리고 있었다. 어린이들이 "2천원이요. 2천원. 싸요. 싸"하면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는 사람들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소박한 일상용품부터 세계 각국의 음식, 정성이 깃든 예술 소품까지 다채로운 물품들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 역시 유리공예가 최아미 작가의 소품을 구매해 집에서 작은 예술의 숨결을 느끼고 있다.

'로컬인다다' 코너에서는 한예종 동아리 '8D'가 3D 프린터로 직접 제작한 물품을 전시하며, 프린터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었다. 말로만 듣던 3D 프린터가 눈앞에서 작품을 빚어내는 광경이 신기해 동아리 학생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냈더니,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이 돌아왔다. 겉보기엔 플라스틱 같은 작은 소품과 장난감들이 실은 모두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변 아이들도 감탄했다.

또 다른 한예종 동아리 '가온누리'는 다국적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모임인데, 이란과 페루 등의 전통 물품과 과자를 선보이며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다. 이란에서 유학 와 한예종에서 해금을 전공한다는 한 여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학생 역시 석관동 주민이라는 말에 반가움이 배가 되었다. 사프란, 대추야자, 이란 과자 등을 구매하자 고마워하며 이란 전통차를 선물로 건네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가 전해져왔다. 이란 여행을 꿈꾸고 있다고 하니 반색하며 여행안내 소책자까지 챙겨주었다.



‘세계 차 기행, Tea크닉’ 코너의 티 마스터



세계전통문화체험 코너

'세계 차 기행, Tea크닉' 코너는 현장 신청을 받아 무료로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기에 서둘러 신청했다. 전문 티 마스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일본 말차를 비롯해 다양한 고급 일본 차를 정성껏 우려내고, 직접 만든 다과와 함께 제공해 품격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인근 다른 부스에서는 '성북발달장애인교육센터'의 참여자들이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정성껏 만든 물품을 전시·판매하고 있었다.

'다다랜드' 코너는 '세계전통문화 체험과 풍성한 놀이로 꿈과 모험이 가득한 하루'라는 주제 아래 세계 전래 놀이와 전통의상 체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2개국 의상과 소품이 준비되어 있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독특한 모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일본·태국·러시아의 전래 놀이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많은 이들이 음식과 간식을 즐기고 있었지만 축제장은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곳곳에 비치된 다회용기 반납함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 덕분이었다. 친환경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행사를 보니,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날을 고심하며 애쓰셨을 모르는 분들의 노고가 감사하게 느껴졌다.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중앙 무대에서는 한복 패션쇼를 시작으로 흥겨운 K-POP 댄스, 열정적인 라틴 댄스와 플라멩코 집시 댄스까지, 화려한 춤의 향연이 이어졌다. 공연 마지막에는 관객 참여 댄스 타임이 마련되어 사회자가 여러 차례 함께 춤추자고 독려했다. 나도 몸이 절로 들썩여 객석 중간쯤까지 나가봤지만, 실제로 일어나 춤추는 관객은 단 한 명뿐이었다. 무대 앞까지 나설 용기가 없던 나는 아쉬움을 삼키며 박수로만 화답했다.

지역축제를 처음 경험해 본 날, 평소 만나기 어려운 예술가들, 지역에서 묵묵히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배우기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온 유학생들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리 동네에서 만난 작지만 의미 있는 지역축제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며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뜻밖의 만남과 색다른 경험은 평범했던 토요일을 의미 있는 하루로 만들어주었다. 내년의 다다페스타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성북동 밤마실 이용희

일시: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장소: 성북동 일대(성북구 성북로 58)

조사지 선정 이유

성북동 밤마실 아트페어에 매년 참가를 하는 작가이다. 올해는 주민기록단으로도 활동하게 되어 성북동 밤마실의 젊음을 부르는 에너지와 밤마실의 북적북적한 거리의 맛을 널리 알리고 퍼뜨리고자 하는 맘으로 한 발짝 발걸음을 내디뎠다.



'성북동 길 요고 페스타' 행사 지도

인터뷰 및 현장 조사 내용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앞쪽에 '성북동 길 요고 페스타'라는 커다란 현수막에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 공간 등 알기 쉽게 안내가 되어 있었다.



창업드림페스타

첫 번째 공간

서울연극창작센터 앞에서는 풍선으로 하는 마술 공연이 젊은 연인들, 어린 친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두 번째 공간

이어진 부스 중에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창업드림페스타' 부스가 보였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하는 체험 부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캠퍼스타운은 서울시 소재 대학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며, 한성대는 2017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지역 주민,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리며 지역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캠퍼스타운에서 여러 도움을 받았던 성북 지역 소상공인입니다.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며 기업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응원합니다.

세 번째 공간

매년 밤마실 최고의 공간인 한성대 회화과와 성북미협 작가님들의 아트페어가 열리는 곳으로 가서 성북미협 경창현 회장님을 만났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아트페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밤마실은 선정된 작가님들의 작품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구민들과 감상도 하고, 한성대학교 학생들과 협업 전시를 해서 미술이 어떻게 주민들 속에 스며들 수 있을까 고민하기



한성대 회화과 & 성북미협 아트페어

도 하면서 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보다는 전시 위주이며, 작가님들께서 구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작품들을 균일가로 내놓으셔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은 좀 거리감이 있는데 이런 아트페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당연하죠~ 일반인들은 갤러리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워 하세요. 작가님들께서 야외에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큰 모험이었지만 미술이 생활 속으로 주민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것보다 일반인들도 같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성북미협이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간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친구들이 버스킹 무대에서 공연 중이었으며, 3년째 참가하고 있다는 보컬 친구의 음색이 아주 감미로웠다. 조만간 이 친구들의 무대를 TV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독립선언서 캘리그라피 부스



떡 만들기 체험 부스

다섯 번째 공간

밤마실의 다양한 체험공간들을 이용하는 분들을 인터뷰 해보았다.

여기 독립선언서 캘리그라피 체험 공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북문화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캘리그라피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광복의 의미를 더하는 글귀도 써보며 뜻깊은 날을 보냈습니다.

(조금 더 걷자 예쁜 친구가 떡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어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자기소개와 지금 무슨 체험을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요?

저는 7살 ○○○입니다. 지금 엄마, 아빠 줄 떡을 만들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고 떡도 맛있어요. 담에도 또 하고 싶어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밤마실의 밤거리에서 행복해 보이는 구민들이 보였다. 2026년 밤마실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것으로 체험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좋을 것 같다. 밤마실이 성북구민들의 문화적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

알뜰도서교환시장 김지성

일시: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10:00 - 16:00
장소: 길빛근린공원(성북구 숭인로8길 52)

선정 이유

새마을문고가 주관하는 행사로 헌책 2권을 새 책 1권으로 교환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풀뿌리 공동체 활동이다. 동 단위 문고 봉사자분들의 자발적 봉사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성북구 주민의 독서 생활화와 지식 나눔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선정했다.





행사 풍경



교환할 도서를 고르는 아이



교환을 기다리는 새 책들



주방세제 만들기 체험

현장 조사 내용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에서 다수의 주민과 새마을문고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하게 진행됐다. 봉사자와 관계자들은 단체복 녹색 조끼를 착용하고 부스 운영 및 진행에 참여했다. 읽고 난 책 2권과 새 책 1권을 교환하는 행사로 성인을 위한 도서는 물론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등 다양한 책이 준비되어 있었다. 1인 최대 헌 책 4권과 새 책 2권의 교환이 가능했다. 새 책 중에 읽고 싶은 신간이 많아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다.

책 교환 후 여러 체험도 가능했다. 에코백에 이쁜 그림을 붙이는 냅킨아트, 커피 가루를 이용해 만드는 주방세제, 타일을 붙여 만드는 컵 받침 등 봉사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완성할 수 있었다.

행사 특징

새마을문고 봉사자분들의 적극적 참여로 가까운 동네 공원에서 다양한 체험을 무료로 경험하고, 읽지 않는 헌 책을 가져와 필요한 책으로 교환하는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실현했다. 또한 도서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었다. 유아, 아동 도서부터 일반 교양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교환되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행사장 옆 직거래 장터

이웃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한마당 남명희

일시: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16:00 - 17:00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16:30 - 17:30
장소: 성북구청 바람마당(성북구 보문로 168)
수월암(성북구 성북로 170)

행사장 모습

성북구 '이웃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한마당' 축제가 10월 11일 오후 4시부터 5시, 10월 12일 오후 4:30부터 5:30까지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열렸다. 올해는 성북동 소재 수월암이 단독으로 주최한 행사였다. 간간이 비가 뿌리는 궂은 날씨여서 참가자는 다소 적었지만, 행사는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었다. 식전 공연으로 풍물놀이 등이 이어져 흥을 돋우었다.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행사장 왼편 사찰음식 체험 코너(연잎밥 만들기)에서는 참가자가 직접 주먹밥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재료비 3,000원을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이었다. 주먹밥은 밥 한 공기 분량에 여러 가지 나물을 넣어 만드는데, 참가자 대부분은 자기가 만든 음식을 포장해서 갖고 갔다.

사찰음식 시식

시식 코너(함께 나누는 건강 사찰 밥상)에는 테이블 위에 뷔페식으로 갖가지 사찰음식을 차려놓았다. 참가자는 줄을 지어 접시에 음식을 담아 간다. 바람마당 가운데 자리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기다리면 봉사자들이 음식을 담은 접시를 배달해 주었다. 음식 종류는 15~16가지로 깔끔하고 맛이 있었다. 식사 중에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주최 측에서 준비한 우의를 나누어 주어 불편함이 없었다. 비를 맞으며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했다.











사찰음식 시식

수월암 주지 혜범 스님을 만나러 가다

행사 다음 날인 10월 12일, 이번 행사를 총괄한 혜범 스님을 만나러 수월암을 찾았다. 수월암은 성북구 성북로 170(성북동 274-2)에 위치한 사찰이다. 1111번 버스 종점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사찰로 1968년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수월암 1층에는 카페 '꾸띠', 2층에는 공양간, 3층에는 대웅전이 있다. 칠층연화탑과 지장전, 극락보전이 있는 수월암은 작지만 독특한 사찰이란 느낌이 들었다.



혜범 스님

혜범 스님을 만나다

대웅전 문을 두드린 뒤에야 스님 한 분이 나왔다. 혜범 스님을 뵈러 왔다고 하자 안으로 안내하며 따끈한 차를 내왔다. 스님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마인드푸드협동조합 혜범스님'이라 적혀 있었다. 스님에게 어제 행사에 관한 얘기와 스님의 경력 등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았다.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적지 않고 스님의 얘기를 요약, 분류해서 정리했다.

행사 준비

그동안 사암연합회 주최로 해 오던 행사를 올해는 수월암이 독자적으로 주최하였다. 음식 준비는 수월암 신자와 봉사자들이 3일 정도 했으며, 식자재는 주로 제기동 경동시장에서 구매해 온다고 했다.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200명분 준비한 음식이 250명분 소요될 정도로 많이 참가하셨다. 무난히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혜범 스님 경력과 활동

혜범 스님은 1992년 출가하여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을 땄고, 한국사찰음식체험관 등에서 지도법사 소임을 맡아왔다. 수월암 주지를 맡은 지 8년이며, 사찰음식 체험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 성북구 어르신 밥상 봉사를 3년 가까이 하고 있으며, '청년밥상 문간'과 협조하여 사찰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찰음식에 대하여

사찰음식은 육류나 어패류를 쓰지 않고 오신채도 뺀 채식 음식이다. 제철 재료 본연의 맛을 위해 양념은 적게 쓴다.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 모두 수행의 하나이다. 남을 위해 음식을 하는 게 곧 나를 위한 것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사찰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고 했다.

'마인드푸드협동조합' 운영과 혜범 스님의 희망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2021년 '마인드푸드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협동조합 사업은 주로 지자체 등과 손잡고 지역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혜범 스님은 누구에게나 사찰음식을 느껴볼 기회가 열려 있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푸드트럭이나 사찰음식 반찬집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사찰음식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 김지성

일시: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13:00 - 19:00
장소: 성북구청 바람마당(성북구 동선동2가 2-13)

선정 이유

주민과 사회적경제 기업, 구청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여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구현한 마을 공동체 행사라는 점에서 이 행사를 기록하기로 하였다. 성북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고, 주민들이 가치 소비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점 또한 기록의 대상이라 여겼다. 더불어 매년 가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이어져 오며 지역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고 봤다.



행사 진행 본부



어린이 공동 미술 체험



어린이 플리마켓



공연

현장 조사 내용

성북구청 바람마당 일대는 가족, 친구 단위의 주민들로 가득 찼다. 성인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 마켓 부스 외에도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사고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플리마켓이 함께 운영되었다.

친환경 먹거리, 수공예품, 소량 제작된 제품 등 사회적 가치가 담긴 상품들이 거래되기도 하였다. 태극기 키링 만들기, 채소를 이용해 미니정원을 꾸미는 퍼포먼스형 쿠킹클래스 등 많은 이들의 인기를 끌었다. 신나는 공연도 끊이지 않았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직접 체험해 보는 미디어 나눔버스 프로그램도 큰 관심을 모았다.

행사 특징

2025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은 일상적인 소비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었던 축제였다. 4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하여 친환경 제품과 윤리적 상품을 선보임으로써, 주민들은 '가치 소비'를 실현했다. 특히, 어떤 상품이 어떤 착한 일을 하는가를 물으며 구매하는 주민들의 모습에서는 단순히 상품을 사고파는 시장을 넘어, 소비 행위가 곧 지역사회를 위한 선한 기여가 되는 순간을 엿볼 수 있었다. 행사에 어린이 플리마켓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이웃 간의 마음을 나누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따뜻한 분위기의 행사였다.



태극기 키링 만들기



미니정원 쿠킹클래스

성북동 사랑 나눔 연합 바자회와 음악회 남명희

일시: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09:00 - 16:00
장소: 성북동 주민센터 ~ 조지훈 시인 집터(성북구 성북로 37 ~ 성북로16길 11)

성북동 사랑 나눔 행사장에 가다

10월 18일 토요일, 비가 그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성북동에서는 즐거운 3종교 연합 사랑 나눔 행사가 펼쳐졌다.



3종교 음악회 포스터



3종교 연합바자회 모습

3종교 연합바자회

3종교 연합바자회는 성북구의 3개 종교단체(천주교 성북동성당, 불교 길상사, 기독교 덕수교회)가 매년 순차적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성북동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오전 9시 반부터 열린 바자회는 성북동주민센터 건너편부터 홍대부고 입구까지 약 400m 구간의 '차 없는 거리'에 60여 개 부스가 설치되었다. 김치전, 떡볶이, 드립커피와 같은 식음료와 지역 특산품 등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의류, 생활용품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즐비하였다. 또한 다양한 물품을 파는 부스 앞에는 발걸음을 멈춘 주민들로 북적였다.

특히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성북동성당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으며, 1946년 창립된 덕수교회는 예장 통합 총회의 상징적인 교회이다. 또한 1997년 개원한 길상사는 법정스님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하다.

3종교 연합바자회는 2008년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길상사(덕조 주지승려), 덕수교회(김만준 담임목사), 성북동성당(김형목 요셉 주임신부) 등 세 종교단체가 해마다 번갈아 주관하며 이어오고 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종교는 달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웃을 섬기자'는 취지로 진행되며, 수익금은 전액 성북 지역 청소년에게 '사랑나눔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3종교 음악회

한편 성북동 '걷고싶은거리' 야외무대에서는 오후 1시부터 '제3회 성북동 3종교 음악회: 울림' 음악회가 팝페라, 성악,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친구네 옥상ART'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종교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공감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천주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소망을 상징으로, 서로 다른 신앙이 하나의 선율로 조화를 이루는 무대였다. 종교와 세대를 초월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화합하는 '열린 축제'의 모범이 되었다. 총 3부로 진행된 공연은 1부 길상사 합창단, 2부 성북동성당 마니피캇 성가대와 덕수교회 중창단 등의 열연, 마지막 3부는 3종교 합동공연으로 구성되었다.

성북동 3종교 음악회는 2023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지역사회의 호응 속에 이어지고 있으며, 성북동 문화축제의 하나로 거듭나고 있다.

사랑에서 연대로, 성북동 3종교 연합의 시작

서울특별시 성북동 숲속에 길상사(吉祥寺)가 자리 잡고 있다. 요정 대원각(大苑閣)이 있던 자리인데, 대원각의 주인이었던 김영한 씨가 1987년에 부지와 건물을 법정 스님에게 무상 시주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김영한 씨는 1930년대 서정시인 백석(白石)의 연인이기도 했다. 1912년생인 백석은 당시 문단 최고의 미남으로 알려졌으며, 1936년 함흥 영생고보 영어교사로 부임했다. 백석과 김영한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해 가을 함흥에서 이루어진다. 김영한은 16살의 나이로 기생이 되었으나, 잡지 『삼천리』에 수필을 발표하며 인텔리 기생으로 이름을 알렸다. 1936년 가을, 백석은 진향(김영한)을 만나 사랑을 다짐한다. 백석은 그녀에게 '자야(子夜)'라는 아호를 지어주었고 두 사람은 급속하게 가까워졌다. 하지만 1940년 백석이 홀로 만주로 떠나며 두 사람은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백석을 그리워하던 자야는 1995년 『내 사랑 백

석』 회고록을 출간했고, 1999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길상사에서는 매년 김영한 씨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는 산사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김영한 씨의 사랑에 감명을 받은 성북동성당과 덕수교회에서도 산사음악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3단체 연합으로 바자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 3단체는 평상시에도 교류를 이어 간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덕수교회에서 길상사를 방문하고, 성탄절에는 승려들이 교회를 찾아온다. 성북동 성당과 길상사는 서로 축하 현수막을 내걸며 예수님 탄생과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3종교 음악회 모습(©덕수교회 제공)

안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임진희

일시: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11:00 - 17:00
장소: 안암초등학교 잔디운동장(성북구 고려대로 7가길 39)



함께 준비해 만든 하루, 2025 안암 어울림 한마당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다. 2025년 가을에도 수많은 행사가 펼쳐졌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긴 시간 준비하고 꼼꼼히 점검하며 실행해 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10월 18일 성북구 안암초등학교에서 펼쳐진 2025 안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속으로 들어가 보자.

준비 과정

주민자치회, 주민센터, 직능단체, 학교 등 30여 명의 축제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8월 29일 1차 회의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민·관·학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사 장소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프로그램 구성, 출연자 섭외, 후원금 모금 등을 협의하였다.

초등학교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시설 훼손 최소화와 금주, 금연을 원칙으로 하였다. 지난해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참살이길에서 진행했던 행사를 안암초등학교로 옮기며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느냐가 관건이었다. 이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9월 23일 2차 회의에서는 행사장 배치도를 공유하고 세부 사항을 점검하였다. 홍보 현수막 설치와 전단지 배부, 『성북소리』 활용 등 다각도에서 홍보를 추진하였다. 우신향병원의 구급차 지원과 성북경찰서의 안전관리, 구청 청소과와의 업무 지원도 약속되었다.



어린이 그림대회



고려대 밴드 공연

축제 당일

10월 18일, 가을장마가 멈췄다. 운동장 바닥 일부는 젖어있었지만, 행사를 진행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운동장을 둘러싸고 용문중 목공체험, 용문고 창업스피릿, 성신여고와 새마을문고의 연합 부스, 먹거리 부스, 주민자치회, 자율방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암헬스센터, 생명의전화, 승가원 등 지역 단체들이 참여한 총 20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축제 안내 부스에서는 입장하는 주민들에게 종이 팔찌 형태의 행운권을 채워주었다. 한편 잔디운동장에서는 '내가 바라는 우리 동네의 미래 모습' 등을 주제로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그림대회가 펼쳐졌다.

이와 더불어 자치회관 사물놀이팀의 공연과 대학생 가수 조기흠 군의 무대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오후 1시 진행된 개막식에서 최광석 축제추진위원장은 "세대와 세대를 잇고 이웃과 이웃을 잇는 뜻깊은 행사"라며 노고에 감사하였다. 이승로 구청장은 "안암동의 저력이 보인다"며 시설 보호와 주인의식을 당부했고, 이종철 국민의힘 성북 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안암초 이연우 어린이와 오명자 안암동 경로당 회장이 함께 개막 선언을 하였다.

장기자랑 '렛츠 끼릿'에서는 안암초 학생들의 합주와 연주, 댄스 무대가 이어졌다. 안암동에서 사업을 하는 백제호 님의 노래에 손주들이 무대에 올라 춤을 추기도 했으며, 용문

고 밴드 '심쿵'과 용문중 '홀릭밴드'의 연주도 펼쳐졌다. 성신여고 학생들은 열렬한 호응으로 활기를 더했다. 이어 마술사 곽태원 님의 마술, K팝 댄스팀 '무브온(MOV:ON)', 고려대 스포츠댄스 동아리 'BURAS', 고려대 밴드 '1905'의 공연과 비눗방울 버블쇼가 환상적으로 펼쳐지자 어린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어린이 그림대회의 대상은 저학년은 안암초 김우석, 고학년은 전서은 어린이가 수상하였다. 심사 위원으로는 김명진 위원과 주민자치회 정성채·최인숙·윤지원 위원이 참여하였다.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오후 5시 축제의 막을 내렸다.

잔치가 끝난 후

2025 안암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는 750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최광석 안암동주민자치회장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진정한 축제였다"며 위원들의 헌신을 치하했다. 더불어 묵묵히 행사를 준비하고 마무리해 준 안암동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아쉬운 부분은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을 다짐하였다.

버블쇼



어린이 문화다양성 축제 〈무지개 놀이터〉 황인성

일시: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13:00 - 15:00
장소: 장위행복누림복합센터(성북구 장위로 21다길 53)

조사지 선정 이유

성북구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를 찾아보던 중, 장위동에서 어린이 문화다양성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축제의 규모는 작았지만, 어린이들이 행사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이 흥미로워 어떤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하는지 궁금해졌고, 이에 조사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조사 내용

축제 관련 정보

어린이 문화다양성 축제 〈무지개 놀이터〉는 장위석관돌봄기관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관들의 협력과 연합으로 만들어 가는 행사이다. 서울석관초등학교,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과 돌봄에 밀접한 기관들이 함께 운영진으로 참여했다. 202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지역 축제이다.

축제 운영 내용

올해 축제는 작은 공연을 시작으로 체험 및 놀이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오프닝 공연은 치어 댄스, 방송 댄스, 합창 공연이 진행되었고 각 기관의 어린이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다고 한다. 치어 댄스는 신나는 노래에 맞추어 응원 술을 흔들며 춤을 추었고, 방송 댄스는 요즘 유행하는 아이브의 노래에 맞추어 아이들이 연습한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대를 통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였는지 공연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이 독도의 날이라는 주제로 글을 읽고 노래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는 무대가 인상 깊었다. 어린이들이 옛날 학생들의 옷을 입고 머리를 땋은 모습이 재밌어 보였다. 마지막으

로는 베트남 전통춤도 볼 수 있었는데, 전통의상을 갖춰 입고 부채로 춤을 추는 모습이 우리나라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 치어 댄스



독도의 날 퍼포먼스



베트남 전통 춤

공연 종료 후 무대를 정리하고, 준비된 행사 부스에서 본격적인 체험 활동이 진행되었다. 주로 만들기 활동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동네의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세계 랜드마크 만들기라는 주제로 풀과 종이 색연필을 이용하여 랜드마크를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그 옆에선 일본 켄다마 만들기라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공을 종이컵에 넣을 수 있게 만드는 놀이로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페이스 페인팅 부스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참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스였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얼굴에 귀여운 캐릭터를 그려 넣고 있었다.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썬캐쳐 책갈피 만들기 부스가 운영되었다. 그 옆에는 베트남 쭈온쭈온 만들기가 운영되고 있었다. 쭈온쭈온(베트남어로 잠자리라는 뜻)은 잠자리 모양의 균형을 잘 잡는 막대로 앞부분을 손끝 같은 곳에 대면 균형을 잡아 잘 매달려 있는 장난감이었다. 이 부스도 인기가 많아 아이들이 대나무 잠자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핼러윈 포토존도 따로 만들어 아이들이 유령 분장을 하고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다만, 준비된 분장 소품의 착용 및 탈의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아이들의 실질적인 참여율은 예상보다 저조하였고, 구경 후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린이 합창



베트남 쭈온쭈온 만들기

2025 어린이 문화 다양성 축제에 대한 생각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외국인 비중이 인구의 약 5%에 근접함에 따라, OECD 기준 다인종, 다문화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지역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요즘 초등학교에 가면 한 반에 다문화 어린이들이 2~3명 이상 재학 중이며, 지방의 경우는 한국 어린이보다 다문화 어린이의 수가 많은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성북구도 이제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번 문화 다양성 축제를 통해 지역의 어린이들이 모여 다른 국가 및 문화에 대해 직접 체험하며 즐겁게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되기를 희망한다.

흥천사 〈왕실 다례 재현〉과 〈사찰음식 축제마당〉 조은영

일시: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 10:00 - 12:30
장소: 흥천사(성북구 흥천사길 29)



왕실다례재현

조사지 선정 이유

성북구 돈암동 흥천사에서 진행된 〈왕실 다례 재현〉과 〈사찰음식 축제마당〉 행사는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전통 의례 재현과 사찰음식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불교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진행되었다. 이에 성북구가 지향하는 전통과 문화, 소통과 화합이 있는 행사 장소로 생각하여 조사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흥천사 〈왕실 다례 재현〉과 〈사찰음식 축제마당〉

흥천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원찰로 세워진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의 철학을 공유하고 왕실 다례를 재현하여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왕실 다례 재현〉은 흥천사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조선시대 궁중 다례 의식을 복원한 행사였다. 왕이 차를 올리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던 의식 절차를 통해 궁중 예법과 불교 의례의 조화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진행된 〈사찰음식 축제마당〉은 제철 재료를 활용한 자연식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불교적 가치와 정신을 나누고, 종교적 거리감을 좁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지향하였다.

현장 조사 내용

10월 26일 일요일 〈사찰음식 축제마당〉과 〈왕실 다례 재현〉 행사가 열렸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선왕에게 차를 올리는 '진전다례(眞殿茶禮)'가 재현되었다. 이번 진전다례는 고종황제의 장증손자인 이준 황손과 김성자 종부, 고손자인 이백 씨가 직접 왕과 왕비, 왕자 역할을 맡아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진행 도중 가을비가 내렸지만, 시민들은 자리를 지켰다. 마지막에 왕(이준 황손)이 "오늘 같이 좋은 날, 차와 음식을 마음껏 즐기도록 하라"는 어명을 내리며 다례는 끝이 났다.

이어지는 사찰음식 체험 시간이 되자 인산인해를 이뤘다. 인근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줄을 정리하며 "어르신들에게 조금 양보해 주세요"라고 외치자 "여기 노인 아닌 사람이 어딨어"라는 농담이 오가며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부스에서는 방생선원 '과일발효유부쌈', 흥천사 '우엉잡채', 연수암 '두부우엉김밥' 등 정성스러운 음식이 준비되었다. 우천으로 일부 공연은 취소되었지만, 이창준의 판소리를 끝으로 시민들과 함께 흥겹게 마무리되었다.

행사 준비 중 사찰음식을 총괄한 지련 스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

스님께서는 여기 부스에 있는 관음사에서 오셨나요?

예, 제가 이번에 총괄을 맡았어요.

참한 사찰과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이 성북구 안에 있는 10개의 사찰이 동참해 주셨어요. 사찰마다 한, 두 가지 해서 한 14개는 될 거예요.

작년하고 메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작년 메뉴와 또 달라요. 교수님에게 레시피를 받아서 연습하고, 같이 먹어보고 몇 번을 해서 만든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엄청 많이 들였어요.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찰 요리 전문가로 한상차림을 여기 뒤에서 하고 계세요. 음식을 미리 하면 신선하기 힘드니까 어젯밤 늦게까지 하고 오늘 또 준비하느라 시간 할애가 어마어마했죠. 흥천사 보살님들은 우엉잡채 만드느라 팔이 아프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여기 참여한 보살님들은 각 절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각 사찰에 소속되어 계시는 보살님들이 하셨죠. 주지 스님들도 일이 많은데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작년에 해봤다고 조금 노하우도 생겼네요.

마무리하며

1회에 이어 2회에도 행사에 참석하였다. 궂은 날씨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종황제 후손이 직접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고 작년보다 안정된 진행을 보였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 이 행사가 성북구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











전시 음식

정든마을의 부흥주택 신해영

일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15:30 - 17:00
장소: 정릉동 685-157(성북구 솔샘로6길 42)

주민기록단 교육을 받으면서 부흥주택이 어떤 형태의 집인지 관심을 두게 되었다. 1953년 종전 이후 정부 부처인 부흥부에서 발행한 산업부흥국채를 재원으로 전후 산업부흥과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1957년 대한주택영단에서 부흥주택단지를 지었다고 한다. '한평'(동네생활연구소 한평)을 찾아가다가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 세워진 안내판을 보니 그곳에 이 지역이 과거 부흥주택 단지였다는 소개글이 있었다. 부흥주택과 관련된 사진과 자료를 찾아보면서 아직 주택단지가 남아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던 차에 이 안내판을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떤 형태의 집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구글맵으로 주택단지를 찾아보고 지역 탐방을 갔다.



부흥주택 정면 두 채의 부흥주택이 담을 공유하고 있다.



부흥주택 외부 계단 이층으로 오르는 길이 외부에 계단으로 되어있다.



부흥주택 외형 일반적으로 보이는 부흥주택 외형에 변화를 주었다.

'정든마을'이라는 이름은 2013년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붙여졌다. 역사가 있는 주택이 많고 마을에서 오래 거주한 어른들도 많아 오랫동안 정들어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의미와 함께 새로 들어오는 주민들도 오랫동안 함께 정들어 살아가는 마을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정든 마을에는 한옥과 부흥주택이 섞여 있었다.

정든마을에 있는 한옥들은 1955년 경신고등학교가 현재 위치인 혜화동으로 이전하며 운동장으로 쓰였던 땅에 지어지며 한옥 군을 이루었다. 2012년에 17동의 한옥이 있어 한옥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이후 한옥이 빠른 속도로 헐리고 빌라로 채워졌다.



부흥주택 원형 부흥주택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다.



부흥주택 개조 부흥주택의 1층을 상업용도로 변경했다.

부흥주택도 이런 변화에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부흥주택들이 빌라로 바뀌고 지금은 세 군데의 골목에 몇 채씩 남아 있었다. 초기에는 흙벽돌로 지은 부흥주택도 있었으나 홍수 등으로 흙이 유실되면서 흙벽돌로 지은 부흥주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시멘트 벽돌로 지어진 부흥주택만 남아 있다. 부흥주택의 기본 형태는 2층으로 되어있는데 일본식과 서양식 주택이 결합된 형태이다.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내부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와 외부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나뉜다. 집에 들어서면 바로 주방이 있고 안방에 들어가기 전에 거실 역할을 했던 마루 아래 아궁이가 있었다고 한다. 부흥주택 중에 한 곳은 작은 툇마루가 대문 너머로 보였다. 부흥주택 두 채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니 벽을 공유하고 있지 않고 두 건물 사이가 작은 틈으로 나뉘어 있어서 별개의 건물로 나뉘어 있었다. 반면, 담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세워져 있는 곳도 있었다.

한옥 보존을 위해 한옥의 외형은 남기고 내부를 개조해서 그 역사 자료를 남기는 것처럼 부흥주택도 기본 골격과 외형은 보존하고 내부만 개조하는 사업이 진행되어 그 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메모리루트:
정릉읽기_私·史로운 정릉 건축 산책 신해영

일시: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10:00 - 12:00
장소: 정릉동 689-19(성북구 솔샘로6가길 18)



조사지 선정 이유

성북문화재단에서 〈메모리 루트: 정릉 읽기〉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중 한 프로그램으로 황두진 건축가와 함께 정릉의 동네를 걸으며 설명을 듣는 스페셜 루트 프로그램이 있었다. 주민기록단 활동 보고서를 쓰면서 정릉에 도시 한옥과 부흥주택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건축물들을 둘러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가하고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일본식 기와로 지어진 한옥

현장 조사 내용

황두진 건축가는 정릉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사전답사를 와서 보니 투어를 시작하는 장소가 자신이 어렸을 때 살던 집 근처여서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답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정릉 건축의 역사를 같이 이야기하게 되어서 투어의 제목을 '사사(私·史)로운 정릉 건축 산책'이라고 붙였다고 한다.

그가 준비한 자료의 첫 페이지는 1700년도 〈도성도〉였다. 이 지도 우측 산 아래에 손가장 마을이 그려져 있어서 가장 오래된 정릉이 표시된 지도로 여겨진다고 한다. 또, 현재의 정릉 지도에 손가장 마을, 일제 강점기 한옥, 해방 후 도시 한옥, 한국전쟁 이후에 흙벽돌로 지어진 재건/희망주택, 부흥주택, 동방주택, 국민주택, 정릉주공/정릉시민 아파트 등 역사적인 주택 또는 단지를 표시해 둔 것을 보니 정릉이 그야말로 주택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일제 강점기 한옥은 보통 북촌, 서촌, 익선동, 안암동, 삼선교, 냉천동 등을 이야기하는데 정릉에도 정릉 중앙하이츠빌 2차 아파트 근처에 아직 주택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 주변의 한옥들을 보면서 도시 한옥과 좀 다른 형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곳이 일제 강점기 한옥 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황두진 건축가는 자신이 이 한옥 중의 한 곳에서 살면서 다락에서 놀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955년 당시 정릉에는 3개의 석조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아동 감리교회, 길음동 천주교회, 정릉교회라고 한다. 이 화강석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을 통해 접한 석조건물의 모형을 따랐던 것이라고 한다.

답사는 정든마을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근처에 있는 부흥주택을 시작으로 도시 한옥을 지나 정릉천을 끼고 손가장 마을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가다 다시 부흥주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도로를 건너 삼덕단지에 있는 최만린미술관에서 마쳤다.

부흥주택은 한국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 과정에서 지어졌던 일본식 건축물이다. 옆집과 대칭구조로 되어있어서 황두진 건축가는 어렸을 때 친구와 벽을 두드리며 신호를 교환했던 추억이 있다고 한다.

길을 따라가며 건축가의 관점에서 보면 메인 스트리트와 그에 따라 형성된 상점들이 아직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 시장이 자생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정릉시장이 정릉천 위에 있었던 기억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국민부동산 뒤편에 당면 공장과 하천이 있었고, 금난새 지휘자의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금잔디유치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금잔디유치원은 지금은 금잔디빌라로 바뀌어 있다.

지나는 길에 만난 도시 한옥은 처음 지을 때 사용했던 타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옥 단지가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꽤 큰 한옥 단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대칭구조를 잘 보여주는 부흥주택



개조된 부흥주택



삼덕단지 주택

손가장 마을은 왕 씨와 손 씨가 살던 마을로 표지석만 남아 있다. 옛 건축물은 찾아보기 어렵고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길을 통해 골목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묘미가 있어서 다방구나 술래잡기가 최적화된 어린이들의 놀이터였을 거라고 추측해 보기도 했다. 한편, 맞은편에는 김성칠 역사가의 집터가 있었다. 그 옆에는 암키와와 수키와가 붙어있는 일본식 기와로 지어진 한옥이 있었다.

그렇게 돌아 황두진 건축가가 살았던 소나무집의 맞은편에 있는 부흥주택을 만났다. 그 부흥주택은 정말 샴쌍둥이처럼 대칭으로 벽을 공유하며 집이 나란히 붙어있었다. 그 당시 화장실은 집의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 계단 쪽에 있었고, 재래식 화장실이었다고 한다.

도로를 건너 삼덕단지로 들어섰다. 동방주택이나 부흥주택은 공공에서 동일한 모양으로 지어서 분양했던 반면 개인 재산이 축적되어 가자, 택지는 분양하고 집은 각각 소유주가 짓도록 한 삼덕단지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삼덕단지에 있는 집은 외형이 다양하다. 정릉이 부자 동네라는 별칭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삼덕단지, 동방주택, 교수단지, 508단지와 같은 기획 부동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단지들은 땅도 넓고 집도 번듯했던 동네였다. 마지막 방문지인 삼덕단지는 '프랑스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단독 주택도 있었다. 〈응답하라 1988〉에 등장하는 정환이네 집이 삼덕단지의 프랑스식 지붕을 가지고 있던 집이다. 최만린 미술관이 이 삼덕단지 안에 있었다.

성북천에서 바라본 오래된 집들 양혜선

일시: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18:08 - 19:00
장소: '안암2교 ~ 보문4교' 성북천 일대(동대문구 신설동 ~ 성북구 안암동3가)

조사지 선정 이유

한 마을을 잇고 이어주는 길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만은 아니다. 길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발자취, 그리고 그들이 남긴 시간의 결이 고스란히 스며 있다. 특히 성북천을 따라 형성된 산책길은 성북 주민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애틋한 공간으로,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는 동시에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품은 기억의 무대라 할 수 있다. 성북천이 단순히 걷는 공간을 넘어서 삶의 풍경과 공동체의 정서가 응축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천천히 흐르는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사라져 가는 옛 정취와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의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장면을 만들어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마당이자 울타리가 되어주는 성북천 산책길이 지닌 생활 문화적 가치를 기록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추억과 감정을 남겨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 및 현장 조사 내용

성북천 안암로·고려대로 인근 구간은 도심 속 하천을 따라 주거지, 상업 공간,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이 혼재하는 복합적인 공간 구조를 보여준다. 하천 양옆으로는 보행로와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곳곳에 벤치와 녹지가 마련되어 주민들의 휴식과 산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천을 따라 위치한 건물 중 다수는 근대·현대의 흔적을 담고 있는 노후 건물들로, 외벽에 적층된 벽돌, 시멘트 마감, 노후한 간판 등이 지역의 시간성을 드러낸다. 일부 건물은 개·보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상업 시설이나 카페, 음식점으로 변모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경관을 형성한다.

또한 하천을 경계로 맞은편 건물과의 높낮이 차가 발생하여, 하천변에서 바라보면 위로 솟아 있는 건축물이 연속적으로 배열된 모습이 관찰된다. 이는 성북천 일대의 지형적 특성과 건축적 배치가 결합된 결과로, 지역만의 공간적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안암로5길의 주택 주로 붉은 벽돌의 2-4층 다세대 주택이 있다.

조사지 특징

역사성과 현대성의 공존

노후한 건물과 신축 건물이 혼재하여, 지역의 시간적 층위가 동시에 드러난다. 오래된 상점, 간판, 주택 형태가 과거의 생활 흔적을 보여주며, 동시에 현대적 시설이 도입되어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하천과 건축물의 밀착

성북천을 따라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하천과 도시 공간이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일부 건물은 하천 쪽을 향해 출입구·창문이 배치되어 있어, 물길을 생활 공간과 직결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고려대로 8길의 주택과 상가 다른 연식의 주택들



경관적 특징

하천변의 녹지와 벽돌·시멘트 외벽이 어우러져 독특한 도시 경관을 형성한다. 건물의 층고와 배치가 불균질을 띄고 있어, 보행자가 걷는 시점에 따라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나타난다.

생활 문화적 의미

성북천 산책로는 단순한 보행로가 아닌 주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기능한다. 오래된 건축물은 지역의 기억을 담은 생활사적 자산으로, 주민 정체성과 공동체적 정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려대로 6길의 주택 성북천의 상권을 형성하는 상가주택과 낮은 단층 한옥집

철거 예정인 주택 건물 이가현

일시: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18:00 - 19:00
장소: 보문동7가 19(성북구 안암로3길 55)



성북구 주민기록단으로 활동한 지 이제 3년 차가 되어간다. 내가 자라 온 성북구가 변해 가는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한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성북구는 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조용하고 정감이 가던 소박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아

파트 단지로 변해가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주택이나 빌라들이 철거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기록단으로써 기록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이런 주거지가 변해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다. 작년 주민기록단 활동을 하면서도 골목골목마다 위치한 주택과 주거지의 모습을 기록하는 활동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기록해야 할, 앞으로 사라질 예정인 작은 건물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조사지로도 그런 작은 집들을 기록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기에 그동안 유심히 보았던 건물지를 찾아가게 되었다.

이번 조사지는 안암로3길 55에 위치한 1채짜리 주택이다.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이었던' 곳이 되었다. 건물이 주차장과 건물을 구획하는 벽에 아주 붙어 있어, 집이 생긴 이후에 주차장을 구획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북구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주택의 특징





주택 앞에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이 붙어있으나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다.



안전제일 라인이 쳐져있으나 잡초가 무성하여 방치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 오른편의 외부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철문이다.

인 한옥 양식의 지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양옥이 아닌 전통 방식의 기와를 쌓아 올린 한옥 지붕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4년경에 방문했을 때는 그래도 집 앞의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현재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이 문 앞에 붙어있음에도 앞에 라바콘과 정돈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임을 증명한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를 수집하는 판과 CCTV 등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 앞에 안전제일이라는 라인이 쳐져 있는 것과 문 아래에 잡초가 무성히 난 것을 보아 방치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집인 것으로 추정한다. 지붕 또한 오른쪽 면이 거의 무너진 것을 보아 보

수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지 오래된 집으로 추정한다.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나무로 되어있는데, 옆에 우편함이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금지하는 안내판이 나뒹굴고 있다. 보문동 주민센터 인근에 위치해 있고 신설동에서 보문동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위치해 있기에 유동 인구도 많았고, 또 인근에 주택이나 업장도 많으며, 바로 옆에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기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 문구 또한 옛 주택가의 특징으로 보인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 등을 모두 나눠서 수집하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집의 오른편에는 옛날 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대문이 있다. 남색의 철문에 금색의 철제 장식이 되어있는 형태로, 요새는 잘 이용하지 않는 열쇠 구멍이 손잡이 하단에 있다. 또한 붉은 벽돌의 외벽에 오래된 철제 창틀과 오래된 철제 창틀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깥에 부착해 둔 방범창마저 최소 2000년대 초반까지 보이던 주택의 양식을 하고 있다. 빨간 벽돌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흔적들 또한 그런 세월의 흔적을 대변한다. 하지만 이처럼 단독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앞에는 무단투기나 방치된 쓰레기들이 쌓이기 쉽다. 집의 오른편에는 옛날 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대문이 있다.

이처럼 집의 외형과 주변 환경은 시간이 멈춘 듯한 인상을 주며 성북구의 과거 주거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조용했던 동네의 기억을 품은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시간이 만든 흔적들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낡은 철문, 빛바랜 벽돌, 곳곳에 붙어 있던 전단지의 자국들은 이곳이 한때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말해 준다. 아파트 단지로 급변하고 있는 성북구의 흐름 속에서, 이런 단독 주택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 작은 집이 주는 정서와 풍경은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앞으로도 주민기록단으로서, 이렇게 사라져 가는 동네의 기억과 공간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싶다.

전시 〈펜, 총, 그리고 연대〉 정혜인

일시: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13:00 - 13:30
장소: 문화공간이육사(성북구 종암로21가길 36-1)

조사지 선정 이유

성북근현대문학관과 성북선잠박물관을 견학하면서 『구석구석 성북구 문화 탐방 스탬프 워크북』을 발견하게 되었다. 워크북에는 총 다섯 개의 문화공간이 적혀 있었다. 두 문화공간은 이미 견학했으니, 다른 공간들도 방문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성북구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엔 어디를 방문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문화공간 이육사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는 전시 〈펜, 총, 그리고 연대〉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렇게 조사하게 되었다.





문화공간이육사 입구

현장 조사 내용

해당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된 전시로, 종암동에 위치한 문화공간 이육사 3층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 올해 8월 14일에 시작하여 11월 29일까지 열렸다. 관람료는 무료였다.

〈펜, 총, 그리고 연대〉 전시를 관람하면서 문화공간 이육사에도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아담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1층은 청포도 라운지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도서를 빌려 읽을 수 있다. 2층은 상설 전시실로, 이육사 시인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층은 기획 전시실로, 해당 전시가 열린 공간이다.

전시는 우선 성북구에 거주했던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전시의 중간에 마련된 '일제 감시 대상 인물카드'를 통해 성북구에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살고 있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세한 연보를 통해 그 독립운동가들이 언제 어떤 독립활동을 펼쳤는지 역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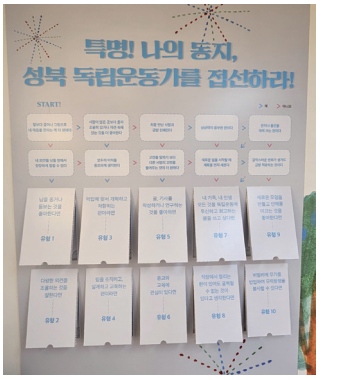
이 전시에는 다양한 체험 활동도 준비되어 있었다. 우선 나와 비슷한 성향의 독립운동가를 찾고, 그 독립운동가에 대한 설명이 적힌 엽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삼일절 기념식에서 발표된 조소앙 독립운동가의 연설문을 직접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또 그 모습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마치 그 시대의 독립운동가가 된 것처럼 더더욱 전시에 몰입할 수 있었다.

전시는 성북구의 다양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특히 문학을 주요 무기로 삼았던 한용운과 이육사 독립운동가에 대해 설명하며 마무리되었다. 이 코너에서 관람객들은 두 독립운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체험 활동

동가들의 연보와 그들이 참여했던 독립활동, 그리고 그들의 문학 작품에 대해 세세하게 알 수 있었다. 전시 공간의 정중앙에는 한용운과 이육사 독립운동가의 작품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벤치도 마련되어 있었다. 전시를 보고 난 뒤 두 독립운동가의 문학 작품까지 읽고 나면,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용운, 이육사

조사를 마치며

우선 문화공간에서 열리는 다양한 전시의 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해당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기획하는 전시들을 관람하다 보면 성북구에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곤 한다. 성북구에 존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어서 좋고, 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기대할 수 있어서 더더욱 좋게 느껴진다. 아직 방문하지 못한 문화공간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졌다.

또 이번 전시를 통해 성북구에 이렇게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는 전시이니만큼, 역사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얻은 자유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작은 규모로 구성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에 대해 충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전시였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역사는 앞으로도 귀중히 간직해야 할 가치 중 하나다. 그리고 그건 과거의 역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쌓이고 있는 역사, 그리고 미래에 쌓이고 있을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시를 보고 나니 미래에서 이 주민기록단 활동을 본다면 어떤 역사로 쌓여 있을지 궁금해졌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크고 작은 희생이 모여 독립이라는 숭고한 업적을 이루어 냈듯, 주민기록단의 크고 작은 기록물들 역시 쌓이고 또 쌓여 커다란 역사적 가치를 지닐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낭독공연 〈내가 삶을 마주할 때〉 정혜인

일시: 2025년 9월 21일 일요일 15:00 - 17:00
장소: 성북정보도서관 지하1층 천장산우화극장(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조사지 선정 이유

성북문화재단 블로그를 보던 중, 성북정보도서관에서 〈내가 삶을 마주할 때〉라는 낭독 공연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전에 해당 낭독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하는 게시글 역시 본 적이 있기에, 해당 공연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성북구 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성북구 주민기록단으로서 조사하게 되었다.



성북정보도서관

현장 조사 내용

낭독 공연 〈내가 삶을 마주할 때〉는 작문+낭독+공연 워크숍 '마주하는 목소리' 팀에서 주최한 공연이다. '마주하는 목소리' 워크숍은 올해까지 4회차 이루어진 성북구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올해는 '마주하는 목소리' 외에도 '나의 독백 만들기'를 새롭게 신설해 공연을 올렸다고 한다.

이번 공연은 2025년 9월 21일,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성북정보도서관 지하 1층 천장산우화극장에서 열렸다. 총 2시간의 러닝 타임으로, 1시간 30분가량은 낭독 공연, 나머지 30분은 공연을 마친 후의 수다회로 이루어졌다. 낭독 및 공연 프로그램 '마주하는 목소리' 4기 팀과 '나의 독백 만들기' 팀이 각각의 공연을 꾸렸다.

공연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인상 깊었다. 우선 실제 연극 무대처럼 꾸며 놓은 공연장이 눈길을 확 사로잡았다. 낭독 공연이라고 해서 그저 앉아서 글을 낭독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 연극 무대처럼, 배우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낭독자들은 공연 내내 끊임없이 움직였다. 낭독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무대 옆 스크린에 공연을 위한 보조 자료가 뜨고, 조명이 연출에 따라 깜빡이고, 효과음 등을 트는 입체낭독 공연의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이 연출 방식이 공연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장산우화극장 입구

조사를 마치며

올해 8월, 몇 년간 다녔던 대학교를 졸업했다. 올해 6월까지 학교를 다녔지만, 주로 수업이 끝나자마자 귀가하거나 교내에서만 머물렀기 때문에 학교 근처 동네를 돌아다니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었다. 성북정보도서관을 알게 된 것도, 실제로 방문해 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도서관을 새로이 알게 되어서 우선 기뻤다. 공연을 보는 등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만이 아닌 지역의 또 다른 기억 역시 내 안에 남는다는 점이 좋은 것 같다.

전문 예술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꾸린 공연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공연을 보면서 '내가 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땠을까?'를 상상하게 됐다. '마주하는 목소리' 프로그램 외에도 앞으로도 지역 내, 더 나아가 지역 외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또 긴 기간 동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연장

기록의 순간들

새 봄의 기운이 완연한 3월, 성북을 기록하기 위한 주민기록단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사, 촬영 실습부터 구술 인터뷰 방법론까지 10회의 전문적인 수업을 통해 기록가로서의 내실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6월, 당찬 포부와 함께 출범한 2025 성북구 주민기록단 단원들은 성북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소중한 기록을 가꿔냈습니다. 왕성한 활동 중에도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고 유대를 쌓아온 그 소중한 순간들, 이 순간의 기록을 만나보세요.








주민기록단 교육


4. 촬영 실습






인터뷰 실행하기
2025 성북구 주민기록단


터뷰 과정의 이해 및 인터뷰 준비하기




2025년 성북구 주민기록단 출범식
sb 성북
일시 2025. 6. 23. 19:00
장소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성북문화원

















사람 사는 성북을 즐겁게 기록하기

오제연(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2025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 축제와 사람』은 성북문화원에서 주민기록단 교육을 받고 현재 주민기록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생산한 성북에 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총 15명의 주민기록단 단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2025년의 기록은 여러 면에서 작년 2024년에 나온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과 비교됩니다.

우선 2024년의 경우 주민기록단 단원이 20명이 단원 1명당 1건의 기록만을 수록한 반면, 2025년에는 참여한 주민기록단 단원이 1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대신 한 사람이 1건에서 최대 8건까지 여러 기록들을 활동보고서에 담아냈습니다. 참여한 주민기록단 단원이 약간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활동보고서 자체는 작년보다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2025년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의 성장은 비단 '양'적인 면에만 있지 않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작년에 비해 크게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기록단 단원들이 성북구 곳곳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과 나눈 구술인터뷰가 작년 2건에서 올해 21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성북문화원에서 주민기록단 교육, 특히 구술인터뷰에 대해 꾸준히 교육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너무 반가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미 작년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의 '제언'을 통해, 주민기록단 활동에서 핵심은 결국 '주민', 즉 사람이며, 주민기록단 교육에서 구술사 방법론과 실제 인터뷰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도 결국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활동보고서에 구술인터뷰 기록이 2건밖에 없음을 아쉬워하며, 앞으로 주민기록단 활동에서 그 비중이 좀 더 커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바람이 불과 1년 만에 실현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 활동보고서에 담긴 21건의 구술인터뷰에 등장하는 성북구 주민들은 정말 다채롭습니다. 오랫동안 성북에서 살아온 토박이도 있고, 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성북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도 있고, 성북에서 각종 생업과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삶이 곧 성북의 역사이자 오늘입니다. 성북구 주민기록단이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록으로 오롯이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더불어 '축제'와 '행사'에 대한 기록이 대폭 증가하여 20건이나 되는 것도 2025년 활동보고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저는 성북구에서 10년 이상 살았지만 성북에 이렇게 많은 축제와 행사가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번 활동보고서에 담긴 성북구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 기록은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성북 주민들이 역사 및 문화를 토대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그밖에 이번 활동보고서에는 오래되고 독특한 주택이나 건물, 또 주목할 만한 전시나 공연에 대한 6건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4년 활동보고서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간에 대한 기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비중이 줄었습니다. 아마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술인터뷰가 늘어나면서 공간에 대한 기록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성북이라는 지역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결국 공간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물론 공간에 대한 관심과 기록 역시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활동보고서를 잘 읽어보면 구술인터뷰나 축제/행사 기록에서도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만 성북구 내 다양한 공간을 세밀하게 다루는 기록이 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5년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의 제목은 "축제와 사람"입니다. 이 활동보고서에 담긴 여러 성북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축제'라는 키워드로 묶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인을 흔히 '한'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좀 비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슬픔마저 힘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즐거운 축제가 계속된다면 '한'마저도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기록단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쪼개고, 애를 쓰고, 발로 뛰며 지역을 기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괴로운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보고서를 보면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주민기록단 단원들의 숨결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즐거움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주민기록단 단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즐겁게' 수행한 성과가 이 활동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북구 주민기록단 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
축제와 사람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발행인 김영일
집 필 **성북구 주민기록단** 김지성·남명희·박경희·선종욱·신해영·양혜선·윤서영·이가현·
이수연·이용희·임진희·장보혜·정혜인·조은영·황인성
편 집 인치우·이슬하
디자인 권이지·이정아
펴낸곳 학연문화사

성북문화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전화 02.765.1611 팩스 02.765.1619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성북마을아카이브 archive.sb.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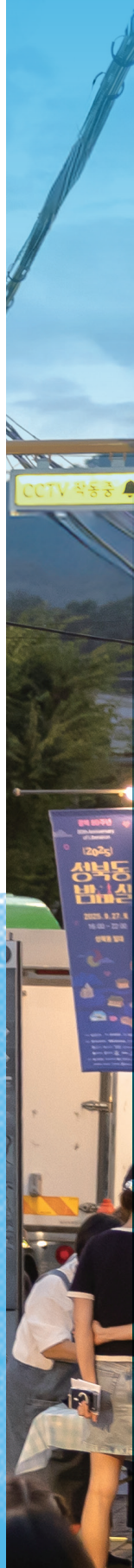
비매품
ⓒ 2025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라질 지역의 모습을 기록해 남기는 일은 우리 후손들에게
성북구를 기억하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지닌 주민들의 이야기에서
지역을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참여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 선종욱 (2025년 성북구 주민기록단 단장)

2025년 성북구 주민기록단의 활동 주제는
'축제와 사람'이었습니다.
각양각색 축제의 훈훈한 열기,
성북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한 성북의 과거와 현재가
98편의 기록활동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그 중 47편을 선정하여 책으로 묶었습니다.



비매품 | 무료
03910
9 791198 599070
ISBN 979-11-985990-7-0